

작가 소개  
작가 연보

**작품 해제**

- 글로벌 에일리언 (Global Alien)
- 프로젝트 (2006-2015)
- 원 나이트 워드 필월스
- 티셔츠 인 마이 베드
- (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 (2006-2007)
- 진실된 이야기 2 (True stories 2) (2012)
- 진실된 이야기 1\_Ver. 1-4 (True stories 1, Ver. 1-4) (2013-2014)
- 유니버설 콜라보레이터
- 서울 (Universal collaborators, Seoul) (2014)
- 꽃기라 로맨스 (Floral patterned roman) (2014)
- 미스리와 김여사 (Miss Lee and Mrs. Kim) (2017)
-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2019)
- 입술 위의 깃털 (Feathers on lips) (2020)
-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
-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
-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te) (2022)
- 살필 운동 (Caring exercise) (2023)

**아카이브**

- 아카이브를 위한 향해지도
- 솔르,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 프로젝트 매뉴얼
- 이미지 아카이브

**비평문**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젠더적 공간과 그 경계  
무장소의 장소성, 조영주의 설치 작업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_차별적 성별화된 사회  
경계에서의 예술작업 (비)무장화, (비)물질화:  
조영주 작품 속 여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치유의 안무: 아줌마 델스 비디오 시리즈  
살에서 일어나는 반복적 기억  
신체가 맞이하는 국면들, 조영주의 매개적 퍼포먼스 세계 내 몸에서 온 세계로  
마주 본 몸: 협업과 조영주 퍼포먼스의 신체성  
분열된 욕망, 조영주 작가의 풀 타임-더블 (Full time-double),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세 개의 숨 (Three breaths)에 대한 노트  
정원사의 눈을 피해 솟아오르는 연대를 위한 경합과 교섭의 기예  
인티뷰: 작가와의 대화

조

주

Cho

Joo

작가 약력  
필자 소개  
크레딧

부록  
세 개의 숨 약보

**조0 주, Cho 0 Joo**  
**2022-2023 조영주 작가**  
**조사-연구-비평 사업**

책소개

조0주, Cho 0 Joo는 약 20여 년 간의 조영주 작가의 작업을 담고, 그에 대해 비평문을 모은 연구-비평서이다. 작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프랑스에서 유학 시절을 보냈고, 독일에서는 약 5년 동안 예술가로서 긴 시간을 보낸 후 2010년 중반 무렵부터 다시 한국에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 연구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작가 조사 연구 비평 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9명의 국내 필진과 3명의 해외 필진이 참여하였고, 작가의 기초적인 자료 연구와 대표작에 대한 서술, 새로운 비평 작업이 2022년-2023년 동안 진행되었다. 조영주의 2002년 데뷔 이후의 작품을 69개의 리스트로 조영주의 작업을 ‘솔로’, ‘컬렉티브’, ‘콜라보레이션’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각 작품마다 제작연도와 매체, 소장처, 참여자, 전시이력 등 주요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아카이브 중 일부를 선정하여 프로젝트 매뉴얼을 만들어 작가의 작업 구축 방법을 제시하였다. 비평문은 신체, 젠더, 돌봄, 퍼포먼스의 키워드로 새로운 비평언어를 찾아보고자 하였으며, 과거의 비평문 중 연계가 되는 내용을 함께 구성하였다.

이 연구서를 접하는 독자들이 조영주 작업의 틈을 찾아내주신 필진의 비평문을 폭넓은 시선으로 비평적으로 경험하고, 다소 복잡한 영상, 설치와 현장성이 반영된 아카이브를 천천히 보면서 그동안 소개된 조영주 작가의 작업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작가소개

조영주 (1978-, 서울 생)는 성균관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서양화 전공으로 졸업했고, 프랑스에서는 파리-세르지 국립 고등 미술학교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Arts de Paris-Cergy)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수여받은 후 독일의 베를린에서 예술가로 수년 간 활동했다. 2012년에 귀국해 국내 활동을 시작했고 현재는 서울을 기반으로 해외의 프로젝트에도 다수 참여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베를린 골드러쉬 여성예술가프로젝트,

사회과학 모임 등 민간 단체 활동과 예술 활동을 하였다.

국내에서는 경기창작센터, 부산의 홍티아트센터, 대전테미창작센터, 인천아트플랫폼, 금천예술공장,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등 다양한 레지던시에서 입주작가로 활동했다. 2023년 영국의 델피나 재단 레지던시에서 3개월간 입주하여 유럽 예술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서울문화재단, 프랑스문화원 예술프로젝트 지원금, 성평등 기금 등 지원금 수혜 이력을 비롯하여 2020년 제20회 송은미술대상을 수상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신여성 도착하다 (2017), 다다익선: 즐거운 협업 (2022), 경기도미술관의 미술관의 입구: 생태통로 (2022), 부산시립미술관의 나는 미술관에 ○○하러 간다 (2022) 등 주요 미술관의 기획전에 참여하였으며, 2024년 송은에서 개인전 카텐짜가 열린다.

조영주의 작업은 솔로,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으로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설치, 사진, 비디오, 퍼포먼스, 무용 등 여러 영역에 걸쳐 다양한 매체의 형식을 실험하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오랜 기간 ‘여성 신체 이미지/여성의 삶’을 주제로 여성의 신체성과 그에 결부되는 다양한 정치성을 다뤘다. 조영주의 작업에는 가정 내에서의 ‘접촉’을 중심으로 한 신체적 경험, 그리고 나아가 여러 문화권에서 금기시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2020년부터는 여성을 둘러싼 논의를 넘어 ‘돌봄’을 주제로 사회적 약자 문제, 한국 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미묘한 불합리함을 함께 아우르는 작업을 하고 있다.

3	작가 소개
7	작가 연보
14	<b>작품해제</b>
15	글로벌 에일리언 (Global Alien) 프로젝트 (2006-2015)
16	원 나이트 워드 썸원스 티셔츠 (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 (2006-2007)
17	진실된 이야기 2 (True stories 2) (2012)
18	진실된 이야기 1, Ver. 1-4 (True stories 1, Ver. 1-4) (2013-2014)
19	유니버셜 콜라보레이터, 서울 (Universal collaborators, Seoul) (2014)
20	꽃가라 로맨스 (Floral patterned roman) (2014)
21	미스리와 김여사 (Miss Lee and Mrs. Kim) (2017)
22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2019)
23	입술 위의 깃털 (Feathers on lips) (2020)
24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
25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
26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te) (2022)
28	살핌 운동 (Caring exercise) (2023)
31	<b>아카이브</b>
45	아카이브를 위한 항해지도
59	솔로,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130	프로젝트 매뉴얼
141	비평문
143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젠더적 공간과 그 경계
146	무장소의 장소성, 조영주의 설치 작업
150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_차별적 성별화된 사회
154	경계에서의 예술작업 (비)무장화, (비)물질화: 조영주 작품 속 여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158	치유의 안무: 아줌마 댄스 비디오 시리즈
164	삶에서 일어나는 반복적 기적
170	신체가 맞이하는 국면들. 조영주의 매개적 퍼포먼스
175	세계 내 몸에서 몸들의 세계로
181	마주 본 몸: 협업과 조영주 퍼포먼스의 신체성
187	분열된 욕망. 조영주 작가의 풀 타임-더블 (Full time-double)
201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208	세 개의 숨 (Three breaths)에 대한 노트
210	정원사의 눈을 피해 솟아오르는 연대를 위한 경합과 교섭의 기예
213	인터뷰: 작가와의 대화
201	작가 약력
208	필자 소개
210	크레디트
213	<b>부록</b>
	세 개의 숨 악보

목차	59	이미지 아카이브
작가 소개		<b>비평문</b>
작가 연보	고동연 130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젠더적 공간과 그 경계
<b>작품해제</b>	김남시 141	무장소의 장소성. 조영주의 설치 작업
글로벌 에일리언 (Global Alien) 프로젝트 (2006-2015)	유화정 143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_차별적 성별화된 사회 경계에서의 예술작업
원 나이트 워드 썸원스 티셔츠	클라우디아 마토스 146	(비)무장화, (비)물질화: 조영주 작품 속 여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원 나이트 워드 썸원스 티셔츠	홍조린 150	치유의 안무: 아줌마 댄스 비디오 시리즈
진실된 이야기 2 (True stories 2) (2012)	이선영 154	삶에서 일어나는 반복적 기적
진실된 이야기 1, Ver. 1-4 (True stories 1, Ver. 1-4) (2013-2014)	김남시 158	신체가 맞이하는 국면들. 조영주의 매개적 퍼포먼스
유니버셜 콜라보레이터, 서울 (Universal collaborators, Seoul) (2014)	라시내 164	세계 내 몸에서 몸들의 세계로
꽃가라 로맨스 (Floral patterned romance) (2014)	이민주 170	마주 본 몸: 협업과 조영주 퍼포먼스의 신체성
미스리와 김여사 (Miss Lee and Mrs. Kim) (2017)	아디나 메이 175	분열된 욕망. 조영주 작가의 풀 타임-더블 (Full time-double),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세 개의 숨 (Three breaths)에 대한 노트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2019)	권태현 178	정원사의 눈을 피해 솟아오르는 연대를 위한 경합과 교섭의 기예
입술 위의 깃털 (Feathers on lips) (2020)	남용 181	인터뷰: 작가와의 대화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	이문정 187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		작가 약력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te) (2022)		필자 소개
살핌 운동 (Caring exercise) (2023)		크레디트
<b>아카이브</b>		<b>부록</b>
아카이브를 위한 항해지도		세 개의 숨 악보
솔로,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매뉴얼		
비평문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젠더적 공간과 그 경계		
무장소의 장소성, 조영주의 설치 작업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_차별적 성별화된 사회		
경계에서의 예술작업 (비)무장화, (비)물질화: 조영주 작품 속 여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치유의 안무: 아줌마 댄스 비디오 시리즈		
삶에서 일어나는 반복적 기적		
신체가 맞이하는 국면들. 조영주의 매개적 퍼포먼스		
세계 내 몸에서 몸들의 세계로		
마주 본 몸: 협업과 조영주 퍼포먼스의 신체성		
분열된 욕망. 조영주 작가의 풀 타임-더블 (Full time-double)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세 개의 숨 (Three breaths)에 대한 노트		
정원사의 눈을 피해 솟아오르는 연대를 위한 경합과 교섭의 기예		
인터뷰: 작가와의 대화		
작가 약력		
필자 소개		
크레디트		
<b>부록</b>		
세 개의 숨 악보		

조영주 (1978-, 서울 생)는 성균관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서양화 전공으로 졸업했고, 프랑스에서는 파리-세르지 국립 고등 미술학교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Arts de Paris-Cergy)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수여받은 후 독일의 베를린에서 예술가로 수년 간 활동했다. 2012년에 귀국해 국내 활동을 시작했고 현재는 서울을 기반으로 해외의 프로젝트에도 다수 참여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베를린 골드러쉬 여성예술가프로젝트, 사회과학 모임 등 민간 단체 활동과 예술 활동을 하였다. 국내에서는 경기창작센터, 부산의 홍티아트센터, 대전테미창작센터, 인천아트플랫폼, 금천예술공장,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등 다양한 레지던시에서 입주작가로 활동했다. 2023년 영국의 텔피나 재단 레지던시에서 3개월간 입주하여 유럽 예술

3 작가 소개  
7 작가 연보

14 작품매체  
글로벌 에이리언 (Global Alien)  
프로젝트 (2006-2015)  
원 나이트 워드 필월스 (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 (2006-2007)  
진실된 이야기 2 (True stories 2) (2012)  
진실된 이야기 1, Ver. 1-4 (True stories 1, Ver. 1-4) (2013-2014)  
유니버설 콜라보레이터, 서울 (Universal collaborators, Seoul) (2014)  
꽃가래 로맨스 (Floral patterned roman) (2014)  
미스리와 김여사 (Miss Lee and Mrs. Kim) (2017)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2019)  
입술 위의 것들 (Feathers on lips) (2020)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te) (2022)  
살림 운동 (Caring exercise) (2023)

28 아카이브  
아카이브를 위한 항해지도  
31 솔로,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45 프로젝트 매뉴얼  
59 이미지 아카이브

130 비평문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젠더적 공간과 그 경계  
141 무장소의 장소성, 조영주의 설치 작업  
143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 차별적 성별화된 사회  
146 경계에서의 예술작업 (비)무장화, (비)물질화: 조영주 작품 속 여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150 치유의 안무: 아줌마 댄스 비디오 시리즈  
154 삶에서 일어나는 반복적 기억  
158 신체가 맞이하는 국면들, 조영주의 매개적 퍼포먼스  
164 세계 내 몸에서 온 세계로  
170 아주 본 몸: 협업과 조영주 퍼포먼스의 신체성  
175 분열된 욕망, 조영주 작가의 풀 타임-더블 (Full time-double),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세 개의 숨 (Three breaths)에 대한 노트  
178 정원사의 눈을 피해 솟아오르는  
181 연대를 위한 경합과 교섭의 기예  
187 인터뷰: 작가와의 대화

201 작가 약력  
208 필자 소개  
210 크레디트

부록  
213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약보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서울문화재단, 프랑스문화원 예술프로젝트 지원금, 성평등 기금 등 지원금 수혜 이력을 비롯하여 2020년 제20회 송은미술대상을 수상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신여성 도착하다 (2017), 다다익선: 즐거운 협업 (2022), 경기도미술관의 미술관의 입구: 생태통로 (2022), 부산시립미술관의 나는 미술관에 ○○하러 간다 (2022) 등 주요 미술관의 기획전에 참여하였으며, 2024년 송은에서 개인전 카텐짜가 열린다. 조영주의 작업은 솔로,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으로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설치, 사진, 비디오, 퍼포먼스, 무용 등 여러 영역에 걸쳐 다양한 매체의 형식을 실험하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오랜 기간 ‘여성 신체 이미지/여성의 삶’을 주제로 여성의 신체성과 그에 결부되는 다양한 정치성을 다뤘다. 조영주의 작업에는

가정 내에서의 ‘접촉’을 중심으로 한 신체적 경험, 그리고 나아가 여러 문화권에서 금기시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2020년부터는 여성을 둘러싼 논의를 넘어 ‘돌봄’을 주제로 사회적 약자 문제, 한국 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미묘한 불합리함을 함께 아우르는 작업을 하고 있다.

3	작가 소개
7	작가 연보
14	작품해제 글로벌 에일리언 (Global Alien)
15	프로젝트 (2006-2015) 원 나이트 워드 퀘런스 티셔츠 언 마이 베드 (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 (2006-2007)
16	진실된 이야기 2 (True stories 2) (2012)
17	진실된 이야기 1_Ver. 1-4 (True stories 1, Ver. 1-4) (2013-2014)
18	유니버설 콜라보레이티브, 서울 (Universal collaborators, Seoul) (2014)
19	꽃가마 로맨스 (Floral patterned roman) (2014)
20	미스리와 김여사 (Miss Lee and Mrs. Kim) (2017)
21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2019)
22	입술 위의 깃털 (Feathers on lips) (2020)
23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
24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
25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te) (2022)
26	살림 운동 (Caring exercise) (2023)
28	아카이브 아카이브를 위한 항해지도
31	솔르,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45	프로젝트 매뉴얼
59	이미지 아카이브
130	비평문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젠더적 공간과 그 경계
141	무장소의 장소성, 조영주의 설치 작업
143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_차별적 성별화된 사회
146	경계에서의 예술작업: (비)무장화, (비)물질화: 조영주 작품 속 여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150	치유의 안무: 아줌마 댄스 비디오 시리즈
154	살에서 일어나는 반복적 기억
158	신체가 맞이하는 국면들: 조영주의 매개적 퍼포먼스
164	세계 내 몸에서 온 세계로
170	마주 본 몸: 협업과 조영주 퍼포먼스의 신체성
175	분열된 욕망: 조영주 작가의 풀 타임-더블 (Full time-double)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178	세 개의 숨 (Three breaths)에 대한 노트 정원사의 눈을 피해 솟아오르는
181	연대를 위한 경험과 교섭의 기예
187	인터뷰: 작가와의 대화
201	작가 약력
208	필자 소개
210	크레딧
213	부록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약보

작가 연보

1978 출생

1997 성균관대학교 미술교육과 학사 입학,  
성균 극회(극예술연구회)에서 활동

2001 성균관대학교 미술교육과 학사 졸업

2003-2005 프랑스 파리 8대학 조형예술학과 석사과정  
수학

2005 프랑스 파리-세르지 국립고등미술학교  
DNAP 졸업

2007 프랑스 파리-세르지 국립고등미술학교  
DNSEP 졸업

2008-2012 독일 베를린에서 5년간 활동

2006-2015 서울과 베를린에서 유럽-아시안 예술가로  
구성된 글로벌 에일리언 (Global Alien) 활동  
및 전시

2012 귀국

2013 압구정동의 대안공간 코너아트스페이스에서  
귀국 후 첫 개인전 가볍게 우울한 에피소드를  
선보임

2014 부산의 홍티아트센터를 시작으로

3	작가 소개
7	작가 연보
14	작품해제 글로벌 에일리언 (Global Alien) 프로젝트 (2006-2015)
15	원 나이트 위드 필립스 티셔츠 언 마이 베드 (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 (2006-2007)
16	진실된 이야기 2 (True stories 2) (2012)
17	진실된 이야기 1, Ver. 1-4 (True stories 1, Ver. 1-4) (2013-2014)
18	유니버설 콜라보레이션, 서울 (Universal collaborators, Seoul) (2014)
19	꽃가라 로맨스 (Floral patterned roman (2014)
20	미스리와 김여사 (Miss Lee and Mrs. Kim) (2017)
21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2019)
22	입술 위의 것들 (Feathers on lips) (2020)
23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
24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
25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te) (2022)
26	살림 운동 (Caring exercise) (2023)
28	아카이브 아카이브를 위한 항해지도
31	솔르,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45	프로젝트 매뉴얼
59	이미지 아카이브
130	비평문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젠더적 공간과 그 경계
141	무장소의 장소성, 조영주의 설치 작업
143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 차별적 성별화된 사회
146	경계에서의 예술작업 (비)무장화, (비)물질화: 조영주 작품 속 여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150	치유의 안무: 아줌마 댄스 비디오 시리즈
154	살에서 일어나는 반복적 기억
158	신체가 맞이하는 국면들, 조영주의 매개적 퍼포먼스
164	세계 내 몸에서 온 세계로
170	마주 본 몸: 협업과 조영주 퍼포먼스의 신체성
175	분열된 욕망, 조영주 작가의 풀 타임-더블 (Full time-double),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세 개의 숨 (Three breaths)에 대한 노트
178	정원사의 눈을 피해 솟아오르는
181	연대를 위한 경함과 교섭의 기애
187	인터뷰: 작가와의 대화
201	작가 약력
208	필자 소개
210	크레디트
213	부록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약보

2015

2016

2016

2014-2018

2017

2018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2015),  
인천아트플랫폼 (2017), 금천예술공장 (2020),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2021) 등 국내  
주요 레지던시에서 입주작가로 활동

서울시립미술관의 예술가의 런치박스,  
아트선재센터의 리얼 디엠지 프로젝트 등  
지역과 공동체를 위한 작업에 주로 참여함

아르코미술관 홈리스의 도시에 참여  
출산

레지던시 입주 시기에 지역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중년여성 시리즈를  
제작. 꽃가라 로맨스를 비롯하여 약 5개의  
지역에서 100여 명의 중년여성과 협업. 영상과  
공동체 예술 작업을 하는 예술가로 알려짐

토탈미술관 비디오 포트레이트 (Video  
Portrait)에 참여하고 인천아트플랫폼에서  
미스리와 김여사 프로젝트를 발표함. 연계  
출판물인 『춤추는 여인들』을 출간

국립현대미술관 신여성 도착하다,

청주시립미술관 부드러운 권력, 프랑스 니스의 오브니: 오브젝티브 비디오 니스 (OVNI: Objectif Video Nice)에 참여

2019 플레이스막에서의 개인전 젤리비 부인의 돈보기를 계기로 육아, 출산, 돌봄 등 작가의 사적인 영역에서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확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업이 선회함

2020 제 20회 송은미술대상 대상 수상

2021 공간 TYPE에서 진행한 전시 하나의 당김, 네 개의 눈에서 영상과 현장 퍼포먼스를 병행. 이후 영상으로서 퍼포먼스와 현장 퍼포먼스의 형식적 차이를 두고 작업 진행.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입주보고전 움직임이지 않고 여행하기, 경남도립미술관 돌봄사회 등에 참여

2022 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 (Unfold X)를 기점으로 예술과 기술의 융합적 형식에도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원생중계의 방식을 차용하여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3 작가 소개  
7 작가 연보

14 작품해제  
글로벌 에이리언 (Global Alien)  
프로젝트 (2006-2015)  
원 나이트 위드 켈원스 (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 (2006-2007)  
진실된 이야기 2 (True stories 2) (2012)  
진실된 이야기 1, Ver. 1-4 (True stories 1, Ver. 1-4) (2013-2014)  
유니버설 콜라보레이터, 서울 (Universal collaborators, Seoul) (2014)  
꽃가루 로맨스 (Floral patterned roman) (2014)  
미스리와 김여사 (Miss Lee and Mrs. Kim) (2017)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2019)  
입술 위의 것들 (Feathers on lips) (2020)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te) (2022)  
살림 운동 (Caring exercise) (2023)

28 아카이브  
아카이브를 위한 항해지도  
31 솔르,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45 프로젝트 매뉴얼  
59 이미지 아카이브

130 비평문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젠더적 공간과 그 경계  
141 무장소의 장소성, 조영주의 설치 작업  
143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 차별적 성별화된 사회  
146 경계에서의 예술작업 (비)무장화, (비)물질화: 조영주 작품 속 여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150 치유의 안무: 아줌마 댄스 비디오 시리즈  
154 살에서 일어나는 반복적 기억  
158 신체가 맞이하는 국면들, 조영주의 매개적 퍼포먼스  
164 세계 내 몸에서 온 세계로  
170 아주 본 몸: 협업과 조영주 퍼포먼스의 신체성  
175 분열된 욕망, 조영주 작가의 풀 타임-더블 (Full time-double),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세 개의 숨 (Three breaths)에 대한 노트  
178 정원사의 눈을 피해 솟아오르는  
181 연대를 위한 경합과 교섭의 기예  
187 인터뷰: 작가와의 대화

201 작가 약력  
208 필자 소개  
210 크레디트

213 부록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약보

reunite) 시리즈를 제작함

2019-2022년의 작업과 비평문을 정리한 『비명꾼』을 출간함

경기도 미술관의 미술관의 입구: 생태통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다다익선: 즐거운 협연에 참여

2023 영국의 델피나 레지던시에 입주하면서 영국의 큐레이터, 비평가, 프로젝트 관계자 등과 관계를 맺으며 유럽으로의 글로벌한 성장의 계기를 마련

2024 송은에서 개인전 카덴짜 개최

3	작가 소개
7	작가 연보
14	<b>작품해제</b> 글로벌 에일리언 (Global Alien) 프로젝트 (2006-2015) 원 나이트 위드 뽀원스 티셔츠 언 마이 베드 (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 (2006-2007) 진실된 이야기 2 (True stories 2) (2012) 진실된 이야기 1_Ver. 1-4 (True stories 1, Ver. 1-4) (2013-2014) 유니버설 콜라보레이터, 서울 (Universal collaborators, Seoul) (2014) 꽃가다 로맨스 (Floral patterned roman (2014) 미스리와 김여사 (Miss Lee and Mrs. Kim) (2017)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2019) 입술 위의 깃털 (Feathers on lips) (2020)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te) (2022) 살릴 운동 (Caring exercise) (202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b>아카이브</b> 아카이브를 위한 항해지도 솔르,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매뉴얼 이미지 아카이브
31	
45	
59	
130	<b>비평문</b>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젠더적 공간과 그 경계 무장소의 장소성, 조영주의 설치 작업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_차별적 성별화된 사회 경계에서의 예술작업 (비)무장화, (비)물질화: 조영주 작품 속 여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치유의 안무: 아줌마 댄스 비디오 시리즈 살에서 일어나는 반복적 기억 신체가 맞이하는 국면들, 조영주의 매개적 퍼포먼스 세계 내 몸에서 온 세계로 마주 본 몸: 협업과 조영주 퍼포먼스의 신체성 분열된 욕망, 조영주 작가의 풀 타임-더블 (Full time-double)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세 개의 숨 (Three breaths)에 대한 노트 정원사의 눈을 피해 솟아오르는 연대를 위한 경합과 교섭의 기예 인터뷰: 작가와의 대화
141	
143	
146	
150	
154	
158	
164	
170	
175	
178	
181	
187	
201	작가 약력
208	필자 소개
210	크레디트
213	<b>부록</b>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약보

작품 해제

1 글로벌 에일리언 (Global Alien) 프로젝트 (2006-2015)

조영주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아시아와 유럽 출신의 예술가로 구성된 글로벌 에일리언 콜렉티브의 멤버, 그리고 리더로서 활동을 이어오면서 다수의 예술가와 협업했다. 글로벌 에일리언은 베를린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국적의 작가들과의 콜렉티브 체계였으며, 그들의 프로젝트는 세계화, 권력관계, 문화적 정체성을 주제로 했다.

글로벌 에일리언은 전시와 토크, 스크리닝, 출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예술 활동했다. 이들은 사회적 현실을 드러내면서 관객이 연극, 퍼포먼스, 게임 등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을 연구했다. 각 예술가들의 목표는 지역적 조건과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유동적인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작가는 2012년 귀국 후 2015년까지 한국에서도 글로벌 에일리언 활동을 겸했다.

글로벌 에일리언 활동은 여러 국적의 유목적 예술가들로 이루어진 만큼 지역의 성격, 종교적 장소, 낯선 언어, 언어의 권력 등이 고르게 나타나는 작업이 주를 이루었다. 구체적으로 작업에 불법 체류자들이 머무는 야외 컨테이너, 해외 운송 박스 등의 소재가 등장하기도 했다. 예술가들은 새로운 나라를 방문할 때 마주한 낯선 체계에 관한 관심으로 상이한 문화권 내에서 발생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탐구했다.



3 작가 소개  
7 작가 연보

14 작품해제  
글로벌 에일리언 (Global Alien) 프로젝트 (2006-2015)  
15 원 나이트 위드 썸원스 티셔츠 인 마이 베드 (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 (2006-2007)  
16 진실된 이야기 2 (True stories 2) (2012)  
17 진실된 이야기 1, Ver. 1-4 (True stories 1, Ver. 1-4) (2013-2014)  
18 유니버설 콜라보레이션, 서울 (Universal collaborators, Seoul) (2014)  
19 플라가드 로맨스 (Floral patterned roman) (2014)  
20 미스리와 김여사 (Miss Lee and Mrs. Kim) (2017)  
21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2019)  
22 입술 위의 것들 (Feathers on lips) (2020)  
23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  
24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  
25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te) (2022)  
26 살릴 운동 (Caring exercise) (2023)

28 아카이브  
아카이브를 위한 항해지도  
31 솔르,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45 프로젝트 매뉴얼  
59 이미지 아카이브

130 비평문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젠더적 공간과 그 경계  
141 무장소의 장소성, 조영주의 설치 작업  
143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 차별적 성별화된 사회 경계에서의 예술작업 (비)무장화, (비)물질화: 조영주 작품 속 여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150 치유의 안무: 아줌마 델스 비디오 시리즈  
154 삶에서 일어나는 반복적 기억  
158 신체가 맞이하는 국면들, 조영주의 매개적 퍼포먼스  
164 세계 내 몸에서 온 세계로  
170 아주 본 몸: 협업과 조영주 퍼포먼스의 신체성  
175 분열된 욕망, 조영주 작가의 풀 타임-더블 (Full time-double),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세 개의 숨 (Three breaths)에 대한 노트  
178 정현사의 눈을 피해 솟아오르는  
181 연대를 위한 경합과 교섭의 기예  
187 인터뷰: 작가와의 대화

201 작가 약력  
208 필자 소개  
210 크레디트

부록  
213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약보

2 원 나이트 위드 썸원스 티셔츠 인 마이 베드 (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 (2006-2007)

조영주는 유럽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카페, 길거리, 파티 등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들에게 입고 있던 티셔츠를 하루 간 빌리는 티셔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원 나이트 위드 썸원스 티셔츠 인 마이 베드는 그 옷을 입고 하룻밤 잔 후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찍은 기록사진이다. 티셔츠들은 세탁 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작품은 흔히 서양 사회에서 아시아 여성들에 대한 선입견을 품고 있는 지점을 드러내기 위해, 작가가 우연히 만나게 되는 불특정한 남성들을 상대로 참여적 퍼포먼스를 벌인 것이다. 티셔츠를 얻어 내는 과정에서 말을 건네고, 연락처를 얻어 내어 다시 재회를 유도하는 모든 과정이 프로젝트에 의해 의도되었다. 작가는 이 작품을 비롯하여 몇몇 작업에서 자신의 신분을 인종적인 스테레오 타입에 의해서 연기하거나 관객, 참여자의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들을 설계하여 사회적 편견을 드러내는 경향을 보였다.

전시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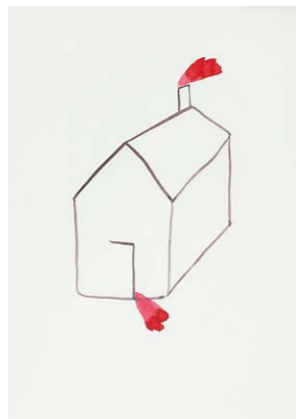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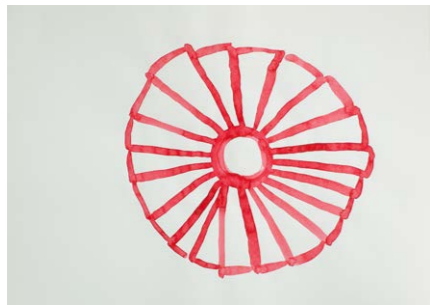
- 2021 창동레지던시 배너 프로젝트,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서울
- 2013 항구도시 교류전\_부산, 함부르크, 상해 교류전, 부산진역, 부산
- 2013 My public affairs, 스페이스 매스, 서울
- 2012 CYAYAF 2012 (Contemporary Art & Young Artists Festival), Kintex, 일산



진실된 이야기 2는 약 1년간, 작가가 우울증을 겪은 시기에 제작된 드로잉 연작이다. 하루하루의 일기 형식의 드로잉들은 빨간색 치마를 모티브로 삼는다. 작가가 겪은 당시의 트라우마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작업은 개인의 역사 속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다. 또한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옮겨가듯 현재의 시점에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지나간 일에 관한 기념비를 의미하기도 한다. 당시 작가의 심리 상담을 맡은 정신분석가의 텍스트와 병원일지 발췌문이 각 드로잉과 매치되어 카탈로그의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이후 빨간색 치마는 작가의 드로잉과 설치 작업에 모티브가 되어 종종 작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시이력

- 2015 아름다운 인연,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광주미디어아트레지던스 교류전,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 2014 공생공유, 홍티아트센터, 부산
- 2013 항구도시 교류전\_부산, 함부르크, 상해 교류전, 부산진역, 부산
- 2013 Good job Good place Good time, 오산시립미술관 문화공장오산, 오산
- 2013 가볍게 우울한 에피소드, 코너아트스페이스,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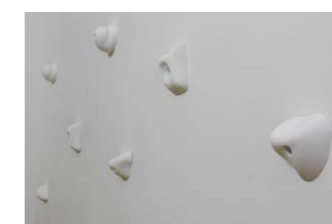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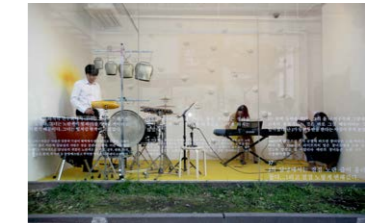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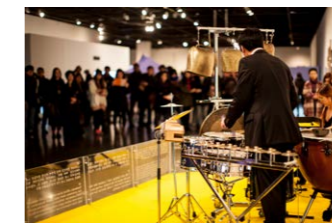
진실된 이야기 1은 2011-2012년 작가에게 일어난 개인적인 사건을 한국 사회의 부조리함에 대입시키고, 그것을 조형적으로 변환한 설치물에서 시작되었다. 작곡가, 무용수, 국악인 등 타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이 작업의 동기가 되었던 작가의 사적인 이야기들을 공유한다.

2012년 귀국 후 가졌던 첫 개인전 가볍게 우울한 에피소드 (코너아트스페이스, 2013)에서 작곡가와의 협업으로 진실된 이야기 1이 시작되었다. 작가가 겪었던 개인의 트라우마를 한국의 역사, 정치적 상처와 연관 짓는 부분이 드러나는 이 작업은 협업 예술가들로부터 만들어진 색, 텍스트, 오브제 등의 조형적인 요소와 퍼포먼스가 혼합된 형태로 보여진다.

진실된 이야기 1은 총 4가지 버전으로 나뉜다. Ver. 1이 작곡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피아노, 퍼커션으로 이루어진 음악 연주 퍼포먼스였다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Ver. 2로 무용가와의 협업을, 웨이즈오브썬에서 Ver. 3로 시조창 국악인과 협업을 진행했다.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시에서 이뤄진 Ver. 4는 작곡가, 국악인, 무용수 외 클래식 연주자들과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이 작업에서 작가는 개인의 트라우마가 협업자들과 공유되고, 작품으로 전환되면서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담았다.

전시이력

- 2014 광주비엔날레 20주년기념 특별프로젝트 달콤한 이슬: 1980 이후, 광주폴리, 광주
- 2013 가볍게 우울한 에피소드, 코너아트스페이스, 서울
- 2013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 보고展 라운드-업,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2013 My public affairs, 스페이스 매스, 서울
- 2013 가볍게 우울한 에피소드, 코너아트스페이스, 서울



3	작가 소개
7	작가 연보
14	작품해제
14	글로벌 에일리언 (Global Alien)
15	프로젝트 (2006-2015)
15	원 나이트 위드 쉘원스 (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 (2006-2007)
16	진실된 이야기 2 (True stories 2) (2012)
17	진실된 이야기 1, Ver. 1-4 (True stories 1, Ver. 1-4) (2013-2014)
18	윤니버설 (윤니버설 콜라보레이션, 서울 (Universal collaborators, Seoul) (2014)
19	꽃가래 로맨스 (Floral patterned roman) (2014)
20	미스리와 김여사 (Miss Lee and Mrs. Kim) (2017)
21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2019)
22	입술 위의 것들 (Feathers on lips) (2020)
23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
24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
25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te) (2022)
26	살필 운동 (Caring exercise) (2023)
28	아카이브
28	아카이브를 위한 항해지도
31	솔르,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45	프로젝트 매뉴얼
59	이미지 아카이브
130	비평문
130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젠더적 공간과 그 경계
141	무장소의 장소성, 조영주의 설치 작업
143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_차별적 성별화된 사회
146	경계에서의 예술작업 (비)무장화, (비)물질화: 조영주 작품 속 여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150	치유의 안무: 아줌마 델스 비디오 시리즈
154	살에서 일어나는 반복적 기억
158	신체가 맞이하는 국면들, 조영주의 매개적 퍼포먼스
164	세계 내 몸에서 온 세계로
170	마주 본 몸: 협업과 조영주 퍼포먼스의 신체성
175	분열된 욕망, 조영주 작가의 풀 타임-더블 (Full time-double),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세 개의 숨 (Three breaths)에 대한 노트
178	정원사의 눈을 피해 솟아오르는 연대를 위한 경합과 교섭의 기예
187	인터뷰: 작가와의 대화
201	작가 약력
208	필자 소개
210	크레디트
213	부록
213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악보

유니버설 콜라보레이터, 서울은 조영주가 귀국 후에 서울에 정착하면서 여전히 정체성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남아있음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당시의 한국 미술계가 글로벌 성장세에 주목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전반적인 한국 사회의 편견과 부조리함이 사라지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다.

이 작업에서 ‘유니버설’은 전세계적이며, 보편적인 미술계의 국제 교류를 지칭하며, ‘콜라보레이터’란 서로 도우며 함께 하는 자이자 현지에서 통역, 에스코트, 가벼운 연애를 나누는 등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 힘을 합하는 자를 뜻한다. 또한 ‘서울’은 세계적인 메트로폴리탄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제화’를 강요하지만, 세계 미술계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2014년 당시의 서울을 뜻한다.

작가는 이 작업을 통해서 미술계에서 전시 오프닝, 미팅 등에서 혼자일 때보다 유럽 또는 미국계, 백인 친구들과 함께 동행했을 때 받았던 환대의 경험을 드러낸다. 한국 미술계에서 ‘인터내셔널’ 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외국인 친구와 어울릴 때마다 우쭐해지는 경험을 고백하지만, 한편으로는 백인 남자와 한국 여자의 직업적인 관계가 쉽게 이성적인 관계로 오해를 받거나 가십의 대상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비판한다. 이러한 연유로 작가는 스스로 한국 미술계에서 ‘서양 남자와 어울리는 한국 여자’로 협업하는 역할을 맡는다. 영상 속에서 백인 남성은 혼혈 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조영주의 파트너 관계를 은유하며, 오프닝 퍼포먼스에서는 작가의 주관적 기준으로 선택된 한 ‘서양 남자’가 퍼포머로 역할 한다. 작가의 요구대로 옷차림을 준비하고, 행동 지침을 숙지한 후 오프닝 동안 ‘조영주’를 에스코트한다.

전시이력

- 2015 프리뷰전,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 2014 응답하라 작가들 (고동연 기획), 스페이스 오뉴월, 서울



꽃가라 로맨스는 조영주가 귀국 후 진행하였던 ‘중년 여성 댄스 필름’ 시리즈의 대표적인 작업으로 부산의 홍티아트센터 레지던시에 입주하였을 때 제작되었다. 작가는 커뮤니티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할 중년 여성을 섭외하였고, 특히 부산에서는 다대포 지역의 ‘무지개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이자 지역민들과 함께하였다. 이후 오산, 대전, 철원, 양평으로 확장되면서 100여 명의 지역민들을 만나게 되었다.

중년 여성 댄스 필름 시리즈에 참여하는 세대는 60대 전후가 많고, 작가의 어머니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주로 한국 전쟁 직후 태어나 젊은 시절 결혼해 남편과 아이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한편 생업에 종사하기도 한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불리는 것이 익숙한 이 여성들은 꽃가라 로맨스를 통하여 잠시나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작가와 참여자는 적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 동안 함께 작업하며 끝날 무렵에는 아쉬운 마음을 갖고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작가는 장기간의 중년 여성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국 여성으로서 살아온 이들을 기리고, 그 세대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전시이력

- 2023 비디오시티x서울 2023: 'Flower Power', 송은, 서울
- 2021 고암의 춤: 평화 공존 화합, 이응노의집, 홍성
- 2020 오계 (五季),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서울
- 2020 모카X부산X비엔날레, 부산현대미술관, 부산
- 2020 Safe House, Maryland Art Place, 볼티모어, 미국
- 2020 심안으로 보라,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 2019 Focus On X 비디오 페스티벌 오브니\_OVNI: Objectif Video  
Nice, 니스, 프랑스
- 2019 서울무용센터 웹진 춤인 댄스필름 상영회, 비디오스펙트럼,  
엘리펀트스페이스, 서울
- 2019 순순 만만, 기억의 집, 순천
- 2018 한 조각을 잃어버린 동그라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파주
- 2018 경기 아카이브\_ 지금, 경기상상캠퍼스, 경기
- 2018 부드러운 권력,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 2018 미디어 미디어,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서울
- 2016 워터리 마담 (Watery Madams), 주인도한국문화원, 인도
- 2015 프리뷰전,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 2014 지속가능한 도시-꽃 II, 에이픽 갤러리, 대전
- 2014 공생공유, 홍티아트센터, 부산/ 2014 홍티연회, 홍티아트센터, 부산



3 작가 소개  
7 작가 연보

14 작품해제  
글로벌 에일리언 (Global Alien)  
프로젝트 (2006-2015)  
원 나이트 위드 필름스 (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 (2006-2007)  
진실된 이야기 2 (True  
stories 2) (2012)  
진실된 이야기 1, Ver.  
1-4 (True stories 1,  
Ver. 1-4) (2013-2014)

18 유니버설  
콜라보레이터,  
서울 (Universal  
collaborators, Seoul)  
(2014)

19 꽃가라 로맨스 (Floral  
patterned roman  
(2014)

20 미스리와 김여사 (Miss  
Lee and Mrs. Kim)  
(2017)

21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2019)

22 입술 위의 것들  
(Feathers on lips)  
(2020)

23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

24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

25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te) (2022)

26 살릴 운동 (Caring  
exercise) (2023)

28 아카이브  
아카이브를 위한  
항해지도

31 솔로,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매뉴얼  
이미지 아카이브

130 비평문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젠더적  
공간과 그 경계

141 무장소의 장소성,  
조영주의 설치 작업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_차별적  
성별화된 사회  
경제에서의 예술작업  
(비)무장화, (비)물질화:  
조영주 작품 속 여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150 치유의 안무: 아줌마  
댄스 비디오 시리즈  
삶에서 일어나는

154 반복적 기억  
신체가 맞이하는  
국면들. 조영주의  
매개적 퍼포먼스  
세계 내 몸에서 온  
세계로

170 아주 본 몸: 협업과  
조영주 퍼포먼스의  
신체성

175 분열된 욕망. 조영주  
작가의 풀타임-더블  
(Full time-double)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세 개의 숨 (Three  
breaths)에 대한 노트  
정원사의 눈을 피해  
솟아오르는

181 연대를 위한 경합과  
교섭의 기예

187 인터뷰: 작가와의 대화

201 작가 약력  
208 필자 소개  
210 크레디트

부록  
213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약보

미스리와 김여사는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진행된 커뮤니티 아트 프로그램으로 장기간의 중년 여성 프로젝트의 마지막 시리즈라고도 할 수 있다. 조영주는 인천아트플랫폼의 작업실을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는 공간으로 꾸미고, 종종 방문했던 인근의 60대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는 퍼포먼스의 과정을 거친다. 또한 인근의 문화센터 방문을 하거나 직접 테라피, 요가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여러 여성을 인터뷰하였다.

작가는 문화센터에서 ‘자서전 쓰기’ 수업의 결과물을 수집하여, 수업에 참여한 ‘평범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보게 된다. 남자 형제의 학비를 벌기 위해 도시로 떠났던 어린 시절, 선을 보고 결혼하여 첫 아이를 출산했던 신혼, 남편의 외도와 도박으로 고통받았지만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지켜야 했던 시절 등 세 명의 여성이 쓴 자서전의 내용을 소재로 이야기와 음악, 영상으로 구성된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선보인다. 인천의 한 아마추어 합창단과 ‘솔리스트’라는 노래를 만들게 되면서 모든 단원이 각각 본인의 이름을 솔리스트 파트로 부를 수 있게 하였다. 전체 퍼포먼스의 피날레에서 단원의 이름이 솔로로 등장하면서, 수 년간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내로 살면서 온전히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 어려운 세대에게 또 다른 울림을 전달하였다.

전시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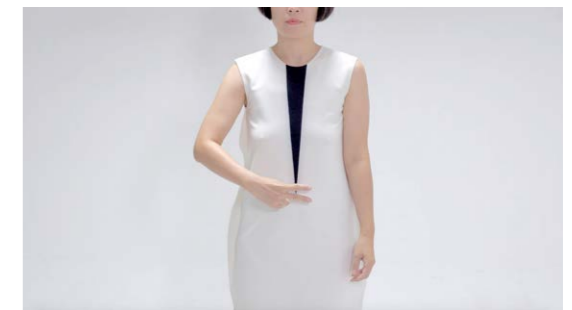
- 2018 미스리와 김여사, 아트스페이스노, 서울
- 2017 SeMA 예술가 길드 - 표본창고, 서울시립미술관 Sema 창고, 서울
- 2017 미스리와 김여사: 이영숙과 김숙자 이야기,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나의 몸을 쓰는 것은 조영주가 장기간의 중년 여성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자신의 이야기에 주목한 첫 작업이다. 이 작업에서는 반복되는 피아노 선율, 흰옷 위로 드러나는 살과 몸이 만들어내는 제스처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임무를 다해야만 하는 돌보는 사람의 운명을 연상케 한다. 작가는 출산 이후 약 30개월 동안 기록한 육아 일지를 기반으로 무보와 악보를 만들었고, 음악가와 함께 소나타 곡을 제작하였다. 또한 송주원 안무가와의 협업으로 작가 본인의 신체로 직접 퍼포밍하는 영상을 완성하였다. 작가는 자신의 몸을 돌아보면서 현재의 육체가 가지는 고유함과 기억에 대해 타자의 시선이 아닌, 본연 그대로의 것으로 드러내고자 시도한다.

전시이력

- 2021 하-하-하 하우스, 수원시립미술관 아트스페이스 광교, 수원
- 2020 행복이 나를 찾는다,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 2019 막간극, 인사미술공간, 서울
- 2019 젤리비 부인의 돌보기, 플레이스막 레이저, 서울



3	작가 소개
7	작가 연보
14	작품해제
15	글로벌 에일리언 (Global Alien) 프로젝트 (2006-2015)
16	원 나이트 위드 펄원스 티셔츠 언 마이 베드 (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 (2006-2007)
17	진실된 이야기 2 (True stories 2) (2012)
18	진실된 이야기 1, Ver. 1-4 (True stories 1, Ver. 1-4) (2013-2014)
19	유니버설 콜라보레이터, 서울 (Universal collaborators, Seoul) (2014)
20	꽃가래 로맨스 (Floral patterned roman) (2014)
21	미스리와 김여사 (Miss Lee and Mrs. Kim) (2017)
22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2019)
23	입술 위의 것들 (Feathers on lips) (2020)
24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
25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
26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te) (2022)
27	살림 운동 (Caring exercise) (2023)
28	아카이브
31	아카이브를 위한 향해지도
45	솔르,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59	프로젝트 매뉴얼 이미지 아카이브
130	비행문
141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젠더적 공간과 그 경계 무장소의 장소성, 조영주의 설치 작업
143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_차별적 성별화된 사회
146	경계에서의 예술작업 (비)무장화, (비)물질화: 조영주 작품 속 여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150	치유의 안무: 아줌마 댄스 비디오 시리즈
154	살에서 일어나는 반복적 기억
158	신체가 맞이하는 국면들, 조영주의 매개적 퍼포먼스
164	세계 내 몸에서 온 세계로
170	마주 본 몸: 협업과 조영주 퍼포먼스의 신체성
175	분열된 육방, 조영주 작가의 풀 타임-더블 (Full time-double)
178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세 개의 숨 (Three breaths)에 대한 노트
181	정원사의 눈을 피해 솟아오르는 연대를 위한 경합과 교섭의 기예
187	인터뷰: 작가와의 대화
201	작가 약력
208	필자 소개
210	크레디트
213	부록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악보

입술 위의 깃털은 ‘돌봄’을 주제로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미묘한 불합리함을 아우른다. 조영주가 한국 사회의 여성 문제에서 돌봄의 영역까지 작업 세계가 확장되기 시작할 무렵의 작업이다. 가정 내에서의 ‘접촉’을 중심으로 하는 신체적인 경험과 한국을 비롯한 여러 문화권에서 금기시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룬다. 이민경 안무가와 함께 연출한 이 작업에는 다양한 분위기의 여성 퍼포머 네 명이 영상에 등장한다. 영상은 다른 외적 요소를 제거한 채 신체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흰 배경에 보여진다. 레슬링, 주짓수 등 스포츠에서 등장하는 몸짓을 관찰하여 작업에 적용하여 다소 폭력적으로 여겨지는 장면들이 보이기도 한다. 작가는 표백된 배경에 놓인 다양한 신체의 운동을 통해 사회적 시선이나 사회가 터부시하고 간과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드러나도록 하였다.

전시이력

- 2021 하-하-하 하우스, 수원시립미술관 아트스페이스 광고, 수원
- 2021 하나의 당김, 네 개의 눈, 공간 Type, 서울
- 2020 제20회 송은미술대상전,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 2020 코튼 시대, 대안공간 루프,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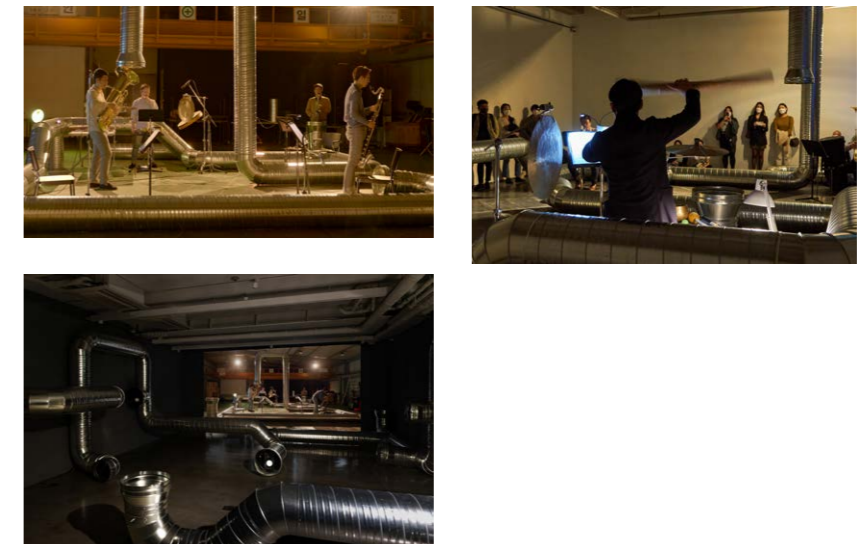


세 개의 숨은 육아일지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이은지 작곡가와 협업한 3악장의 곡을 기반으로 클라리넷, 알토 색소폰, 튜바와 퍼커션 4중주로 구성된 퍼포먼스와 영상이다. 세 개의 숨 영상 설치에는 거대한 덕트 배기관 구조물에 전시장을 감싸며, 연주 영상이 상영된다. 덕트 구조물은 탱줄을 모티브로 하였으며, 작품에서 나타나는 ‘숨’은 엄마의 육체에서 아이의 호흡이 분리되는 과정의 에어 사운드(1악장)과 아이의 성장에 따른 숨소리를 2-3악장으로 나누어 표현된다. 또한 연주영상에는 남성 연주자 4인이 등장하는데, 클래식 전문 연주자 4명은 파스텔톤과 베이색의 의상을 입고 악기와 하나가 된 듯한 연주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사운드는 4채널, 8채널 등 전시장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으며, 덕트의 설치는 영상에 나오는 형태를 기반으로 한다.

세 개의 숨은 입술 위의 깃털 (Feathers on lips) (2020)과 함께 대안공간루프에서 발표된 작업으로 조영주 작가의 출산 후 예술가로서의 불안감과 절박함을 퍼포먼스와 영상으로 펼쳐낸 대표적인 작품이다. 불협화음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숨소리는 아이와 엄마의 다양한 접촉의 양상을 은유하며, 몸으로 부대끼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슬픔과 분노, 기쁨이 공존한다는 것을 뜻한다.

전시이력

- 2023 하얀 벽의 고백, 아트 스페이스 호화, 서울
- 2020 제20회 송은미술대상전,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 2020 16개의 기둥-지붕 없는 갤러리, PS333, 금천예술공장, 서울
- 2020 코튼 시대, 대안공간 루프, 서울



3	작가 소개
7	작가 연보
14	작품해제
15	글로벌 에일리언 (Global Alien) 프로젝트 (2006-2015)
16	원 나이트 위드 펄런스 (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 (2006-2007)
17	진실된 이야기 2 (True stories 2) (2012)
18	진실된 이야기 1, Ver. 1-4 (True stories 1, Ver. 1-4) (2013-2014)
19	꽃가래 로맨스 (Floral patterned roman) (2014)
20	미스리와 김여사 (Miss Lee and Mrs. Kim) (2017)
21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2019)
22	<u>입술 위의 깃털 (Feathers on lips) (2020)</u>
23	<u>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u>
24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
25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te) (2022)
26	살필 운동 (Caring exercise) (2023)
28	아카이브
31	아카이브를 위한 항해지도
45	솔르, 콜렉티브, 클라보레이션 프로젝트 메뉴얼
59	이미지 아카이브
130	비평문
141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젠더적 공간과 그 경계
143	무장소의 장소성, 조영주의 설치 작업
146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_차별적 성별화된 사회
150	경계에서의 예술작업 (비)무장화, (비)물질화: 조영주 작품 속 여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154	치유의 안무: 아줌마 델스 비디오 시리즈
158	살에서 일어나는 반복적 기억
164	신체가 맞이하는 국면들: 조영주의 매개적 퍼포먼스
170	세계 내 몸에서 온 세계로
175	마주 본 몸: 협업과 조영주 퍼포먼스의 신체성
178	분열된 욕망: 조영주 작가의 풀 타임-더블 (Full time-double)
181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187	<u>세 개의 숨 (Three breaths)</u> 에 대한 노트
201	정원사의 눈을 피해 솟아오르는 연대를 위한 경험과 교섭의 기예
208	인터뷰: 작가와의 대화
210	작가 약력
213	필자 소개
	크레디트
	부록
	<u>세 개의 숨 (Three breaths)</u> 악보

11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는 돌봄 과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자 (caregiver)와 받는 자 (care-receiver)의 관계성을 탐구하는 작업으로 설치 작업인 휴먼가르텐 (Humangarten)를 무대 삼은 퍼포먼스이다. 이 작업의 기반이 된 휴먼가르텐은 퍼포먼스의 무대이자 독립적인 조형물로 기능하며, 병원, 어린이집 혹은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펀지 재질의 매트와 재활 치료 목적으로 한 적외선 조명을 조합한 작업이다. 작가는 성별과 나이가 다른 네 명의 퍼포머에게 하나씩 신체적인 제약을 설정한 후, 이 설치물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도착지까지 가야 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네 명의 퍼포머는 임무를 위해 협력하는 와중에 때로는 경쟁의 구도에 놓이기도 한다. 상생과 경쟁의 여정은 관객의 시선을 동반한다.

퍼포먼스를 기록한 영상을 새롭게 편집 및 구성한 꿈 빠니 (Com pani) (2021)는 행위하는 자로서 퍼포머, 행위를 바라보는 자로서 출현하는 관객, 그리고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해 퍼포머와 관객의 거리를 포착하는 관람자를 포괄한다.

전시이력

2021 움직이지 않고 여행하기,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2021 돌봄사회,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12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te) (2022)

이산 신체 재회는 조영주가 한국근현대사에서 경험했던 사회적 재난들을 종합하여 이산가족상봉, 삼풍백화점 붕괴, 입양아 가족찾기 등에서 보아왔던 매체의 시선을 작업의 레이어로 설정한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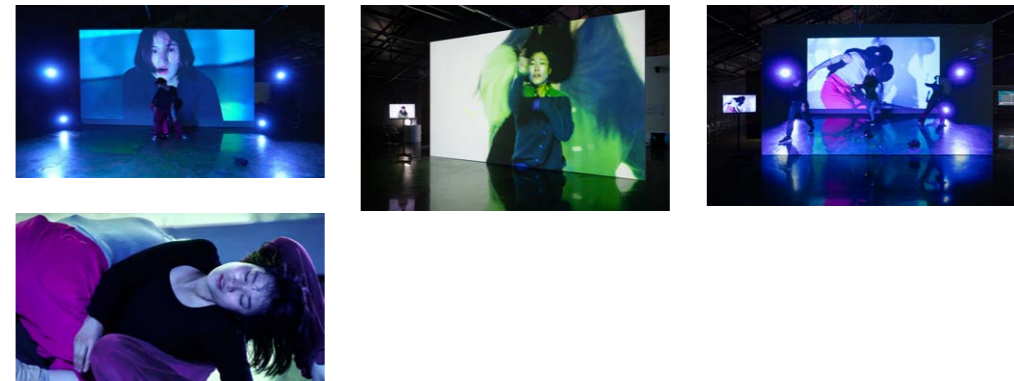
라이브 퍼포먼스는 이원생중계의 형식을 차용하고 있는데, 과거 1980년대 초 방송에서 이산가족상봉을 생중계하였던 방식에서 영향을 받았다. 퍼포먼스가 고조되면서 일종의 트랜스(trance) 상태로 신체가 전이될 수 있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여성의 신체 이미지가 갖는 의미를 상상하게 한다.

초점이 없이 멍한 시선과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는 모습이나 앞에 있는 상대를 끌어 안고 오열하는 모습, 가슴을 쥐어뜯으며 얼굴을 파묻는 모습들을 우리는 뉴스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 영상 속에서 자주 목격했다. 조영주는 심리학에서 신체의 트랜스 상황을 이끌어내는 방법 중 오감을 통해 자극을 지속적으로 주는 방법을 참고하였으며, 비자발적이고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트랜스에 이를 수 있는 방법들을 안무에 적용시켰다. 작가는 뉴스에서 보이는 여성 신체들의 특징이 특정한 물리적 자극만으로 퍼포머에게서 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작가는 실제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퍼포머의 개인적인 감정의 상태가 신체의 상태가 되는 경험을 기대했으며, 그것을 카메라가 다시 매개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여러 감정을 소환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산 신체 재회는 두 개의 다른 공간에서 두 개의 라이브 퍼포먼스가 진행되며, 두 장소는 중계 영상을 통해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퍼포먼스와 관객의 반응을 영상 이미지로 공유한다. 일부 퍼포머는 퍼포밍 도중에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도 한다. 중계 영상 시스템과 크로마키, 모션 캡처 기술을 활용하여, 각 장소에서 보이는 영상에서는 다른 장소의 퍼포머 신체 이미지가 현장의 퍼포머 이미지와 중첩되었다가 분리되기도 한다.

전시이력

2022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 (Unfold X) 'Shaping the future', 에스팩토리, 서울



3 작가 소개  
7 작가 연보

14 작품해제  
글로벌 에일리언 (Global Alien)  
프로젝트 (2006-2015)  
원 나이트 위드 필립스 (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 (2006-2007)  
진실된 이야기 2 (True stories 2) (2012)  
진실된 이야기 1, Ver. 1-4 (True stories 1, Ver. 1-4) (2013-2014)  
유니버설 콜라보레이티브, 서울 (Universal collaborators, Seoul) (2014)  
꽃가다 로맨스 (Floral patterned roman) (2014)  
미스리와 김여사 (Miss Lee and Mrs. Kim) (2017)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2019)  
입술 위의 것들 (Feathers on lips) (2020)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te) (2022)  
살필 운동 (Caring exercise) (2023)

28 아카이브  
아카이브를 위한 항해지도  
솔르,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매뉴얼 이미지 아카이브

130 비평문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젠더적 공간과 그 경계  
무장소의 장소성, 조영주의 설치 작업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_차별적 성별화된 사회 경계에서의 예술작업 (비)무장화, (비)물질화: 조영주 작품 속 여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치유의 안무: 아줌마 델스 비디오 시리즈 살에서 일어나는 반복적 기억 신체가 맞이하는 국면들, 조영주의 매개적 퍼포먼스 세계 내 몸에서 온 세계로  
마주 본 몸: 협업과 조영주 퍼포먼스의 신체성  
분열된 욕망, 조영주 작가의 풀 타임-더블 (Full time-double)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세 개의 숨 (Three breaths)에 대한 노트  
정원사의 눈을 피해 솟아오르는 연대를 위한 경합과 교섭의 기예  
인터뷰: 작가와의 대화

201 작가 약력  
208 필자 소개  
210 크레디트

부록  
213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악보

살핌 운동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상호작용예술 연구개발의 일환으로 진행된 참여형 퍼포먼스로 2021-2023년 동안 조영주가 제시한 돌봄 노동에 대한 문제제기의 연장선상에서 제작되었다. 휴먼가르텐 (Humangarten)에서부터 보여온 하얀 색의 스포지는 살핌 운동에서는 퍼포머가 마주하는 곳곳에 자리하는 운동도구가 된다. 육아, 가사, 수발 등의 다양한 돌봄을 ‘마사지’로 은유했던 노란 벤자민의 동거 (Cohabiting with yellow benjamin)에서처럼 살핌 운동은 결국 “모두가 돌보는 자이자 보살핌을 받는 자”라는 유대 관계에서 출발한다. 살핌 운동은 미술작가, 심리치료사, 운동가, 무용가로 구성된 연구팀이 재활치료 운동을 기반으로 개발한 듀오 운동이며, 아이, 중년 남성, 노년 남성, 젊은 여성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각자의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서로의 신체적 취약함을 보완하며 상호적으로 돕고 지지하는 신체적인 경험을 녹여낸다. 영상제작에 앞서 살핌 운동 워크숍에서 광주 시민 참여자 50인과 함께 ‘돌봄, 소통과 관계맺기’를 주제로 서로를 살피는 동작 연구가 이루어졌다. 살핌 운동에서 다루어지는 조영주의 ‘돌봄’에 대한 관점은 향후 신작에서 지속적으로 실험될 예정이다.

전시이력

2023 ACC 상호작용예술 연구개발 쇼케이스, 기억하기 / 감각하기 - 경험의 공동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	작가 소개
7	작가 연보
14	<b>작품해제</b> 글로벌 에일리언 (Global Alien)
15	프로젝트 (2006-2015) 원 나이트 위드 켈원스 티셔츠 언 마이 베드 (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 (2006-2007)
16	진실된 이야기 2 (True stories 2) (2012)
17	진실된 이야기 1, Ver. 1-4 (True stories 1, Ver. 1-4) (2013-2014)
18	유니버설 콜라보레이터, 서울 (Universal collaborators, Seoul) (2014)
19	꽃가다 로맨스 (Floral patterned roman) (2014)
20	미스리와 김여사 (Miss Lee and Mrs. Kim) (2017)
21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2019)
22	입술 위의 깃털 (Feathers on lips) (2020)
23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
24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
25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te) (2022)
26	<b>살핌 운동 (Caring exercise) (2023)</b>
28	<b>아카이브</b> 아카이브를 위한 항해지도
31	솔르,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45	프로젝트 매뉴얼
59	이미지 아카이브
130	<b>비평문</b>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젠더적 공간과 그 경계
141	무장소의 장소성, 조영주의 설치 작업
143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_차별적 성별화된 사회
146	경계에서의 예술작업 (비)무장화, (비)물질화: 조영주 작품 속 여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150	치유의 안무: 아줌마 델스 비디오 시리즈
154	살에서 일어나는 반복적 기억
158	신체가 맞이하는 국면들, 조영주의 매개적 퍼포먼스
164	세계 내 몸에서 온 세계로
170	마주 본 몸: 협업과 조영주 퍼포먼스의 신체성
175	분열된 욕망, 조영주 작가의 풀 타임-더블 (Full time-double),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세 개의 숨 (Three breaths)에 대한 노트
178	정원사의 눈을 피해 솟아오르는
181	연대를 위한 경험과 교섭의 기애
187	인터뷰: 작가와의 대화
201	작가 약력
208	필자 소개
210	크레디트
213	<b>부록</b>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약보

아카이브

하나를 손에 쥐면 아홉을 놓친다. 아홉이 있었던 줄도 모른 채로. 아카이브는 자료들의 방대한 덩어리에서 누락된 실재의 파편들이 쌓인 장소다. 언어화되지 않은 물질들이 육여넣어진 상태로 의미화를 기다리는 곳. 여기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칠 것인가? 아카이브라는 장소에서 작업자는 유실된 기억과 자료의 공백 사이로 기꺼이 뛰어드는 사람이자 새로운 항로를 탐색하는 자가 된다. 그 길에서 좌초되지 않기 위해선 스스로를 위한 준거점을 마련해야 한다. 이어지는 장에서 확인하게 될 매뉴얼은 조영주의 아카이브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제작한 항해지도이자 69개 작업을 가늠할 수 있는 또 다른 잠재적 아카이브다.

조영주의 아카이브는 작업의 최종 데이터뿐만 아니라 에스키스(esquisse), 드로잉, 일기, 메모, 사진, 영상 등 3 테라바이트 (TB)에 육박하는 작업 관련 데이터와 실물 자료로 구성되었다. 주로 사진, 퍼포먼스, 영상의 형식으로 구성된 조영주의 작업은 대부분 물질로서 소유할 수 없다. 그런 이유로 아카이브에는 작품 자체보다 작품을 둘러싼 재료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 조영주 연구집 『조0주』는 이 방대한 자료를 모두 담거나 아카이브 자체를 들춰내기보다, 그 재료들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지 안내하는 방식으로 기술된 매뉴얼을 수록한다. 조영주의 작업 아카이브에 방대한 데이터가 쌓여있을지라도 그것들은 자체로 사건이 될 수 없다. 자료는 당신이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한 방식으로 과거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집은 개인을 역사화하기 위해 자료를 분류하고 조직해 한 페이지에 내용을 담기보다 무수한 갈래로 뿔어가는 아카이브 자체를 상상하길 제안하는 것이다.

조영주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체할 수 없는 인물들과 함께 작업을 만든다. 그런 이유로 그의 작업은 다시 제작할 수 없거나, 기록하기 까다로운 조건에 놓여있다. 이 책은 '솔로',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작업 방식의 키워드 안에서 조영주의 작업 특징을 살펴본다. 앞선 단어들은 작가의 작업적 특징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작가는 출산, 육아, 돌봄 노동 등 여성으로서 겪게 되는 일들을 작업에서 다뤄왔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부분은 특정한 소재와 주제라기보다 여성이 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관한 지점이다. 사회적인 구조에서 여성의 위치, 주체와 타자의 관계성이 그의 작업 세계를 관통하는 큰 줄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의 주제는 '솔로',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과 같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꾸리는 방법론적 태도에서도 특징적으로 드러난다.

솔로의 카테고리로 묶인 작업들은 69가지 작업 중 34개이고, 공동으로 진행한 콜렉티브와 콜라보레이션 작업은 각 10개, 25개다. 작가에게 콜라보레이션은 단순히 함께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새롭게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책을 느슨하게 구분 짓는 '솔로',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의 카테고리는 실제로 혼자 작업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작업 지분의 문제와 관련있다. 오롯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작업은 없으니까. 솔로의 카테고리에 묶인 작업들은 작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작가에게 귀속한다. 작가는 스스로 작업에 관한 판매, 소장, 전시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콜렉티브와 콜라보레이션의 카테고리에 묶인 작업들은 판매, 소장, 전시의 문제에

3	작가 소개
7	작가 연보
14	작품매체 글로벌 에일리언 (Global Alien) 프로젝트 (2006-2015)
15	원 나이트 위드 펄원스 티셔츠 언 마이 베드 (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 (2006-2007)
16	진실된 이야기 2 (True stories 2) (2012)
17	진실된 이야기 1, Ver. 1-4 (True stories 1, Ver. 1-4) (2013-2014)
18	유니버설 콜라보레이티브, 서울 (Universal collaborators, Seoul) (2014)
19	꽃가래 로맨스 (Floral patterned roman (2014)
20	미스리와 김여사 (Miss Lee and Mrs. Kim) (2017)
21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2019)
22	입술 위의 깃털 (Feathers on lips) (2020)
23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
24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
25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te) (2022)
26	살필 운동 (Caring exercise) (2023)
28	아카이브 아카이브를 위한 항해지도
31	솔로,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45	프로젝트 매뉴얼
59	이미지 아카이브
130	비평문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젠더적 공간과 그 경계
141	무장소의 장소성, 조영주의 설치 작업
143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 차별적 성별화된 사회
146	경제에서의 예술작업 (비)무장화, (비)물질화: 조영주 작품 속 여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150	치유의 안무: 아줌마 댄스 비디오 시리즈
154	살에서 일어나는 반복적 기억
158	신체가 맞이하는 국면들, 조영주의 매개적 퍼포먼스
164	세계 내 몸에서 온 세계로
170	마주 본 몸: 협업과 조영주 퍼포먼스의 신체성
175	분열된 욕망, 조영주 작가의 풀 타임-더블 (Full time-double)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세 개의 숨 (Three breaths)에 대한 노트
178	정원사의 눈을 피해 솟아오르는
181	연대를 위한 경합과 교섭의 기예
187	인터뷰: 작가와의 대화
201	작가 약력
208	필자 소개
210	크레디트
213	부록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악보

있어 다소 예민하고 모호한 지점에 놓인다. 아카이브를 위한 매뉴얼은 작가가 작업에서 화두로 삼는 관계의 문제가 작업의 형식적인 지점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본다.

매뉴얼은 책의 카테고리별로 작업의 주제가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작업들을 다룬다. '솔로'의 카테고리에는 사진 작업 나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I'm not acceptable) (2006-2007), 드로잉 설치 작업 It could be real (2009), 오브제 설치 휴먼가르텐 (Humangarten) (2021)이 포함되었다. '콜렉티브' 부분은 글로벌 에일리언의 작업에 관한 공용 매뉴얼을 다룬다. '콜라보레이션'에서는 입술 위의 깃털 (Feathers on lips) (2020)과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 그리고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te) (2022)에 관한 작업 사용법을 적었다. 작가는 사진, 드로잉, 오브제 설치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지만 매뉴얼은 여러 형식을 관통하는 수행적인 성질에 집중한다.

'콜렉티브'와 '콜라보레이션'을 가르는 척도는 2006년 출범한 국제 미술 그룹 글로벌 에일리언의 활동을 그 기준으로 나뉜다. 조영주는 글로벌 에일리언 (Global Alien) 콜렉티브의 주요 멤버로 약 10년간 활동했다. 이때 제작된 작업의 가짓수는 많지 않더라도 이 당시 콜렉티브로 활동했던 경험은 작가의 작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몫을 가진다. 이 집단은 각기 다른 국적의 작가로 구성되어 유럽 한복판에서 이방인으로서 감각하고 있는 정서를 공유하며 결집되었고, 내부자가 보지 못하는 풍경을 포착하려는 시도로부터 추동되었다. 활동 멤버 리스트가 웹사이트 (<https://globalalien.net/about/>) 내 기재되어있지만 모든 프로젝트를 함께 해야한다거나 소속감을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 요컨대 글로벌 에일리언은 어떤 구속력도 없으며 다소 느슨하고 열린 울타리로 구획된 콜렉티브라고 할 수 있다.

작업을 위해 모였다가 흩어지는 사람들, 맺고 끊어지는 관계는 이후 작가가 콜라보레이션하여 제작한 작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단 콜렉티브가 동등한 위상으로 모여 하나의 결과물을 만드는 방식을 보여줬다면, 이후 조영주는 스스로가 중심축이 되어 다른 인물들을 작업으로 초대한다. 작가는 자신을 일종의 플랫폼으로 삼기 시작한 것이다. 아카이브 접근 매뉴얼은 조영주의 69개 작업 중에서 솔로,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의 키워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작업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영상, 콜렉티브 제작 방식, 콜라보레이션으로 진행된 퍼포먼스와 같이 원본의 가치와 소유, 소장 개념을 명확하게 짚기 어려운 작업을 중심으로 작성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기록이 아닌 방식으로 어떻게 작업을 증명할 수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아카이브를 구성할 수 있을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지도를 손에 쥔 채 새로운 아카이브 접근법을 상상하길 기대한다.





3	작가 소개
7	작가 연보
14	<b>작품해제</b> 글로벌 에일리언 (Global Alien) 프로젝트 (2006-2015)
15	원 나이트 위드 뽀원스 티셔츠 언 마이 베드 (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 (2006-2007)
16	진실된 이야기 2 (True stories 2) (2012)
17	진실된 이야기 1_Ver. 1-4 (True stories 1, Ver. 1-4) (2013-2014)
18	유니버설 콜라보레이터, 서울 (Universal collaborators, Seoul) (2014)
19	꽃가라 로맨스 (Floral patterned roman (2014)
20	미스리와 김여사 (Miss Lee and Mrs. Kim) (2017)
21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2019)
22	입술 위의 깃털 (Feathers on lips) (2020)
23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
24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
25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te) (2022)
26	살릴 운동 (Caring exercise) (2023)
28	<b>아카이브</b> 아카이브를 위한 항해지도
31	슬로,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45	프로젝트 매뉴얼
59	이미지 아카이브
130	<b>비평문</b>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젠더적 공간과 그 경계
141	무장소의 장소성, 조영주의 설치 작업
143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_차별적 성별화된 사회
146	경계에서의 예술작업 (비)무장화, (비)물질화: 조영주 작품 속 여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150	치유의 안무: 아홉마 델스 비디오 시리즈
154	살에서 일어나는 반복적 기억
158	신체가 맞이하는 국면들: 조영주의 매개적 퍼포먼스
164	세계 내 몸에서 온 세계로
170	마주 본 몸: 협업과 조영주 퍼포먼스의 신체성
175	분열된 욕망: 조영주 작가의 풀 타임-더블 (Full time-double)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세 개의 숨 (Three breaths)에 대한 노트
178	정원사의 눈을 피해 솟아오르는
181	연대를 위한 경합과 교섭의 기예
187	인터뷰: 작가와의 대화
201	작가 약력
208	필자 소개
210	크레디트
213	<b>부록</b>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약보

슬로,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연번	유형	작품명	제작연도	재료 및 기법	규격 및 재생 시간	에디션	솔로,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소장처	작가 소개	전시 이력	출처	추가정보	연관 자료	영상기록	기술연도	
1	퍼포먼스	수기 요정 Fée suki	2002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 전나무, 지역 특산물		없음	솔로	없음	작가 소개 작가 연보	2002	BOUNDARY AND CHANGE, 한일교류 워크숍 및 전시, 나카츠메, 일본	차 배달 퍼포먼스, 퍼포머: 조영주	-	N	2023	
2	설치	교정된 일기 Corrected diaries	2003- 2004	슬라이드 프로젝트, 슬라이드 필름, 스피커, 석고	가변설치	없음	솔로	없음	작품해설 글로벌 에일리언 (Global Alien) 프로젝트 (2006-2015) 원 나이트 워드 썸원스 (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 (2006-2007) 진실된 이야기 2 (True stories 2) (2012) 진실된 이야기 1, Ver. 1-4 (True stories 1, Ver. 1-4) (2013-2014)		작가 제공		-	N	2023	
3	설치	258버스 승객을 부러워 말자! Ne soyez pas jaloux du bus 258!	2004	방석, 잡지, 사탕, 포스터		없음	솔로	없음		2004	파리 변두리 지역 루에이마메종의 버스 정류장	관객 혹은 시민 반응에 관한 작가 기록	-	N	2023	
4	영상	밤의 작은 음악 A little night music	2005	단체널 영상, 컬러, 사운드	2분	없음	솔로	없음	윤니베를 콜라보레이터, 서울 (Universal collaborators, Seoul) (2014) 꽃가래 로맨스 (Floral patterned roman (2014) 미스리와 김연사 (Miss Lee and Mrs. Kim) (2017)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2019) 입술 위의 깃털 (Feathers on lips) (2020)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te) (2022) 살필 운동 (Caring exercise) (2023)	2014	놀이의 공간-찰라, 창원아시아미술제 현대미술제, 성산아트홀, 창원	작가 제공	-	-	Y	2023
5	영상	기린에 대한 기억 Memory of a giraffe	2005	단체널 영상, 흑백, 사운드(한국어), 자막(불어/영어)	4분	없음	솔로	없음		2013	13인의 아이 Good job Good place Good time, 오산시립미술관 문화공장오산, 오산	작가 제공	-	-	Y	2023
6	설치	퍼블릭 파크 Public parks	2006	프랑스 유명 관광지 공원들의 흙, 비닐백 (각 15×23cm), 혼합재료	가변설치	없음	솔로	없음	아카이브 아카이브를 위한 항해지도 솔로,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매뉴얼	2011	The end of the dream, Micamoca Project e.V., 베를린, 독일	작가 제공	-	-	N	2023
7	설치	모국 방문 Visiting my motherland	2006	혼합매체	가변설치	없음	솔로	없음	이미지 아카이브 비평문	2006	Global Alien, Meinblau 갤러리, 베를린, 독일	작가 제공	-	-	N	2023
8	프로젝트	글로벌 에일리언 Global Alien	2006	-	-	없음	콜렉티브	없음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젠더적 공간과 그 경계 무장소의 장소성, 조영주의 설치 작업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_차별적 성별화된 사회 경계에서의 예술작업 (비)무장화, (비)용질화:	2006	Global Alien, Meinblau 갤러리, 베를린, 독일	작가 제공	[현재 해체] 주요 멤버: 조영주, 토르비온 로이터 크리스티안센, 김남시 쿠오웨이 린, 크리스토퍼 메이어, 리자 메이 데이비드, 야콥 사블, 마르테 카슬링, 유재현, 인기라폰 스타이날슨	<a href="https://globalalien.net/">https://globalalien.net/</a>	N	2023
9	사진	나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I'm not acceptable	2006- 2007	디지털 프린트	가변설치	(ed. 1/5 + A.P.1)	솔로	없음	조영주 작품 속 여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처유의 안무: 아줌마 댄스 비디오 시리즈	2013 2008	My public affairs, 스페이스 매스, 서울 Gender*d*rama, Statthaus Böcklerpark in Kreuzberg, 베를린, 독일	작가 제공	-	-	N	2023
10	사진	원 나이트 워드 썸원스 티셔츠 인 마이 베드 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	2006- 2007	디지털 프린트	50×35cm (가변크기)	(ed. 1/5 + A.P.1)	솔로	없음	살에서 일어나는 반복적 기억 신체가 맞이하는 국면들. 조영주의 매개적 퍼포먼스 세계 내 몸에서 온 세상으로 마주 본 몸: 협업과 조영주-퍼포먼스의 신체성	2021 2013 2013 2012	창동레지던시 배너 프로젝트,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서울 항구도시 교류전_부산, 함부르크, 상해 교류전, 부산진역, 부산 마이 퍼블릭 어페어스 (My public affairs), 스페이스 매스, 서울 CYAYAF 2012 (Contemporary Art & Young Artists Festival), 킨텍스, 고양	작가 제공	퍼포머: 조영주	-	N	2023
11	설치	나는 많은 러브 레터를 받고 싶다 I want to get a lot of love letters	2006- 2007	혼합매체	16×23cm	없음	솔로	없음	분열된 욕망. 조영주 작가의 풀 타임-더블 (Full time-double).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세 개의 숨 (Three breaths)에 대한 노트 정원사의 눈을 피해 솟아오르는 연대를 위한 경합과 교섭의 기예 인터뷰: 작가와의 대화	2013 2012	13인의 아이 Good job Good place Good time, 오산시립미술관 문화공장오산, 오산 CYAYAF 2012 (Contemporary Art & Young Artists Festival), 킨텍스, 고양	작가 제공	-	-	N	2023
12	사진, 설치	파리 루르멜가 77번지의 크리스마스 (1) Christmas at the 77, rue de Lourmel, Paris (1)	2006- 2007	디지털 프린트, 레터링 스티커	106×150cm	(ed. 1/5 + A.P.1)	솔로	없음	작가 약력 필자 소개 크레디트 부록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약보	2013 2012	마이 퍼블릭 어페어스 (My public affairs), 스페이스 매스, 서울 CYAYAF 2012 (Contemporary Art & Young Artists Festival), 킨텍스, 고양	작가 제공	-	-	N	2023

연번	유형	작품명	제작연도	재료 및 기법	규격 및 재생 시간	에디션	솔로,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소장처	작가 정보	전시 이력	출처	추가정보	연관 자료	영상기록	기술연도
13	사진	파리 루르멜가 77번지의 크리스마스 (2) Christmas at the 77, rue de Lourmel, Paris (2)	2007	디지털 프린트, 레터링 스티커	28×21×5cm	없음	솔로	없음	작가 소개 작가 연보	2013 마이 퍼블릭 어페어스 (My public affairs), 스페이스 매스, 서울 2012 CYAYAF 2012 (Contemporary Art & Young Artists Festival), 킨텍스, 고양	작가 제공	-	-	N	2023
14	영상	글로벌 에일리언 - TV 스피치의 자유 Global Alien - TV freedom of speech	2007	갤러리: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 설치, 영상 / 야외: 퍼포먼스	3편의 영상물 (당시 시민방송국 (RTV)을 통해 방영됨) * 현재는 영상이 만료되어 찾을 수 없음	없음	콜렉티브	없음	작품소개 작가 연보	2007 스피치의 자유 — 글로벌 에일리언 TV-스튜디오 (Freedom of Speech — Global Alien TV-Studio), 씬시 스페이스, 서울	작가 제공	글로벌 에일리언 프로젝트	-	Y	2023
15	설치	앨리스의 메시지 Message from Alice	2007 / 2009	석고	180×110×4cm	없음	솔로	없음	작품소개 작가 연보	2009 Splendid Isolation-Goldrausch 2009, 쿤스트라움 크로이츠베르크/베타니엔, 베를린, 독일	작가 제공	-	-	N	2023
16	설치	접근할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Accessible, acceptable and valuable	2007	알루미늄	48×38×17.5cm	없음	솔로	없음	작품소개 작가 연보	2011 Sommer auf dem Balkon, Antje Wachs 갤러리, 베를린, 독일	작가 제공	-	-	N	2023
17	사진	즐거움 명절 Happy holiday	2007	디지털 프린트	150×100cm	없음	솔로	없음	작품소개 작가 연보	2019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작가 제공	-	-	N	2023
18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 사진	티셔츠 교환하기 Exchanging t-shirts	2007	혼합매체	가변설치	없음	콜렉티브	없음	작품소개 작가 연보	2009 Power of Spoken Words 'Import Export', 갤러리 rum 46, 아루스, 덴마크 2008 Congress of Culture-Global Alien, 쿤스트라움 크로이츠베르크/베타니엔, 베를린, 독일 2007 스피치의 자유-글로벌 에일리언 TV-스튜디오 (Freedom of Speech-Global Alien TV-Studio), 씬시 스페이스, 서울	작가 제공	글로벌 에일리언 프로젝트	-	N	2023
19	사운드, 설치	구술 시험 Oral exam	2008	사운드	가변설치	없음	솔로	없음	작품소개 작가 연보	2008 Congress of Culture-Global Alien, 쿤스트라움 크로이츠베르크/베타니엔, 베를린, 독일	작가 제공	글로벌 에일리언 프로젝트	-	N	2023
20	전시 (프로젝트)	글로벌 에일리언: "문화 회합" Global Alien "Congress of culture"	2008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 설치, 영상	-	없음	콜렉티브	없음	작품소개 작가 연보	2008 Congress of Culture-Global Alien, 쿤스트라움 크로이츠베르크/베타니엔, 베를린, 독일	작가 제공	글로벌 에일리언 프로젝트	-	Y	2023
21	설치	진짜일 수도 있다 It could be real	2009	팩스, A4 용지 100장	가변설치	없음	솔로	없음	작품소개 작가 연보	2009 Splendid Isolation-Goldrausch 2009, 쿤스트라움 크로이츠베르크/베타니엔, 베를린, 독일 2009 미디어로서의 작가, 갤러리정미소, 서울	작가 제공	-	-	N	2023
22	전시	임포트 익스포트: 발화된 말의 힘 Import export: Power of spoken words	2009	갤러리: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 설치, 영상 / 야외 공원: 설치 및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	-	없음	콜렉티브	없음	작품소개 작가 연보	2009 프로젝트 매뉴얼 이미지 아카이브 gallery rum 46, 아루스, 덴마크	작가 제공	글로벌 에일리언 프로젝트	-	Y	2023
23	영상	Tscho가 아니라 Djo Nicht Tscho, sondern Djo	2009	단체널 영상, 컬러, 사운드	가변설치	없음	솔로	없음	작품소개 작가 연보	2013 13인의 아이 Good job Good place Good time, 오산시립미술관 2009 Venice, Souvenir, Pavillon, Inselgluck Festival, 베를린, 독일 2009 Camera Cartell-scenario 3, Hedah 갤러리, 마스트리트, 네덜란드	작가 제공	Katarina Zdjelar 오마주	Y	2023	
24	설치	마이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홈 My international standards home	2010	사운드, 혼합매체	가변설치	없음	솔로	없음	작품소개 작가 연보	2010 Step toward Home, Dam Stuhltrager Gallery, 베를린, 독일	작가 제공	-	-	N	2023
25	퍼포먼스, 영상	글로벌 에일리언의 국토 안보 Homeland security of Global Alien	2010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	-	없음	콜렉티브	없음	작품소개 작가 연보	2010 Step toward Home, Dam Stuhltrager Gallery, 베를린, 독일	작가 제공	글로벌 에일리언 프로젝트	-	Y	2023
26	퍼포먼스, 사진	ICCD: 국제 문화 협력 만찬 ICCD: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ed dinner	2010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	가변설치	없음	콜라보레이션	없음	작품소개 작가 연보	2010 Schnell & Schmutzig (Lab-Montage 기획), Markthalle IX, 베를린, 독일	작가 제공	조영주, 니콜 울리히 협업	-	N	2023
27	퍼포먼스, 영상, 사진	희망과 실패: 아메리칸 드림 조사하기 Hope and failure: Invasgating the american dream	2011	갤러리: 영상, 설치, 관객 참여형 설치 야외: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	-	없음	콜렉티브	없음	작품소개 작가 연보	2011 Hope and Failure, Gallery Homeland, 포틀랜드, 오리건, 미국	작가 제공	2회 공연, 퍼포먼스 기록 전시, 글로벌 에일리언 프로젝트	-	Y	2023
28	퍼포먼스	리버스 뉴욕 시티: 도시 공간에서 언어를 재점유하기 Rebus New York city: Re-occupy language in urban space	2012	갤러리: 영상, 설치, 관객 참여형 설치 야외: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	-	없음	콜렉티브	없음	작품소개 작가 연보	2012 Rebus New York City, Emily Harvey Foundation, 뉴욕, 미국 2012 리버스 뉴욕 시티, 도시 공간에서 언어를 재점유하기 (REBUS NEW YORK CITY Re-occupy Language in Urban Space), 복합문화공간 꿀&꿀, 서울	작가 제공	글로벌 에일리언 프로젝트 / 2012, 복합문화공간 꿀&꿀	-	Y	2023

연번	유형	작품명	제작연도	재료 및 기법	규격 및 재생 시간	에디션	솔로,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소장처	작가 소개	전시 이력	출처	추가정보	연관 자료	영상기록	기술연도
29	회화	진실된 이야기 2 True stories 2	2012	종이 위에 수채	21×29cm	없음	솔로	없음	작가 소개 작가 연보	2015 아름다운 인연,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2015 광주미디어아트레지던스 교류전,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2014 공생공유, 홍티아트센터, 부산 2013 항구도시 교류전, 부산, 함부르크, 상해 교류전, 부산진역, 부산 2013 13인의 아이 Good job Good place Good time, 오산시립미술관 문화공장오산, 오산 2013 가볍게 우울한 에피소드, 코너아트스페이스, 서울	작가 제공	-	-	N	2023
30	퍼포먼스 설치	진실된 이야기 1 ver. 1, 2, 3, 4 True stories 1 ver. 1, 2, 3, 4	2013-2014	퍼포먼스, 혼합매체	가변설치	5개	솔로	없음	진실된 이야기 1, Ver. 1-4 (True stories 1, Ver. 1-4) (2013-2014) 유니버설 콜라보레이터, 서울 (Universal collaborators, Seoul) (2014) 꽃가라 로맨스 (Floral patterned romance) (2014) 미스리와 김여사 (Miss Lee and Mrs. Kim) (2017)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2019) 입술 위의 깃털 (Feathers on lips) (2020)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te) (2022) 살핀 운동 (Caring exercise) (2023) 아카이브 아카이브를 위한 황해지도	2014 광주비엔날레 20주년기념 특별프로젝트 달콤한 이슬:1980 이후, 광주폴리, 광주 2013 가볍게 우울한 에피소드, 코너아트스페이스, 서울 2013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 보고 라운드-업,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3 마이 퍼블릭 어페어스 (My public affairs), 스페이스 매스, 서울	작가 제공	Ver. 1 (작곡 및 피아노: 박영란, 퍼포머: 박진영, 타악: 함창수 / 퍼포먼스 일정: 2013년 10월 12일 5:30), 코너아트스페이스 Ver. 2 (작곡가 박영란, 무용가 장홍석 협업, 혼합매체, 2013), 서울시립미술관 Ver. 3 (시조창: 문현 / 일정: 2014년 3월 29일 6시), 부부생활, 웨이즈오브싱 Ver. 4 (9인의 음악가, 국악인, 무용가, 작곡가 협업), 광주비엔날레(2014) Ver. 5 (현대무용 박진영, 사운드 해미 클레멘세비츠, 2014), 라운드어바웃	Ver. 1: <a href="https://youtu.be/0erhSn_TeJ0">https://youtu.be/0erhSn_TeJ0</a> Ver. 2: <a href="https://youtu.be/g21MhqwQPHA">https://youtu.be/g21MhqwQPHA</a> Ver. 4: <a href="https://youtu.be/53WESHf0zMg">https://youtu.be/53WESHf0zMg</a>	Y	2023
31	설치	아름다운 인연 A beautiful match made in heaven	2013	스피커, 빨간치마	47×60×25cm	없음	솔로	없음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te) (2022)	2015 아름다운 인연,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2015 광주미디어아트레지던스 교류전,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2013 항구도시 교류전, 부산, 함부르크, 상해 교류전, 부산진역, 부산 2013 가볍게 우울한 에피소드, 코너아트스페이스, 서울	작가 제공	-	-	N	2023
32	설치	나의 왕께 바칩니다 An offering to my king	2013	석고, 레진, 나무	27×16×17cm	없음	솔로	없음	살핀 운동 (Caring exercise) (2023) 아카이브 아카이브를 위한 황해지도	2015 아름다운 인연,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2015 광주미디어아트레지던스 교류전,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2013 가볍게 우울한 에피소드, 코너아트스페이스, 서울	작가 제공	-	-	N	2023
33	퍼포먼스	프로 테스트 송 테스트 Pro test song test	2014	갤러리: 영상, 설치, 관객 참여형 설치 야외: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	8분	없음	콜렉티브	없음	솔로,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매뉴얼 이미지 아카이브	2017 블랭-리스트, 성북도원, 서울 2014 프로 테스트 송 테스트, 커뮤니티스페이스 리트머스, 안산	작가 제공	글로벌 에일리언 프로젝트	-	Y	2023
34	영상, 설치, 퍼포먼스	유니버설 콜라보레이터, 서울 Universal collaborators, Seoul	2014	3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각 5분	없음	콜라보레이션	없음	비평문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젠더적 공간과 그 경계 무장소의 장소성, 조영주의 설치 작업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 차별적	2014 응답하라 작가들(고동연 기획), 스페이스 오뉴월, 서울 2015 프리뷰,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작가 제공	퍼포머: 조영주, 고용된 서양인 (블론드) 남성	<a href="https://youtu.be/jCly5abyklA">https://youtu.be/jCly5abyklA</a>	Y	2023
35	영상	예쁜, 까칠까칠한 Pretty, prickled	2014	단체널 영상, 컬러, 사운드	7분 42초	없음	솔로	없음	성별화된 사회 경제에서의 예술작업 (비)무장화, (비)몸짓화: 조영주 작품 속 여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2018 누가 그녀를 모함했나?,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5 프리뷰,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2014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 스페이스 매스, 서울 2014 홍티연회, 홍티아트센터, 부산, 한국	작가 제공	-	<a href="https://youtu.be/PRdKo9IT6PA">https://youtu.be/PRdKo9IT6PA</a>	Y	2023
36	영상	리틀 드라마 Little drama	2014	단체널 영상, 컬러, 사운드	10분 34초	없음	솔로	없음	치유의 안무: 아줌마 댄스 비디오 시리즈 살에서 일어나는	2014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 스페이스 매스, 서울	작가 제공	-	-	Y	2023
37	영상	청순한 그녀, 멋진 그 Innocent women, handsome men	2014	단체널 영상, 컬러, 사운드	16분 58초	없음	솔로	없음	반복적 기억 신체가 맞이하는 국면들, 조영주의 매개적 퍼포먼스	2014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 스페이스 매스, 서울	작가 제공	-	-	Y	2023
38	영상	꽃가라 로맨스 Floral patterned romance	2014	단체널 영상, 컬러, 사운드	6분 51초	없음	콜라보레이션	청주시립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	세계 내 몸에서 온 세로 마주 본 몸: 협업과 조영주 퍼포먼스의 신체성 분열된 욕망, 조영주 작가의 풀 타임-더블 (Full time-double)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세 개의 숨 (Three breaths)에 대한 노트 정원사의 눈을 피해 솟아오르는 연대를 위한 경합과 교섭의 기애 인터뷰: 작가와의 대화 작가 약력 필자 소개 크레디트 부록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악보	2023 비디오시티x서울 2023: 'Flower Power', 송은, 서울 2021 고암의 춤: 평화 공존 화합, 이응노의집, 홍성 2020 오계 (五季),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서울 2020 부산비엔날레 연계 아카이브전 모카x부산x비엔날레, 부산현대미술관, 부산 2020 Safe House, Maryland Art Place, 볼티모어, 미국 2020 심안으로 보라,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2019 Focus Onx비디오 페스티벌 오브니, 니스, 프랑스 2019 비디오/스펙트럼/댄스 (Video/Spectrum/Dance), 엘리펀트스페이스, 서울 2019 순순만만, 기억의 집, 순천 2018 한 조각을 잃어버린 동그라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파주 2018 경기 아카이브_지금, 경기상상캠퍼스, 경기 2018 부드러운 권력,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작가 제공	비디오 촬영 후, 지역 행사 및 축제에서 참여자들과 라이브 퍼포먼스 공연 실행	<a href="https://youtu.be/nZA2Yoo-f2g">https://youtu.be/nZA2Yoo-f2g</a>	Y	2023

연번	유형	작품명	제작연도	재료 및 기법	규격 및 재생 시간	에디션	솔로,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소장처	전시 이력	출처	추가정보	연관 자료	영상기록	기술연도		
									작가 소개 작가 연보							
									전시 이력							
									작품매체							
									2018 미디어 미디어,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서울							
									2016 워터리 마담, 주인도한국문화원, 인도							
									2015 프리뷰,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2014 지속가능한 도시-꽃 II, 에이픽 갤러리, 대전							
									2014 공생공유, 홍티아트센터, 부산							
									2014 홍티연회, 홍티아트센터, 부산							
39	전시 (퍼포먼스)	글로벌 에일리언: 기념일 Global Alien: Anniversary	2015	갤러리: 영상, 설치, 관객 참여형 설치 아외: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	-	없음	콜렉티브	없음	16 진실된 이야기 2 (True stories 2) (2012) 17 진실된 이야기 1, Ver. 1-4 (True stories 1, Ver. 1-4) (2013-2014) 18 유니버설	2015	Global Alien: Anniversary, Galerie Im Turm, 베를린, 독일	작가 제공	글로벌 에일리언 프로젝트	-	N	2023
40	영상	그랜드 큐티 Grand cuties	2015	단체널 영상, 컬러, 사운드	7분 34초	없음	콜라보레이션	청주시립미술관	19 콜라보레이티, 서울 (Universal collaborators, Seoul) (2014) 20 꽃가래 로맨스 (Floral patterned roman) (2014) 21 미스리와 김여사 (Miss Lee and Mrs. Kim) (2017) 22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2019) 23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 24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 25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te) (2022) 26 살림 운동 (Caring exercise) (2023) 27 아카이브 28 아카이브를 위한 항해지도 29 솔로 콜렉티브	2021 고암의 춤: 평화 공존 화합, 이응노의 집, 홍성 2020 오계 (五季),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서울 2020 돈을 벌지 않는 사람들, 서울시립미술관 Sema 창고, 서울 2020 심안으로 보라,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2019 Focus On X 비디오 페스티벌 오브니_OVNI: Objectif Video Nice, 니스, 프랑스 2019 나나랜드: 나답게 산다, 사비나미술관, 서울 2019 순순만만, 기억의 집, 순천 2018 코드-스티치, 롯데갤러리, 서울 2018 경기 아카이브_ 지금, 경기상상캠퍼스, 경기 2018 부드러운 권력,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2016 워터리 마담, 주인도한국문화원, 인도 2015 프리뷰,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작가 제공	비디오 촬영 후, 지역 행사 및 축제에서 참여자들과 라이브 퍼포먼스 공연 실행	<a href="https://youtu.be/K1190uMPSLI">https://youtu.be/K1190uMPSLI</a>		Y	2023
41	영상	디바들의 외출 The divas go out	2015	단체널 영상, 컬러, 사운드	8분 25초	없음	콜라보레이션	없음	29 아카이브 30 아카이브를 위한 항해지도 31 솔로 콜렉티브	2020 오계 (五季),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서울 2019 Focus On X 비디오 페스티벌 오브니_OVNI: Objectif Video Nice, 니스, 프랑스 2019 순순만만, 기억의 집, 순천 2018 코드-스티치, 롯데갤러리, 서울 2018 경기 아카이브_ 지금, 경기상상캠퍼스, 경기 2018 기억의 밤 그리고 낮, 성북 도원, 서울 2016 워터리 마담, 주인도한국문화원, 뉴델리, 인도 2015 부산, 아산, 오산, 울산, 익산; 5산사람들, 문화공장오산(오산시립미술관), 오산	작가 제공	비디오 촬영 후, 지역 행사 및 축제에서 참여자들과 라이브 퍼포먼스 공연 실행	<a href="https://youtu.be/n0bxFbxaOyE">https://youtu.be/n0bxFbxaOyE</a>		Y	2023
42	영상	워터리 마담 Watery madams	2015	단체널 영상, 컬러, 사운드	10분	없음	콜라보레이션	없음	32 비행문 33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켈더릭 공간과 그 경계 34 무장소의 장소성, 조영주의 설치 작업 35 우리 작은 켈더 이야기_차별적 성별화된 사회	2020 오계 (五季),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서울 2019 순순만만, 기억의 집, 순천 2016 워터리 마담, 주인도한국문화원, 뉴델리, 인도 2016 실신(實神)프로젝트 남·양·광·하 아카이브전,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플랫폼, 수원 2015 실신(實神)프로젝트 남·양·광·하, 경기문화재단, 문화공간 두머리, 수원 2015 워터리 마담의 축축한 점심식사_예술가의 런치박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작가 제공	비디오 촬영 후, 지역 행사 및 축제에서 참여자들과 라이브 퍼포먼스 공연 실행	<a href="https://youtu.be/ZnU7yUuSClU">https://youtu.be/ZnU7yUuSClU</a>		Y	2023
43	영상	DMG: 비무장 여신들 DMG: Demilitarized goddesses	2015	단체널 영상, 컬러, 사운드	8분 51초	없음	콜라보레이션	없음	36 경계에서의 예술작업 (비)무장화, (비)물결화: 조영주 작품 속 여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37 치유의 안무: 아줌마 댄스 비디오 시리즈 38 살에서 일어나는 반복적 기억 39 신체가 맞이하는 국면들, 조영주의 매개적 퍼포먼스 40 세계 내 몸에서 온 세계로 41 아주 본 몸: 협업과 조영주 퍼포먼스의 신체성 42 분열된 욕망, 조영주 작가의 풀 타임-더블 (Full time-double),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세 개의 숨 (Three breaths)에 대한 노트	2022 DMZ 아트프로젝트 평화공존시대, 임진각, 파주 2020 오계 (五季),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서울 2019 Marginalized Histories of Korean Women, 메리위싱턴대학교 필리스 리덴호프 마틴 갤러리, 버지니아, 미국 2019 Un-wall, 쿤스트파르티에 베타니엔, 베를린, 독일 2019 순순만만, 기억의 집, 순천 2018 OVNI: Objectif Video Nice, 니스, 프랑스 2018 한 조각을 잃어버린 동그라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파주 2018 경기 아카이브_ 지금, 경기상상캠퍼스, 경기 2018 이화 미디어아트 국제전,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2017 Video Portrait, 토탈미술관, 서울 2016 워터리 마담, 주인도한국문화원, 뉴델리, 인도 2015 불균형한 균형,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2015 리얼 디얼지 프로젝트: 동송세월, 금학로 철원감리교회 & 아트선재센터, 서울	작가 제공		<a href="https://youtu.be/Pt7oY55cWol">https://youtu.be/Pt7oY55cWol</a>		Y	2023
44	사진, 리서치	드레스를 입은 대화 Talks in wearing a dress	2015	지역민 참여 리서치	-	없음	콜라보레이션	없음	43 정원사의 눈을 피해 솟아오르는 연대를 위한 경합과 교섭의 기예 44 인터뷰: 작가와의 대화	2015	불균형한 균형,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작가 제공	-	-	N	2023
45	사진, 영상	가정상실 Home-less: The intentional home-less women	2016	혼합매체, 가변크기		없음	솔로	서울시립미술관	45 작가 약력 46 필자 소개 47 크레디트 48 부록 49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약보	2017 홀리스의 도시, 윤슬미술관, 김해 2016 홀리스의 도시, 아르코미술관, 서울	작가 제공	-	-	Y	2023	

연번	유형	작품명	제작연도	재료 및 기법	규격 및 재생 시간	에디션	솔로,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소장처	작가 소개	전시 이력	출처	추가정보	연관 자료	영상기록	기술연도
46	영상, 프로젝트	미스리와 김여사 Miss Lee and Mrs. Kim	2017	지역민 참여 리서치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없음	콜라보레이션	없음	3 작가 소개 7 작가 연보	2018 미스리와 김여사, 아트스페이스노, 서울 2017 SeMA 예술가 길드 — 표본창고, 서울시립미술관 SeMA 창고, 서울 2017 미스리와 김여사: 이영숙과 김숙자 이야기,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작가 제공	1) 2017 미스리와 김여사: 이순애와 김복희 이야기, 라이브 퍼포먼스, 35분, (SeMA 창고) 2) 2017 미스리와 김여사: 이영숙과 김숙자 이야기, 라이브 퍼포먼스, 인천아트플랫폼	<a href="https://youtu.be/3FgjlL4bK9g">https://youtu.be/3FgjlL4bK9g</a>	Y	2023
47	영상	신 여성독본 (新 女性讀本) A new introduction to woman	2018	3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한국어), 자막(한국어/영어)	10분	없음	콜라보레이션	없음	14 1-4 (True stories 1, Ver. 1-4), (2013-2014) 18 윤니비셀 19 콜라보레이티, 서울 (Universal collaborators, Seoul)	2019 Marginalized Histories of Korean Women, University of Mary Washington Phyllis Ridderhof Martin Gallery, 버지니아, 미국 2018 신여성 도착하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작가 제공	조영주, 김도희 협업 / 퍼포머: 김도희, 조영주, 이동주, 박성연, 이영자 외	<a href="https://youtu.be/G9QDRtHYw_g">https://youtu.be/G9QDRtHYw_g</a>	Y	2023
48	영상, 리서치	그녀와, 리듬에 맞춰 With her, to the rhythm	2018	단체널 영상, 컬러, 사운드	15분 28초	없음	콜라보레이션	없음	19 꽃가라 로맨스 (Floral patterned roman 20 미스리와 김여사 (Miss Lee and Mrs. Kim)	2021 경계에서의 신호 (서서울미술관 사전프로그램),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서울 2019 왕복 달리기, 스페이스 공존, 서울 2018 재:생, 폐산업시설 문화공간 국제교류전, F1963, 부산	작가 제공	퍼포머: 김하림(달크로즈 음악 강사) 외 신청자 가족	<a href="https://youtu.be/JcYPvDUKbVQ">https://youtu.be/JcYPvDUKbVQ</a>	Y	2023
49	설치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만큼 어려운 일 About a thing as difficult as true love can be	2019	혼합매체(석고, 레진, 종이)	300×400×270cm (가변설치)	없음	솔로	없음	21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22 입을 위의 것들 (Feathers on lips)	2019 젤리비 부인의 돋보기, 플레이스막 레이저, 서울	작가 제공	-	N	2023	
50	영상	불완전한 생활 Partly living	2019	6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자막(한국어 또는 영어)	각 1-2분	없음	솔로	없음	23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 24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	2022 끈적이는 바다, 공간 힘, 부산 2020 돈을 벌지 않는 사람들, 서울시립미술관 Sema 창고, 서울 2020 제20회 송은미술대상전,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2020 코튼 시대, 대안공간 루프, 서울 2020 오계 (五季),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서울 2019 젤리비 부인의 돋보기, 플레이스막 레이저, 서울	작가 제공	-	<a href="https://youtu.be/hUO_PaTQFdY">https://youtu.be/hUO_PaTQFdY</a>	Y	2023
51	설치	풀 타임-더블 Full time-double	2019	피그먼트 프린트, 나무	43×1000cm	없음	솔로	없음	25 아산 산재-재회 (Discrete bodies reunite) (2022) 26 살림 운동 (Caring exercise) (2023)	2020 행복이 나를 찾는다,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2019 프롬나드 런, 복합문화공간 예무, 서울 2019 젤리비 부인의 돋보기, 플레이스막 레이저, 서울	작가 제공	-	-	N	2023
52	영상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2019	단체널 영상, 컬러, 사운드	9분 57초	없음	콜라보레이션	없음	28 아카이브 31 아카이브를 위한 항해지도 45 솔로,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매뉴얼 이미지 아카이브	2021 하-하-하 하우스, 수원시립미술관 아트스페이스 광고, 수원 2020 행복이 나를 찾는다,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2019 막간극, 인사미술공간, 서울 2019 젤리비 부인의 돋보기, 플레이스막 레이저, 서울	작가 제공	퍼포머: 조영주, 안무: 송주원, 음악: 김하림, 촬영 & 편집: 이선영	<a href="https://youtu.be/-HUm200lu9g">https://youtu.be/-HUm200lu9g</a>	Y	2023
53	영상	입술 위의 깃털 Feathers on lips	2020	단체널 영상, 컬러, 사운드	10분 30초	없음	콜라보레이션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송은문화재단, 수원시립미술관	130 비백문 141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젤리비 공간과 그 경계 무장주의 장소성, 조영주의 설치 작업	2021 하-하-하 하우스, 수원시립미술관 아트스페이스 광고, 수원 2021 하나의 당김, 네 개의 눈, 공간 Type, 서울 2020 제20회 송은미술대상전,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2020 코튼 시대, 대안공간 루프, 서울	작가 제공	안무&공동연출: 이민경, 퍼포머: 곽혜은, 명지혜, 임은정, 장슬기, 촬영&편집: 이선영, 음향: 허가람, 음향 보조: 박신원	<a href="https://youtu.be/Qf1Wy4IT3as">https://youtu.be/Qf1Wy4IT3as</a>	Y	2023
54	영상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	단체널 영상, 8채널 사운드 설치, 합석 배기관, 라이브 퍼포먼스	12분 37초	없음	콜라보레이션	서울시립미술관	143 우리 작은 젤리 이야기, 차별적 성별화된 사회 146 경계에서의 예술작업 (비)무장화, (비)물질화: 조영주 작품 속 여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150 치유의 안무: 아줌마 댄스 비디오 시리즈	2023 하얀 벽의 고백, 아트 스페이스 호화, 서울 2020 제20회 송은미술대상전,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2020 16개의 기동-지붕 없는 갤러리 PS333, 금천예술공장, 서울 2020 코튼 시대, 대안공간 루프, 서울	작가 제공	작곡: 이은지, 퍼포머: 김욱(베이스 클라리넷), 서수복(타악기), 이동화(튜바), 정인현(알토 색소폰), 촬영 & 편집: 이선영, 카메라: 이정훈, 최준하, 음향: 허가람, 음향 보조: 박신원	<a href="https://youtu.be/scdPHEtv5sg">https://youtu.be/scdPHEtv5sg</a>	Y	2023
55	영상	턴 업 Turn up	2020	단체널 영상, 컬러, 사운드	12분 22초	없음	콜라보레이션	없음	154 삶에서 일어나는 반복적 기적 158 신체가 맞이하는	2020 같이 잇는 가치, 스테레오비전, 서소문성지박물관, 서울	작가 제공	이민경, 한승민 (공동제작)	Y		
56	설치	휴먼가르텐 Humangarten	2021	폴리우레탄, 스폰지, 적외선 램프	가변설치	없음	솔로	없음	164 국면들, 조영주의 매개적 퍼포먼스 170 세계 내 몸에서 온 세계로 175 아주 분 몸-함양과 조영주 퍼포먼스의 신체성	2022 미술관의 입구: 생태통로, 경기도미술관, 안산 2021 움직이지 않고 여행하기,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서울 2021 돌봄사회,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작가 제공	-	-	N	2023
57	퍼포먼스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	현장 퍼포먼스	25분	없음	콜라보레이션	없음	175 분열된 욕망, 조영주 작가의 풀 타임-더블 (Full time-double)	2021 움직이지 않고 여행하기,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서울 2021 돌봄사회,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작가 제공	안무&공동연출: 이민경, 퍼포머: 권택기, 명지혜, 임은정, 흥준기	<a href="https://youtu.be/gPsjRzykz4Q">https://youtu.be/gPsjRzykz4Q</a>	Y	2023
58	영상	꿈 빠니 Com pani	2021	단체널 영상, 컬러, 사운드	18분 6초	없음	콜라보레이션	없음	178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세 개의 숨 (Three breaths)에 대한 노트 181 정현사의 눈을 피해 솟아오르는 187 연대를 위한 경합과 교섭의 기예 인터뷰: 작가와의 대화	2022 도래할 풍경, 전주 팔복예술공장 & 제주 돌문화공원 오백장군 갤러리, 전주, 제주 2021 풀 물 몸,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서울 2021 그리고 다른 증인, 온라인 전시	작가 제공	안무&공동연출: 이민경, 퍼포머: 권택기, 명지혜, 임은정, 흥준기	<a href="https://youtu.be/I881RD2k3pY">https://youtu.be/I881RD2k3pY</a>	Y	2023
									201 작가 약력 208 필자 소개 210 크레디트						
									부록 213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약보						

연번	유형	작품명	제작연도	재료 및 기법	규격 및 재생 시간	에디션	솔로,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소장처	전시 이력	출처	추가정보	연관 자료	영상기록	기술연도
59	퍼포먼스	요내 체조 Calisthenics Yonae	2021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 단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40분, 9분16초	없음	콜라보레이션	없음	2021	작가 제공	안무: 허윤경, 퍼포머: 손주연, 음악: 한밭, 소품: 온달, 제작·기술 지원: apparat/US, 영상 제작: 더도슨트,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제작 지원	<a href="https://youtu.be/lHaVCxMByjQ">https://youtu.be/lHaVCxMByjQ</a> <a href="https://youtu.be/yZmx8Flmv30">https://youtu.be/yZmx8Flmv30</a>	Y	2023
60	퍼포먼스	진실한 관객의 제스처 A gesture of the sincere audience	2022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	45분	없음	콜라보레이션	없음	2022	작가 제공	안무: 임은정, 퍼포머: 김승록, 윤상은, 임은정, 허윤경, 부산시립미술관 제작 지원	<a href="https://youtu.be/PUa_fqxpCs">https://youtu.be/PUa_fqxpCs</a>	Y	2023
61	퍼포먼스	노란 벤자민과의 동거 Cohabiting with yellow benjamin	2022	현장 퍼포먼스	30분	없음	콜라보레이션	없음	2022	작가 제공	안무 & 공동연출: 임은정, 주연 퍼포머: 권택기, 김윤미, 명지혜, 정재우, 최규태 조연 퍼포머: 박종래, 이영자, 주혜숙, 천금단, 최군자 설치: 조영주 휴먼가르텐 2021 음악: 한밭 프로젝트 매니저: 박성연 국립현대미술관 제작 지원	-	Y	2023
62	영상	콜레레 Colere	2022	단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4분 21초	없음	콜라보레이션	없음	2022	작가 제공	안무 & 공동연출: 임은정, 주연 퍼포머: 권택기, 김윤미, 명지혜, 정재우, 최규태 조연 퍼포머: 박종래, 이영자, 주혜숙, 천금단, 최군자 설치: 조영주 휴먼가르텐 2021 음악: 한밭 프로젝트 매니저: 박성연 국립현대미술관 제작 지원	<a href="https://youtu.be/Kdmx-_z8G8l">https://youtu.be/Kdmx-_z8G8l</a>	Y	2023
63	퍼포먼스	디어 마이 아티스트 Dear my artist	2022	이원생중계 현장 퍼포먼스, 2채널 영상 설치	30분	없음	콜라보레이션	없음	2022	작가 제공	안무: 임은정, 퍼포머: 권택기, 손병준, 이슬빛나, 피아니스트: 양은철, 국립현대미술관 제작 지원	-	Y	2023
64	영상	테크네 & 뮤지케 Techne & Musike	2022	2채널 영상 설치	30분, 가변설치	없음	콜라보레이션	없음	2022	작가 제공	안무: 임은정, 퍼포머: 권택기, 손병준, 이슬빛나, 피아니스트: 양은철, 국립현대미술관 제작 지원	<a href="https://youtu.be/He-1M3ZKXqY">https://youtu.be/He-1M3ZKXqY</a>	Y	2023
65	퍼포먼스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te	2022	이원생중계 현장 퍼포먼스, 2채널 영상 설치	30분, 가변설치	없음	콜라보레이션	없음	2022	작가 제공	안무 & 공동연출: 임은정, 퍼포머: 김기영, 명지혜, 박소희, 박지현, 송영선	<a href="https://youtu.be/xWs_Q7l0aJQ">https://youtu.be/xWs_Q7l0aJQ</a>	Y	2023
66	설치	풀 타임-더블: 10월 9일 Full time-double: 9 Oct	2022	울사	110×440cm	없음	솔로	없음	2023	작가 제공	없음	-	N	2023
67	설치	진실된 이야기 1: 냉(冷) True story 1: Cold	2022	울사	160×220cm	없음	솔로	없음	2023	작가 제공	없음	-	N	2023
68	설치	진실된 이야기 1: 온(溫) True story 1: Warm	2022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40.5×32cm	없음	솔로	없음	2023	작가 제공	없음	-	N	2023
69	영상	살핌 운동 Caring exercise	2023	단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스테레오)	18분 30초	없음	콜라보레이션	없음	2023	ACC 상호작용예술 연구개발 쇼케이스, 기억하기 / 감각하기 - 경험의 공동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연구자: 신선정, 정재우, 조영주 자문: 박은정, 조영란 안무: 정재우 리허설 보조: 김효경 퍼포머: 김나운, 루킴, 송원수, 이승우, 채상근, 한승민,	<a href="https://youtu.be/6kAXLFhy74">https://youtu.be/6kAXLFhy74</a>	Y	2023

3	작가 소개
7	작가 연보
14	<b>작품해제</b> 글로벌 에일리언 (Global Alien) 프로젝트 (2006-2015)
15	원 나이트 위드 뽀원스 티셔츠 언 마이 베드 (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 (2006-2007)
16	진실된 이야기 2 (True stories 2) (2012)
17	진실된 이야기 1_Ver. 1-4 (True stories 1, Ver. 1-4) (2013-2014)
18	유니버설 콜라보레이터, 서울 (Universal collaborators, Seoul) (2014)
19	꽃가라 로맨스 (Floral patterned roman (2014)
20	미스리와 김여사 (Miss Lee and Mrs. Kim) (2017)
21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2019)
22	입술 위의 깃털 (Feathers on lips) (2020)
23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
24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
25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te) (2022)
26	살릴 운동 (Caring exercise) (2023)
28	<b>아카이브</b> 아카이브를 위한 항해지도
31	솔르,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45	프로젝트 매뉴얼
59	이미지 아카이브
130	<b>비평문</b>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젠더적 공간과 그 경계
141	무장소의 장소성, 조영주의 설치 작업
143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_차별적 성별화된 사회
146	경계에서의 예술작업 (비)무장화, (비)물질화: 조영주 작품 속 여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150	치유의 안무: 아줌마 댄스 비디오 시리즈
154	살에서 일어나는 반복적 기억
158	신체가 맞이하는 국면들, 조영주의 매개적 퍼포먼스
164	세계 내 몸에서 온 세계로
170	마주 본 몸: 협업과 조영주 퍼포먼스의 신체성
175	분열된 욕망, 조영주 작가의 풀 타임-더블 (Full time-double),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세 개의 숨 (Three breaths)에 대한 노트
178	정원사의 눈을 피해 솟아오르는
181	연대를 위한 경합과 교섭의 기예
187	인터뷰: 작가와의 대화
201	작가 약력
208	필자 소개
210	크레딧
213	<b>부록</b>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악보

프로젝트 매뉴얼

**1. 나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I'm not acceptable) (2006-2007)**  
디지털 프린트, 가변설치

**작품 소개**  
나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은 조영주가 프랑스 파리-세르지 국립 고등 미술학교에서 수학할 당시 제작되어 교내 곳곳에 포스터로 설치되었다. 동양 여성이 이방인으로서 느낀 차별, 비자 갱신 때마다 겪는 불안감을 표현한다. 타인에 의해, 혹은 스스로가 이방인으로 규정된 파리의 일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던' 순간을 1년간 수집했다.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배제 당하는 존재적 불안으로부터 출발한 작품은 작가 개인의 사적인 장면을 포착한다. 사진 속 방 안, 침대 위 같은 은밀한 장소는 학교, 공원과 같은 공공 장소에 선전을 위한 현수막처럼 대형 출력하여 설치되었다. 작품의 설치 방식은 마치 시위 운동처럼, 가장 사소한 장면으로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자 한다. 그러므로 작품 형식에서 중요한 지점은 사진 출력 용지, 인쇄 방식보다 공간에 설치되는 작품 규모 혹은 방식에 있다.

아카이브 내 작품 구성	
1	작품 이미지 디지털 파일 (수록)
구성의 사용 조건	
☞	[사진 인쇄] 설치될 공간의 사이즈를 고려하여 벽면의 1/2를 차지하는 사이즈로 출력 (최소 가로 1m의 사이즈 이상)
☞	[사진 설치 방향] 표구를 제작하지 않으며 공간 내외부 상관 없이, 대자보 (포스터) 또는 현수막의 형식으로 설치한다.
☞	대자보 (포스터) 형식일 경우, 투명, 또는 황색 박스 테이프 등으로 거칠고 빠르게 부착한다.

**솔로**

- 3 작가 소개
- 7 작가 연보
- 14 작품해제  
글로벌 애일리언 (Global Alien) 프로젝트 (2006-2015)
- 15 원 나이트 워드 퀘런스 터셔츠 언 마이 베드 (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 (2006-2007)
- 16 진실된 이야기 2 (True stories 2) (2012)
- 17 진실된 이야기 1, Ver. 1-4 (True stories 1, Ver. 1-4) (2013-2014)
- 18 유니버설 콜라보레이티브, 서울 (Universal collaborators, Seoul) (2014)
- 19 꽃가다 로맨스 (Floral patterned roman) (2014)
- 20 미스리와 김여사 (Miss Lee and Mrs. Kim) (2017)
- 21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2019)
- 22 입을 위의 것들 (Feathers on lips) (2020)
- 23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
- 24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
- 25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te) (2022)
- 26 살릴 운동 (Caring exercise) (2023)
- 28 아카이브 아카이브를 위한 항해지도
- 31 솔로,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 45 프로젝트 매뉴얼
- 59 이미지 아카이브
- 130 비평문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젠더적 공간과 그 경계
- 141 무장소의 장소성, 조영주의 설치 작업
- 143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_차별적 성별화된 사회
- 146 경계에서의 예술작업 (비)무장화, (비)물질화: 조영주 작품 속 여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 150 치유의 안무: 아줌마 댄스 비디오 시리즈
- 154 삶에서 일어나는 반복적 기억
- 158 신체가 맞이하는 국면들, 조영주의 매개적 퍼포먼스
- 164 세계 내 몸에서 온 세계로
- 170 아주 본 몸: 협업과 조영주 퍼포먼스의 신체성
- 175 분열된 욕망, 조영주 작가의 풀 타임-더블 (Full time-double)
- 178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세 개의 숨 (Three breaths)에 대한 노트
- 181 정원사의 눈을 피해 솟아오르는 연대를 위한 경합과 교섭의 기예
- 187 인터뷰: 작가와의 대화
- 201 작가 약력
- 208 필자 소개
- 210 크레디트
- 213 부록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약보

**2. 진짜일 수도 있다 (It could be real) (2009)**  
팩스, A4 용지 100장, 가변설치

**작품 소개**  
진짜일 수도 있다는 2022년 이산 신체 재회의 전신이 되는 작업이다. 작가는 직접 그린 신분증을 팩스로 송신하면서 다른 장소의 경계를 잇고자 한다. 온라인의 소통이 활발하던 2000년대 초반, 팩스는 이메일보다 신뢰할 수 있는 매개체로써 계약서, 신분증 등 중요 서류를 송수신하는 기계였다. 작가는 당시 신뢰의 매체로 기능하던 팩스를 사용해 한 국가에서 존재를 증명하는 신분증을 송신하고 수신하는 과정을 전시했다. 이는 지금 이곳에 부재한 대상이 저곳에서 존재를 확인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 이 작업에는 신분증을 복제한 드로잉, 송신과 수신을 위한 두 장소, 그리고 두 장소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매개물은 팩스와 종이로 한정되지 않으며, 당대 기술의 형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단, 매개물이 달라질 때마다 부제와 연도를 다르게 표기한다. 예) 진짜일 수도 있다 (팩스) (2009), 진짜일 수도 있다 (썸) (2023) 등

아카이브 내 작품 구성	
1	작품 이미지 디지털 파일 (수록)
2	조영주의 신분증 드로잉
구성의 사용 조건	
[기존 작업 설치의 경우]	
☞	아카이브 내 수집된 드로잉 (복제본)을 사용할 경우에는
☞	도큐멘테이션의 형식으로만 설치 가능하다
☞	작품 제목은 진짜일 수도 있다 (팩스) (2009)로 표기한다.
☞	팩스 기계 설치 시 작동여부는 무관하며, 드로잉 복제본이 팩스로부터 출력된 결과물임을 암시하는 용도로 쓰인다.
[새로 작업을 제작할 경우]	
☞	신분증 드로잉 제작을 위한 인력을 최소 3인 이상 고용할 것
☞	송신과 수신을 위한 분리된 장소 필요 (거리에 구애받지 않을 것)
☞	두 장소로 분리된 곳에서 (당대 기술 환경을 고려하여) 송신자와 수신자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 매체를 선정할 것
☞	매체에 따라 출력의 결과물도 다르게 설치될 수 있다. 예) 팩스가 아닌 실시간 영상통화의 형식으로 드로잉 이미지 데이터를 송신할 경우, 기획자의 판단에 따라 출력 방식이 아닌 모니터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형식으로 나열할 수 있다.
☞	작품 제목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진짜일 수도 있다 (매체) (작품 전시연도)
☞	수신받은 신분증 드로잉 (복사본), 송수신 기계는 전시에 필수적으로 설치한다.

3. 휴먼가르텐 (Humangarten) (2021)  
폴리우레탄, 스폰지, 적외선 램프, 가변크기

작품 소개

휴먼가르텐은 돌봄 노동의 현장을 재해석한 설치물로 구성되었다. 색 없이 하얗게 표백된 개별 설치물들은 어린이집, 요양원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충격을 흡수하는 폴리우레탄, 스폰지 소재로 제작되었다. 관객은 원통, 반원, 원형카페트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된 작품에 기대거나 앉아 실 수 있다. 물리적 접촉이 제한되던 시기, 작가는 작품을 통해 타자와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신체적 접촉의 의미를 사유하고자 했다.

이 작업은 조영주의 라이브 퍼포먼스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2021)의 무대로 사용되었으며, 이후에도 꿈 빠니 (2021), 노란 벤자민과의 동거 (2022), 콜레레 (2022) 등에서 재사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휴먼가르텐은 이안리 작가의 시계태엽 오렌지 1, 2, 3 (2023)의 재료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처럼 작업은 다른 작업을 위해 재사용되는 일종의 무대 혹은 재료의 용도로 쓰인다. 새하얀 설치물은 전시에 출품을 거듭할 수록 분비물 먼지 등으로 때가 타고 훼손된다. 하여 본 설치물은 작업의 특징상 사용감을 유지하되 일정 수준을 넘기면 폐기 후 재제작한다.

아카이브 내 작품 구성

- 1 작품 이미지 디지털 파일 (수록)
- 2 설치물 리스트 (수록)

구성의 사용 조건

- 작품은 'HTML 컬러 차트'에서 흰색 계열 4번째 코드 (#E6E6E6)를 기준으로 하며, 흰 표면 전반이 어두워질 시 폐기한다.
- 오물이 국소적으로 묻을 시에는 부분적으로 닦아 사용 가능하나 작품 전체를 개보수하지 않는다.

솔로

3 작가 소개  
7 작가 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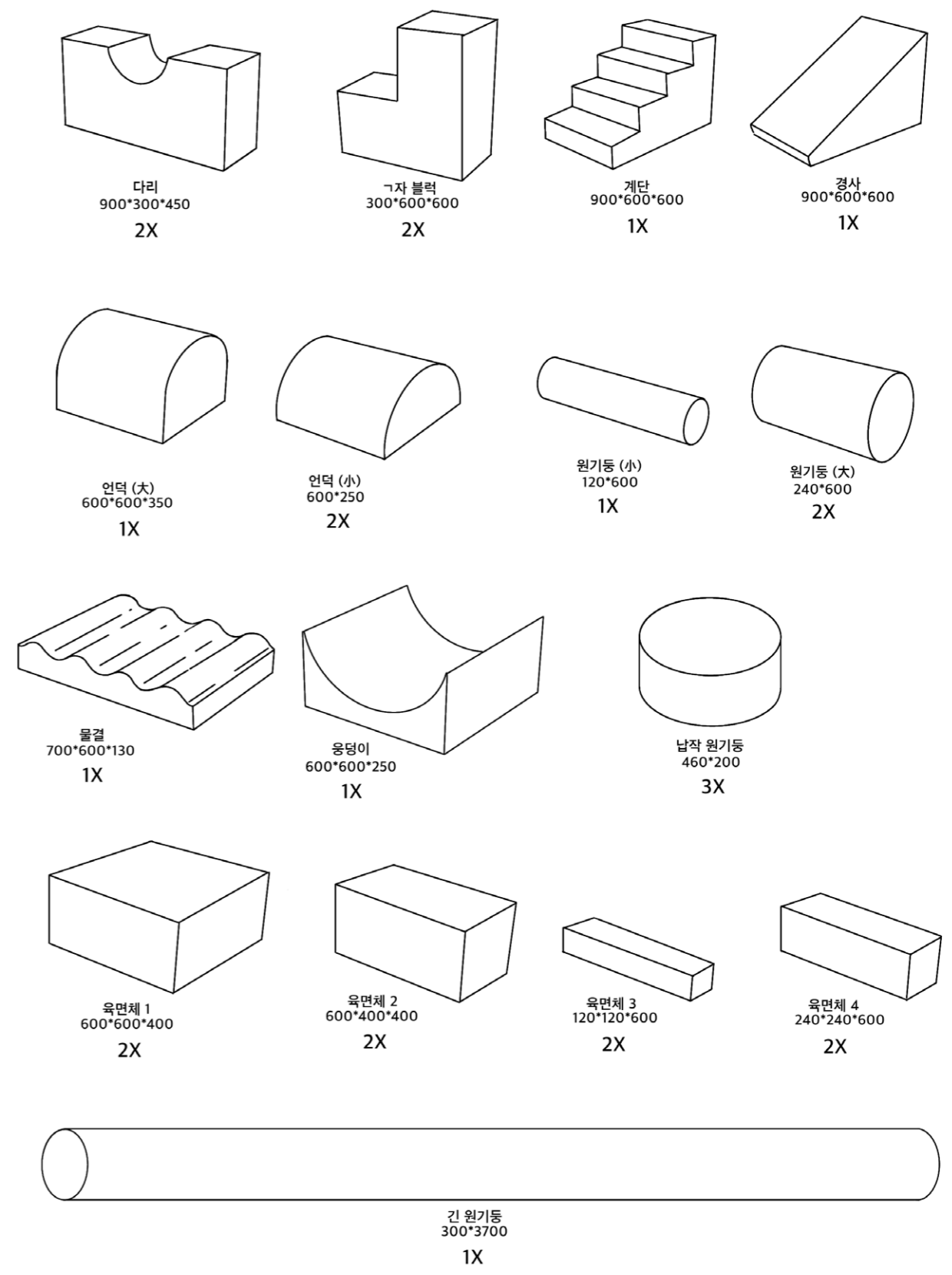
14 작품해제  
글로벌 에이리언 (Global Alien)  
프로젝트 (2006-2015)  
원 나이트 위드 필렌스 티셔츠 언 마이 베드 (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 (2006-2007)  
진실된 이야기 2 (True stories 2) (2012)  
진실된 이야기 1, Ver. 1-4 (True stories 1, Ver. 1-4) (2013-2014)  
유니버설 콜라보레이션 (Universal collaborators, Seoul) (2014)  
꽃가래 로맨스 (Floral patterned roman) (2014)  
미스리와 김여사 (Miss Lee and Mrs. Kim) (2017)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2019)  
입술 위의 깃털 (Feathers on lips) (2020)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te) (2022)  
살림 운동 (Caring exercise) (2023)

28 아카이브  
아카이브를 위한 항해지도  
31 솔로,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45 프로젝트 매뉴얼  
59 이미지 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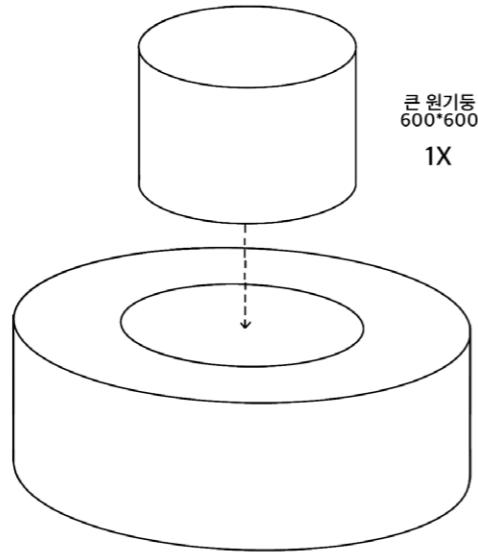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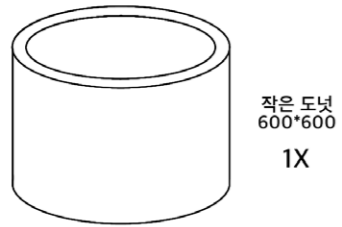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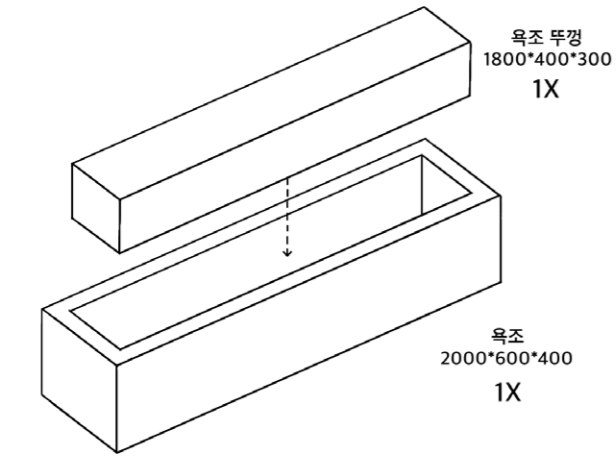
130 비평문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젠더적 공간과 그 경계  
141 무장소의 장소성, 조영주의 설치 작업  
143 우리 작은 켄디 이야기: 차별적 성별화된 사회  
146 경계에서의 예술작업 (비)무장화, (비)물질화: 조영주 작품 속 여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150 치유의 안무: 아줌마 델스 비디오 시리즈  
154 살에서 일어나는 반복적 기억  
158 신체가 맞이하는 국면들: 조영주의 매개적 퍼포먼스  
164 세계 내 몸에서 온 세계로  
170 아주 본 몸: 협업과 조영주 퍼포먼스의 신체성  
175 분열된 욕망: 조영주 작가의 풀 타임-더블 (Full time-double)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178 세 개의 숨 (Three breaths)에 대한 노트  
정원사의 눈을 피해 솟아오르는  
181 연대를 위한 경합과 교섭의 기예  
187 인터뷰: 작가와의 대화

201 작가 약력  
208 필자 소개  
210 크레디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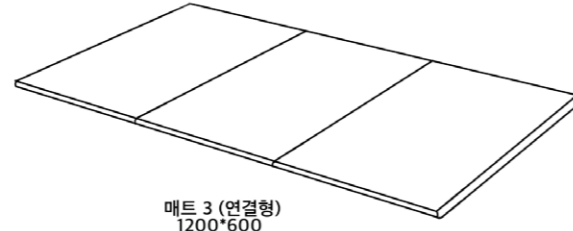
부록  
213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약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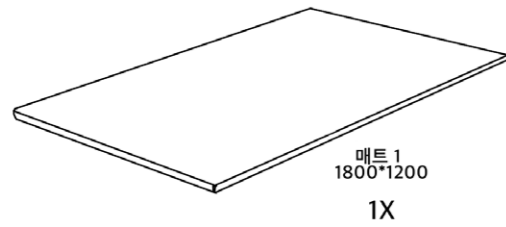
휴먼가르텐 설치물 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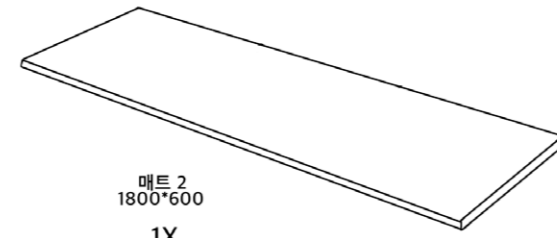
큰 도넛  
1600\*600  
1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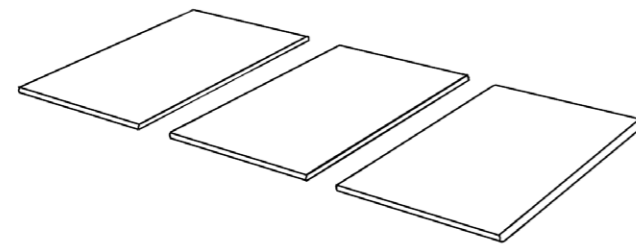
매트 3 (연결형)  
1200\*600  
3X



매트 1  
1800\*1200  
1X



매트 2  
1800\*600  
1X



매트 4 (탈부착형)  
1200\*600\*30  
3X

4. 글로벌 에일리언 (Global Alien) 작업 사용 매뉴얼

3 작가 소개  
7 작가 연보

14 작품해제  
글로벌 에일리언 (Global Alien)  
프로젝트 (2006-2015)  
15 원 나이트 위드 쉘원스  
티셔츠 언 마이 베드 (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 (2006-2007)  
16 진실된 이야기 2 (True stories 2) (2012)  
17 진실된 이야기 1, Ver. 1-4 (True stories 1, Ver. 1-4) (2013-2014)  
18 유니버설 콜라보레이션, 서울 (Universal collaborators, Seoul) (2014)  
19 꽃가래 로맨스 (Floral patterned roman) (2014)  
20 미스리와 김여사 (Miss Lee and Mrs. Kim) (2017)  
21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2019)  
22 입을 위의 것들 (Feathers on lips) (2020)  
23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  
24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  
25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te) (2022)  
26 살릴 운동 (Caring exercise) (2023)

아카이브  
28 아카이브를 위한 항해지도  
31 솔르,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45 프로젝트 매뉴얼  
59 이미지 아카이브

비평문  
130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젠더적 공간과 그 경계  
141 무장소의 장소성, 조영주의 설치 작업  
143 우리 작은 캔디 이야기\_차별적 성별화된 사회  
146 경제에서의 예술작업 (비)무장화, (비)물질화: 조영주 작품 속 여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150 치유의 안무: 아줌마 댄스 비디오 시리즈  
154 삶에서 일어나는 반복적 기억  
158 신체가 맞이하는 국면들, 조영주의 매개적 퍼포먼스  
164 세계 내 몸에서 온 세계로  
170 아주 본 몸: 협업과 조영주 퍼포먼스의 신체성  
175 분열된 욕망, 조영주 작가의 풀 타임-더블 (Full time-double),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세 개의 숨 (Three breaths)에 대한 노트  
178 정원사의 눈을 피해 솟아오르는 연대를 위한 경합과 교섭의 기예  
187 인터뷰: 작가와의 대화

201 작가 약력  
208 필자 소개  
210 크레디트

부록  
213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약보

콜렉티브 및 작품 소개

조영주가 주요 멤버로 활동한 국제 미술 그룹 글로벌 에일리언은 2006년에 출범했다. 콜렉티브는 서로 다른 국적의 작가들이 모여 유럽에서 약 10년간 활동했다. 각 작품 및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멤버들이 상이한 이유로, 글로벌 에일리언의 이름으로 진행된 작품 또는 프로젝트로 전시 출품을 제안받았을 시 해당 작품에 참여한 전 멤버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작품의 제안을 받은 작가를 일시적 담당자로 규정하고 전시 출품 형식, 사례비 등을 협의하기 위한 제안 메일을 보낸다. 한 명이라도 전시 출품을 거부한다면 작품은 전시되지 않는다. 단, 2주 내 회신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거절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여 담당자의 권한에 따라 전시 출품을 진행한다. 사례비 같은 경우 메일에 대한 회신 이후 전시 출품에 동의를 한 작가들에 한정해 지급하며, 나머지 사례비 및 추가 수익금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웹사이트 관리비로 전환하여 사용한다.

아카이브 내 작품 구성

1. 멤버 및 활동 이미지 디지털 파일 (수록)
2. 글로벌 에일리언 구성원 프로젝트 제안 이메일

구성의 사용 조건

- ☞ 개별 프로젝트에 참여한 구성원의 합의 하에 사용한다.
- ☞ 만일 콜렉티브 구성원이 작고할 경우 나머지 인원과의 협의를 한다.
- ☞ 콜렉티브 구성원이 모두 작고할 경우 글로벌 에일리언의 작업은 사진, 아카이브 등을 활용해 기록물의 형식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 ☞ 프로젝트 별로 참여 구성원의 크레딧을 필히 표기한다.
- ☞ 글로벌 에일리언의 특정 프로젝트로 전시 출품을 제안받을 시 아래 메일을 참고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한 멤버들에게 연락한다.

[이메일 예시]

과거 한 멤버가 프로젝트 제안 건으로 보낸 이메일을 참조하여 다시 씀

친애하는 동료들에게,

안녕 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최근들어 우리가 함께 했던 좋았던 옛시절을 많이 떠올리고 있어요. 다들 잘 지내시죠?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 이상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어느 한 기관에서 글로벌 에일리언의 프로젝트를 전시하고 싶다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서로 바쁜 일정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했던 작업을 다시 출품해볼 수도 있고, 우리의 이름으로 새로운 작업을 만들 수도 있어요. 만약 기존 작업으로 전시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동료 전원의 동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사례비는 모두 공정하게 나눌 예정이고, 똑같이 분배하기 어려울 시에는 차액을 글로벌 에이리언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비용으로 쓰기로 해요. 우리의 작업을 출품하는 데 거절의 의사를 여러분 중 한분이라도 밝힌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없던 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동의하지 않는다면 분명하게 메일에 회신을 주세요.

알다시피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구속력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일정과 마음의 여유가 가능한 멤버끼리 기존 작업을 새롭게 다시 진행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과거의 작업을 새롭게 업데이트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전 프로젝트의 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겠지요. 하지만 이 사안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과거 프로젝트를 전시에 출품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이 메일에 회신주길 바랄게요.

그리운 마음을 담아,

3	작가 소개
7	작가 연보
14	작품해제 글로벌 에이리언 (Global Alien) 프로젝트 (2006-2015)
15	원 나이트 워드 쉘원스 티셔츠 언 마이 베드 (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 (2006-2007)
16	진실된 이야기 2 (True stories 2) (2012)
17	진실된 이야기 1, Ver. 1-4 (True stories 1, Ver. 1-4) (2013-2014)
18	유니버설 콜라보레이티브, 서울 (Universal collaborators, Seoul) (2014)
19	꽃가래 로맨스 (Floral patterned roman) (2014)
20	미스리와 김여사 (Miss Lee and Mrs. Kim) (2017)
21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2019)
22	입술 위의 깃털 (Feathers on lips) (2020)
23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
24	인간은 버섯처럼 살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
25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te) (2022)
26	살필 운동 (Caring exercise) (2023)
28	아카이브 아카이브를 위한 항해지도
31	솔르,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45	프로젝트 매뉴얼
59	이미지 아카이브
130	비평문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젠더적 공간과 그 경계
141	무장소의 장소성, 조영주의 설치 작업
143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_차별적 성별화된 사회
146	경계에서의 예술작업 (비)무장화, (비)물질화: 조영주 작품 속 여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150	치유의 안무: 아줌마 댄스 비디오 시리즈
154	살에서 일어나는 반복적 기억
158	신체가 맞이하는 국면들. 조영주의 매개적 퍼포먼스
164	세계 내 몸에서 온 세계로
170	마주 본 몸: 협업과 조영주 퍼포먼스의 신체성
175	분열된 욕망. 조영주 작가의 풀 타임-더블 (Full time-double).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178	세 개의 숨 (Three breaths)에 대한 노트 정원사의 눈을 피해 살아오르는
181	연대를 위한 경험과 교섭의 기예
187	인터뷰: 작가와의 대화
201	작가 약력
208	필자 소개
210	크레디트
213	부록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약보

5.

입술 위의 깃털  
(Feathers on lips)

(2020)  
퍼포먼스: 최소 지름 4m, 두께  
3cm의 흰색 원형매트, 레슬링  
또는 주짓수 등 참고 영상,  
작가 (안무가) 스코어, 작가와  
퍼포머의 기억 에세이  
영상: 2020, 단채널 영상 (10분  
30초), 컬러, 사운드

안무&공동연출: 이민경  
퍼포머: 곽혜은, 명지혜, 임은정,  
장슬기 (초연), 곽혜은, 명지혜,  
임은정, 조은별 (2021, 공간  
TYPE에서 재연), 곽혜은,  
명지혜, 임은정, 양윤화 (2022,  
아트스페이스 광고에서 재연)  
촬영&편집: 이선영  
음향: 허가람  
음향 보조: 박신원

작품 소개

입술 위의 깃털에는 안무가 이민경과 공동 연출한 퍼포먼스 영상  
작업으로 4인의 여성 퍼포머가 등장한다. 운동 경기나 무용, 혹은  
레슬링의 장면을 연상케 하는 퍼포머의 움직임은 맞부딪힌 몸의  
이미지를 폭력과 에로스 사이에서 진동시킨다.  
작업은 2021년 아트스페이스 광고에서 SNS 라이브 스트리밍  
송출과 더불어 라이브 퍼포먼스로 재상연 되었다. 작가는 재상연의  
과정에서 하나의 퍼포먼스가 다르게 기억되는 방식에 집중한다.  
최초의 퍼포먼스에서 함께 했던 퍼포머, 안무가, 작가는 다시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어긋나는 지점들을 발견한다.  
퍼포머는 몸의 기억을 토대로 퍼포먼스를 수행했고, 안무가는  
자신이 짠 안무 기록을 바탕으로 퍼포먼스를 이행했다. 작가는 영상  
속 기록된 신체의 이미지를 기억하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처럼,  
하나의 퍼포먼스에서 충돌한 세 가지 다른 기억은, 퍼포먼스라는  
작품 형식이 한 작가의 이름으로 귀속되기 어려운 지점을 보여준다.

아카이브 내 작품 구성

- 1 작품 이미지 디지털 파일 (수록)
- 2 작가 (안무가) 스코어
- 3 입술 위의 깃털 (영상)에 참여한 퍼포머들의 스코어 및  
에세이 (수록)
- 4 퍼포먼스 기록 영상
- 5 레슬링, 주짓수 등의 퍼포먼스 참고 영상

구성 사용 조건

- [라이브 퍼포먼스]
- 1 퍼포머 캐스팅
    - a 명지혜 역: 30-40대 여, 현대무용 4년 전공자, 긴 머리,  
160-165cm 정도의 중간 키, 볼륨감이 있고, 바디 라인이  
부각되는 신체
    - b 장슬기 역: 20-30대 여, 배우, 긴 머리, 150-155cm 정도의  
작은 키, 마르고 왜소하며 어린이 같은 맛맛한 느낌의 신체
    - c 곽혜은 역: 30대 여, 배우 또는 무용수, 짧은 커트 염색 머리,  
165-175 정도의 큰 키, 볼륨감이 없고, 건장한 느낌의 신체
    - d 임은정 역: 20-30대 여, 현대무용 4년 전공자, 중/장  
단발머리, 170-178cm 정도의 큰 키, 볼륨감 없이 마른  
느낌의 신체
  - 2 의상 및 헤어
 

입술 위의 깃털 (영상)과 동일한 의상

    - a 명지혜 역: 베이지색 톤으로 상하의가 약간의 차이가 나는  
색감. 신축성이 있고, 주름이 잡힌 긴 바지. 차이나 컬러 또는  
라운드 단추가 몇 개 정도 달려 있는 신축성 있는 셔츠.  
직장에 다니는 아이 엄마가 입을 수 있는 옷의 느낌. 외출과  
돌봄을 겸해야 하는 기능적인 느낌. 긴 생머리를 반만 묶어  
얼굴에 머리카락이 내려오거나 닿지 않게 기능적인 느낌.
    - b 장슬기 역: 짙은 청록색 (녹색 계열의 톤 다운된 색상)의  
아주 짧은 반바지. 연한 분홍색의 반팔 라운드 티셔츠.  
티셔츠는 바지 안에 넣어서 착용. 긴 생머리를 하나로 뒤로

+ 본 아카이브 매뉴얼은 2021년 퍼포 PCS 프로젝트 (현 Practice of Collection)에서 제작한 소장 설명서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소장 설명서 작성: PCS 연구자 맹나현, 이민주)

3 작가 소개  
7 작가 연보

14 작품해제  
글로벌 에일리언 (Global Alien) 프로젝트 (2006-2015)  
15 원 나이트 워드 퀘런스 티셔츠 언 마이 베드 (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 (2006-2007)  
16 진실된 이야기 2 (True stories 2) (2012)  
17 진실된 이야기 1, Ver. 1-4 (True stories 1, Ver. 1-4) (2013-2014)  
18 유니버설 콜라보레이터, 서울 (Universal collaborators, Seoul) (2014)  
19 꽃가래 로맨스 (Floral patterned roman) (2014)  
20 미스리와 김여사 (Miss Lee and Mrs. Kim) (2017)  
21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2019)  
22 입술 위의 깃털 (Feathers on lips) (2020)  
23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  
24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g up like mushrooms) (2021)  
25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te) (2022)  
26 살릴 운동 (Caring exercise) (2023)

아카이브  
28 아카이브를 위한 항해지도  
31 솔르,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45 프로젝트 매뉴얼  
59 이미지 아카이브

비평문  
130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젠더적 공간과 그 경계  
141 무장소의 장소성, 조영주의 설치 작업  
143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_차별적 성별화된 사회  
146 경제에서의 예술작업 (비)무장화, (비)물질화: 조영주 작품 속 여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150 치유의 안무: 아줌마 댄스 비디오 시리즈  
154 삶에서 일어나는 반복적 기억  
158 신체가 맞이하는 국면들, 조영주의 매개적 퍼포먼스  
164 세계 내 몸에서 온 세계로  
170 아주 본 몸: 협업과 조영주 퍼포먼스의 신체성  
175 분열된 욕망, 조영주 작가의 풀 타임-더블 (Full time-double)  
178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세 개의 숨 (Three breaths)에 대한 노트  
181 정원사의 눈을 피해 솟아오르는 연대를 위한 경합과 교섭의 기예  
187 인터뷰: 작가와의 대화

201 작가 약력  
208 필자 소개  
210 크레디트

부록  
213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약보

7.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te) (2022)**  
이원생중계 라이브 퍼포먼스, 2채널 영상 설치, 20분, 가변크기, 2022

안무&공동연출: 임은정  
퍼포머: 김기영, 명지혜, 박소희, 박지현, 송영선  
촬영감독: 이선영  
카메라: 이선영, 이정준  
영상편집: 이선영, 김동국  
음악: 한반  
프로젝트 매니저: 박성연  
기술구현: 아파랏/어스  
프로듀서: 신진영  
코디네이터: 한수민  
음향감독: 장태순  
조명감독: 정해인  
영상감독: 모용우  
조명팀: 박석진, 정연종, 정영우  
영상팀: 안영주

작품 소개

이산 신체 재회는 이산가족 상봉, 삼풍 백화점 붕괴, 입양아 가족찾기 등 슬픔, 괴로움, 비극적 감정 상태에서 일종의 트랜스 상태로 전이되는 여성 신체의 이미지를 빌려온다. 초점 없이 망연자실한 시선,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 앉은 모습, 오열하는 얼굴, 부여잡은 가슴 등 뉴스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장면. 일종의 트랜스 (trance) 상태로 간주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은 미디어에 의해 특정한 유형의 이미지로 재현되고 있다. 트랜스는 비정상적인 각성상태로서,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채 일부 외부 자극에만 반응하는 상태다. 외부 자극에 완전히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한 통제나 재현이 불가능하다. 조영주는 작업을 통해 서사나 역사성, 일련의 의식이 배제된 트랜스 상태의 여성 신체 이미지를 라이브 퍼포먼스와 영상 이미지를 통해 관객과 공유한다. 여성을 재현하는 이미지에 이미 과다하게 노출 된 우리에게 트랜스 상태의 여성 신체 이미지는 어떠한 잔상으로 남겨질 것인지 질문하고 있다.

작업은 80년대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의 생중계방송 형식을 차용해 진행되었다. 분리된 두 공간에서 2개의 라이브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실시간 영상을 통해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퍼포먼스와 관객의 반응을 중계한다. 일부 퍼포머는 퍼포밍 도중에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도 한다. 중계 영상 시스템과 크로마키, 모션 캡처 기술을 활용하여, 각 장소에서 보여지는 영상에서는 다른 장소의 퍼포머 신체 이미지가 현장의 퍼포머 이미지와 중첩되었다가 분리되기도 한다. 작업은 통제할 수 없는 트랜스 상태의 여성 이미지를 노출시키면서 관객으로부터 구속할 수 없는 환경을 감각하게끔 유도한다. 작업의 형식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아 작업은 기록물 전시를 지양하며 라이브 퍼포먼스로만 구현된다.

콜라보레이션

아카이브 내 작품 구성

- 1 작품 디지털 이미지 (수록)
- 2 라이브 퍼포먼스 큐시트 (수록)
- 3 퍼포먼스 관련 레퍼런스 영상 링크 리스트 및 스크린샷 이미지 (세월호, 이산가족 상봉 영상 등)
- 4 스코어를 위한 퍼포먼스 구성 및 장면 묘사 기록 (수록)
- 5 안무 일지
- 6 연습 영상
- 7 안무 스코어

구성의 사용 조건

- [라이브 퍼포먼스]
- 1 라이브 퍼포먼스 큐시트와 기존 안무가의 스코어에 따라 퍼포먼스를 수행한다.
  - 2 작가가 살아있을 시에는 기존 안무 스코어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새로운 안무가를 섭외하여 안무 스코어를 작성한다.  
\* 퍼포먼스 관련 레퍼런스 영상 및 스크린샷 이미지를 참고하여 안무를 짤다.
  - 3 작가가 작고할 시에는 퍼포먼스 큐시트와 기존 안무



희망과 실패: 아메리칸 드림 조사하기 (Hope and failure: Investigating the american dream), 2011, 갤러리: 영상, 설치, 관객 참여형 설치/야외: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

3 작가 소개  
7 작가 연보

14 **작품해제**  
글로벌 에이리언 (Global Alien) 프로젝트 (2006-2015)  
15 원 나이트 위드 필립스 티셔츠 언 마이 베드 (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 (2006-2007)  
16 진실된 이야기 2 (True stories 2) (2012)  
17 진실된 이야기 1, Ver. 1-4 (True stories 1, Ver. 1-4) (2013-2014)  
18 유니버설 콜라보레이티브, 서울 (Universal collaborators, Seoul) (2014)  
19 플라타르 로맨스 (Platarr patterned roman) (2014)  
20 미스리와 김여사 (Miss Lee and Mrs. Kim) (2017)  
21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2019)  
22 입술 위의 것들 (Feathers on lips) (2020)  
23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  
24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  
25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te) (2022)  
26 살릴 운동 (Caring exercise) (2023)

28 **아카이브**  
아카이브를 위한 항해지도  
31 솔르,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45 프로젝트 매뉴얼  
59 이미지 아카이브

130 **비평문**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젠더적 공간과 그 경계  
141 무장소의 장소성, 조영주의 설치 작업  
143 우리 작은 캔디 이야기, 차별적 성별화된 사회 경제에서의 예술작업 (비)물질화: 조영주 작품 속 여성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150 치유의 안무: 아줌마 댄스 비디오 시리즈  
154 살에서 일어나는 반복적 기억  
158 신체가 맞이하는 국면들, 조영주의 매개적 퍼포먼스  
164 세계 내 몸에서 온 세계로  
170 아주 본 몸: 협업과 조영주 퍼포먼스의 신체성  
175 분열된 욕망, 조영주 작가의 풀 타임-더블 (Full time-double),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세 개의 숨 (Three breaths)에 대한 노트  
178 정원사의 눈을 피해 솟아오르는 연대를 위한 경합과 교섭의 기예  
187 인터뷰: 작가와의 대화

201 작가 약력  
208 필자 소개  
210 크레디트

213 **부록**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약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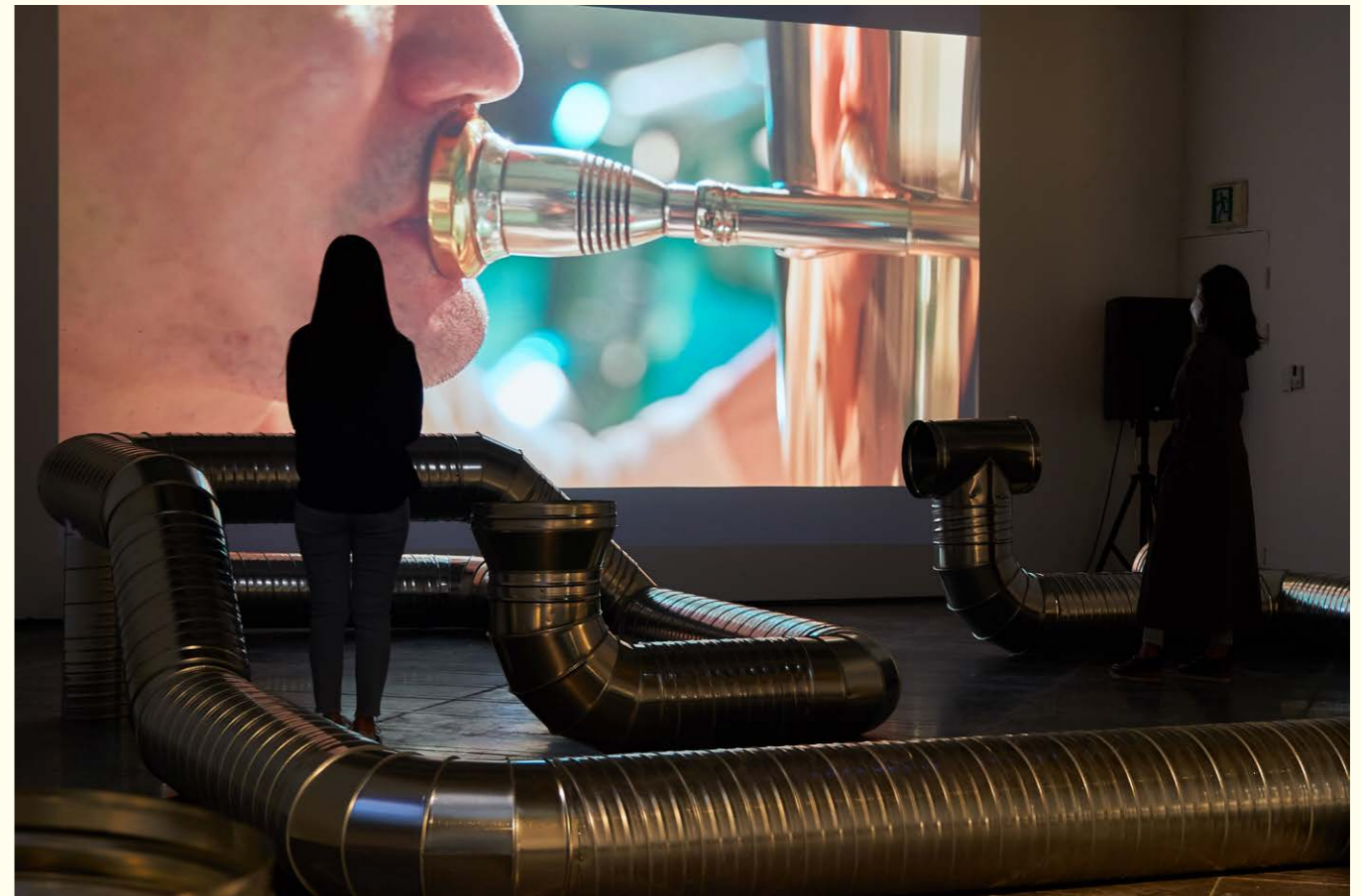


리버스 뉴욕 시티: 도시 공간에서 언어를 재점유하기 (Rebus New York city: Re-occupy language in urban space), 2012, 갤러리: 영상, 설치, 관객 참여형 설치/야외: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



입술 위의 깃털 (Feathers on lips), 2020, 단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10분 30초

3	작가 소개
7	작가 연보
14	작품해제 글로벌 에이리언 (Global Alien) 프로젝트 (2006-2015)
15	원 나이트 위드 썬원스 티셔츠 언 마이 베드 (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 (2006-2007)
16	진실된 이야기 2 (True stories 2) (2012)
17	진실된 이야기 1, Ver. 1-4 (True stories 1, Ver. 1-4) (2013-2014)
18	유니버설 콜라보레이션, 서울 (Universal collaborators, Seoul) (2014)
19	꽃가루 로맨스 (Floral patterned roman) (2014)
20	미스리와 김여사 (Miss Lee and Mrs. Kim) (2017)
21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2019)
22	입술 위의 깃털 (Feathers on lips) (2020)
23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
24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
25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te) (2022)
26	살릴 운동 (Caring exercise) (2023)
28	아카이브 아카이브를 위한 항해지도
31	솔르,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45	프로젝트 매뉴얼
59	이미지 아카이브
130	비평문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젠더적 공간과 그 경계
141	무장소의 장소성, 조영주의 설치 작업
143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 차별적 성별화된 사회
146	경계에서의 예술작업 (비)무장화, (비)물질화: 조영주 작품 속 여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150	치유의 안무: 아줌마 댄스 비디오 시리즈
154	살에서 일어나는 반복적 기억
158	신체가 맞이하는 국면들, 조영주의 매개적 퍼포먼스
164	세계 내 몸에서 온 세계로
170	마주 본 몸: 협업과 조영주 퍼포먼스의 신체성
175	분열된 욕망, 조영주 작가의 풀 타임-더블 (Full time-double),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세 개의 숨 (Three breaths)에 대한 노트
178	정원사의 눈을 피해 솟아오르는
181	연대를 위한 경합과 교섭의 기예
187	인터뷰: 작가와의 대화
201	작가 약력
208	필자 소개
210	크레디트
213	부록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약보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 단채널 영상, 컬러, 8채널 사운드 설치, 함석 배기관, 라이브 퍼포먼스, 12분 37초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 현장 퍼포먼스, 25분

3 작가 소개  
7 작가 연보

00장

14 **작품해제**  
글로벌 에이리언 (Global Alien) 프로젝트 (2006-2015)

15 **원 나이트 위드 필릭스**  
티셔츠 언 마이 베드 (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 (2006-2007)

16 **진실된 이야기 2 (True stories 2)** (2012)

17 **진실된 이야기 1, Ver. 1-4 (True stories 1, Ver. 1-4)** (2013-2014)

18 **유니버설 콜라보레이션**, 서울 (Universal collaborators, Seoul) (2014)

19 **꽃가래 로맨스 (Floral patterned roman)** (2014)

20 **미스리와 김여사 (Miss Lee and Mrs. Kim)** (2017)

21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2019)

22 **입술 위의 것들 (Feathers on lips)** (2020)

23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

24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

25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on)** (2022)

26 **살필 운동 (Caring exercise)** (2023)

아카이브

28 아카이브를 위한 항해지도

31 솔르,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45 프로젝트 매뉴얼

59 이미지 아카이브

비평문

00면 130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젠더적 공간과 그 경계

면이 141 무장소의 장소성, 조영주의 설치 작업

00면 143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 차별적 성별화된 사회

00면 146 **경계에서의 예술작업 (비)무장화, (비)물질화:** 조영주 작품 속 여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00면 150 치유의 안무: 아줌마 댄스 비디오 시리즈

이연방 154 삶에서 일어나는 반복적 기억

면이 158 신체가 맞이하는 국면들, 조영주의 매개적 퍼포먼스

이연방 164 세계 내 몸에서 온 세계로

이연주 170 아주 본 몸: 협업과 조영주 퍼포먼스의 신체성

이연방 175 분열된 욕망, 조영주 작가의 풀 타임-더블 (Full time-double),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세 개의 숨 (Three breaths)에 대한 노트

이연방 178 정원사의 눈을 피해 솟아오르는

남궁 181 연대를 위한 경합과 교섭의 기예

이연방 187 인터뷰: 작가와의 대화

201 작가 약력

208 필자 소개

210 크레디트

부록

이연주 213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약보



꿈 빠니 (Com pani), 2021, 단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18분 6초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te), 2022, 이원생중계 현장 퍼포먼스, 2채널 영상 설치, 30분, 가변설치

3 작가 소개  
7 작가 연보

작품해제

14 글로벌 에일리언 (Global Alien) 프로젝트 (2006-2015)  
15 원 나이트 위드 필원스 티셔츠 언 마이 베드 (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 (2006-2007)  
16 진실된 이야기 2 (True stories 2) (2012)  
17 진실된 이야기 1\_Ver. 1-4 (True stories 1\_Ver. 1-4) (2013-2014)  
18 유니버설 콜라보레이션, 서울 (Universal collaborators, Seoul) (2014)  
19 플라보로맨스 (Floral patterned roman) (2014)  
20 미스리와 김여사 (Miss Lee and Mrs. Kim) (2017)  
21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2019)  
22 입술 위의 것들 (Feathers on lips) (2020)  
23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  
24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  
25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te) (2022)  
26 살릴 운동 (Caring exercise) (2023)

아카이브

28 아카이브를 위한 항해지도  
31 솔르,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45 프로젝트 매뉴얼  
59 이미지 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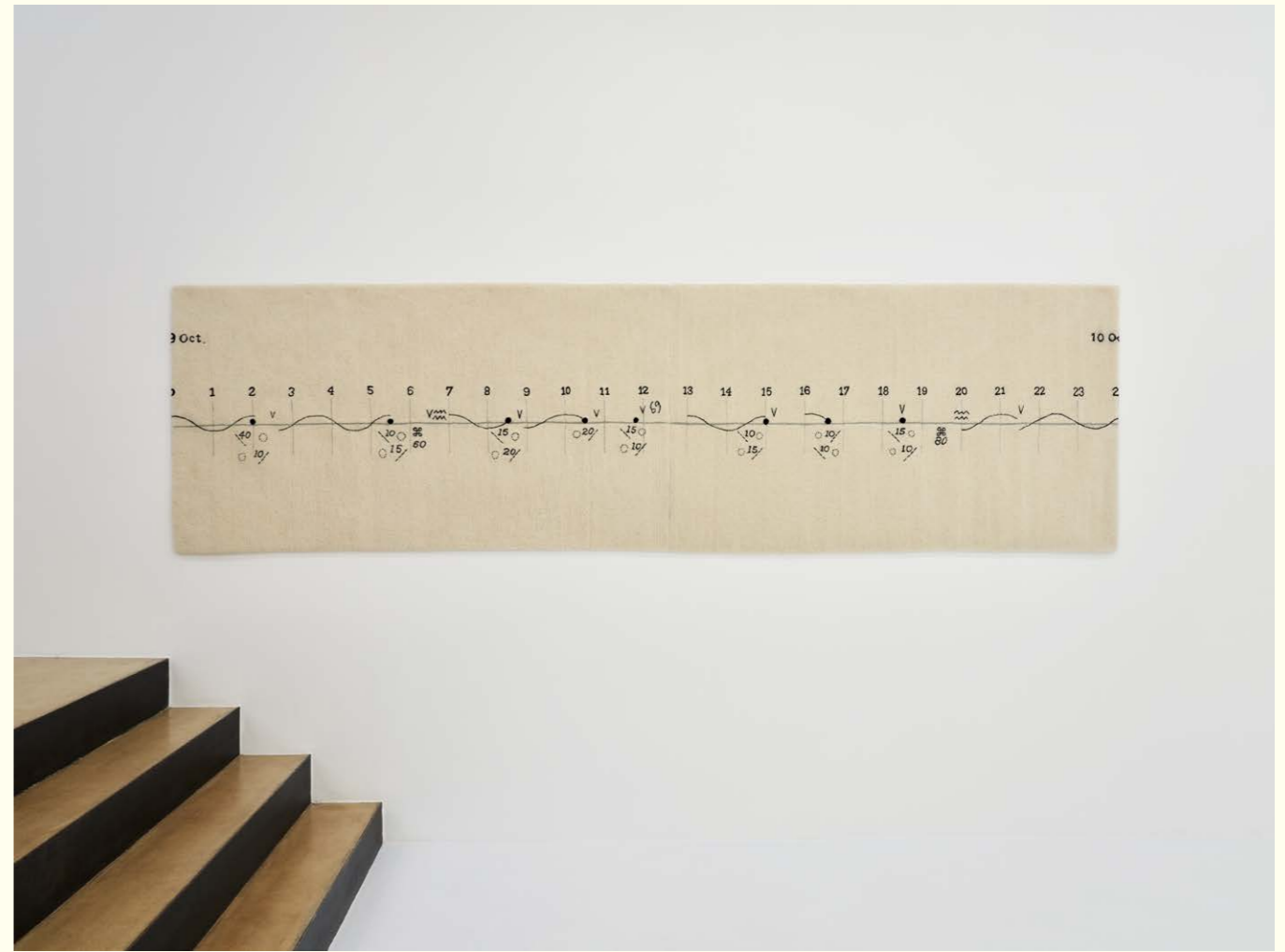
비평문

130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젠더적 공간과 그 경계  
141 무장소의 장소성, 조영주의 설치 작업  
143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_차별적 성별화된 사회  
146 경계에서의 예술작업 (비)무장화, (비)물질화: 조영주 작품 속 여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150 치유의 안무: 아줌마 댄스 비디오 시리즈  
154 삶에서 일어나는 반복적 기억  
158 신체가 맞이하는 국면들, 조영주의 매개적 퍼포먼스  
164 세계 내 몸에서 온 세계로  
170 마주 본 몸: 협업과 조영주 퍼포먼스의 신체성  
175 분열된 욕망, 조영주 작가의 풀 타임-더블 (Full time-double),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세 개의 숨 (Three breaths)에 대한 노트  
178 정원사의 눈을 피해 솟아오르는 연대를 위한 경합과 교섭의 기예  
187 인터뷰: 작가와의 대화

201 작가 약력  
208 필자 소개  
210 크레디트

부록

213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악보



풀 타임-더블: 10월 9일 (Full time-double: 9 Oct), 2022, 을사, 110x440cm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젠더적 공간과 그 경계들

- I. 여성의 몸과 경계들
  - 1) “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 2) 현대미술에서 여성의 몸, 작가의 몸
- II. 몸을 통한 관계성: 자아와 타자의 경계
  - 1) 낯선 타인과의 만남: 경계 허물기
  - 2) 중년 여성들과 함께: 우리의 몸, 우리의 영역
  - 3) ‘분신’인가 ‘타자’인가: 작가와 딸
  - 4) 또 다른 타자를 만나다: 예술가와 협업자
- III. 사적/공적 경계를 가로질러

I. 들어가는 말: 여성의 몸과 경계들

1) “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Private is political!)”라는 1960년대 여성운동이나 반문화 운동에서 자주 사용되던 캐치프레이즈이다. 이 문구는 원래 여성의 신체적 다름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안되었지만, 이후 사적 문제로 치부되던 가정 내 여성의 지위,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이 목적으로 여성 운동가들에 의하여 널리 사용되었다.<sup>[1]</sup> 집으로 대변되는 가장 개인적인 공간이나 남녀 간의 관계와 같이 사적인 문제조차도 사회적인 통념이 지배해왔다는 것이다. 물론 프라이버시 (Privacy)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만큼이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반할 수도 있는 사적인 ‘이익

추구’와 연관되어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sup>[2]</sup> 조영주의 관객 참여적인 예술, 협업을 통한 행위예술은 주로 여성의 신체로부터 출발한다. 재현의 대상으로서나 수단으로서 말이다. 2010년대 초반 작업으로부터 2010년 중반기 중년 여성들과의 협업, 2018년부터 본격화된 육아일기를 바탕으로 한 공연예술, 설치, 최근 퍼포먼스에 이르기까지 조영주는 여성에게 특수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여성의 신체적 경험을 다루어 왔다. 이를 통해서 작가는 여성 모두가 직면하게 되는 사적 영역에 대하여 질문을 던진다. 과연 여성의 신체는 여성의 사적인 영역을 논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과 의미를 지니는가?

작가는 여성의 신체나 양육, 결혼 생활, 가정폭력, 타자화된 여성의 주체 등의 문제를 그 자체로 다루기보다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 위치시킨다. 여성의 사적 영역도 결국 공적인 담론의 생성물이며,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여성 주체 또한 그를 둘러싼 타자의 존재성을 배제하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조영주의 작업에 나타난 여성의 신체, 사적인 영역도 언제나 현대사회에서 타자에 의하여 침투당하는 방식으로 재현된다. 2006-2007년 유학생 시절 조영주는 전남 파티에서 만난 외국인 남성 신체에 닿았던 티셔츠를 자신이 입고 빨아서 돌려주는 퍼포먼스 겸 기록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외국인으로서의 소외감을 상쇄시키는 방법이자 참여자의 체취와 작가의 신체가 만나게 함으로써 능동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외국인 남성과 동양인 여성의 위계질서를 전복하고 있다. 남성의 체취는 본인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타인의 사적인 신체와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2012년 귀국 후의 작업에서도 여성의 신체는 작업의 주된 테마이자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브라질의 호신술인 유술로부터 유래한 ‘주짓수’에서 부분적으로 영감을 얻은 퍼포먼스 입술 위의 깃털 (Feathers on lips) (2020)에서 신체적인 접촉은 더욱 격렬해진다. 공적인 장소에서는 가려져 있던 서로 다른 개체들의 신체적인

[2]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 대한 역사적 변천을 다룬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Michelle Sheller and John Urry, “Mobile Transformations of ‘Public’ and ‘Private’ Life,” Theory, *Culture and Society* vol. 20 no. 3 (2003), pp. 107-125.

[1] Vincent Geoghegan and Rick Wilford, *Political Ideologies: An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2014), pp. 179-208;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 대한 논쟁은 시몬느 드 보부아르 (Simone de Beauvoir)의 유명한 『제2의 성 (Le Deuxième Sexe)』 (1949)에서도 등장한다.

3	작가 소개
7	작가 연보
14	작품해제
14	글로벌 에일리언 (Global Alien)
15	프로젝트 (2006-2015)
15	원 나이트 위드 펄원스
15	티셔츠 인 마이 베드 (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 (2006-2007)
16	진실된 이야기 2 (True stories 2) (2012)
17	진실된 이야기 1, Ver. 1-4 (True stories 1, Ver. 1-4) (2013-2014)
18	유니버설 콜라보레이티브, 서울 (Universal collaborators, Seoul) (2014)
19	꽃가도 로맨스 (Floral patterned romance) (2014)
20	미스리와 김여사 (Miss Lee and Mrs. Kim) (2017)
21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2019)
22	입술 위의 깃털 (Feathers on lips) (2020)
23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
24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
25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te) (2022)
26	살필 운동 (Caring exercise) (2023)
28	아카이브
28	아카이브를 위한 항해지도
31	솔로,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45	프로젝트 매뉴얼
59	이미지 아카이브
130	비평문
130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젠더적 공간과 그 경계
141	무장수의 장소성, 조영주의 설치 작업
143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 차별적 성별화된 사회
146	경계에서의 예술작업 (비)무장화, (비)물결화: 조영주 작품 속 여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150	치유의 안무: 아줌마 댄스 비디오 시리즈
154	살에서 일어나는 반복적 기억
158	신체가 맞이하는 국면들, 조영주의 매개적 퍼포먼스
164	세계 내 몸에서 온 세계로
170	마주 본 몸: 협업과 조영주 퍼포먼스의 신체성
175	분열된 욕망, 조영주 작가의 풀 타임-더블 (Full time-double)
178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세 개의 숨 (Three breaths)에 대한 노트
181	정원사의 눈을 피해 솟아오르는 연대를 위한 경합과 교섭의 기애
187	인터뷰: 작가와의 대화
201	작가 약력
208	필자 소개
210	크레디트
213	부록
213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약보

접촉이 관객의 눈앞에서 펼쳐진다. 연장선상에서 작가가 2010년대 중년 여성을 다룬 작업에서 최근 신체적인 접촉을 다룬 퍼포먼스로 이행하게 된 배경에는 아이의 엄마로서 새롭게 타자를 수용 (용인)하는 경험을 들 수 있다. 과연 아이는 엄마의 분신인가, 독립적인 개체인가? 이 과정에서 자아와 타자,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사이의 끝없는 ‘경계 허물기’가 일어난다. ‘허물기’의 과정은 어떤 경우에는 위협해 보이기도 한다. 프로젝트의 전개 방향이나 작가의 의도를 모르는 상황에서 타자 (참여자)의 사적인 영역이 침범당하기 때문이다. 티셔츠를 빌려준 남성은 자신의 신체적 흔적을 담은 의상이 어떻게 사용될지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 자신의 부분(?)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이 공적인 영역에서 행위예술 이벤트로 관객에게 노출되기도 한다. 퍼포머의 신체는 서로 부딪치기도 하고 장시간 서로에게 기대기도 한다. 관객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는 장면이다. 여러 신체가 부딪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목격하는 것이 즐거운 경험은 아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느슨하게 짜인 각본이 없는 신체들의 접촉은 프랑수아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 (Jacques Rancière)가 비판한 전통적인 연극에서 만들어내는 스펙터클한 결론이나 일종의 메시지를 도출해내지는 않는다.<sup>[3]</sup> 서로 다른 타자들이 서로 화해한다든지 자아가 극적으로 성찰에 이르는 따위의 결론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변증법적으로 관객이 비판적인 성찰을 하게 만드는 인위적일 수 있는 거리두기도 발생하지는 않는다. 조영주의 퍼포먼스에서 특정한 메시지가 생성된다기보다는 불편하고 이상한 순간이 연출될 뿐이다. 관객 앞에서 무용가들은 독립적인 개체로서 서로 의지하기도 하지만 공격하고 반목하기도 한다.

행위예술은 작가가 연인, 동지, 엄마, 협업자들과 같은 타자와 관계를 맺어가는 수단이다. 반복적인 신체의 움직임은 작가가 자아와 타자의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방식이기도 하고 자기 수행의 목적도 지닌다. 수행성은 주제 형성과 연관된 철학 이론에서 파생하였는데, 신체를

[3] 자크 랑시에르, 『해방된 관객』, 양창렬 역 (서울: 현실문화, 2016), p. 25.

반복해서 움직이다 보면 외부에서 벌어지는 습관적인 자기-이해 (혹은 환상)가 내부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주디스 버틀러 (Judith Butler)는 여장 남자의 퍼포먼스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외형적으로 성적인 특성 (외모, 화장, 몸짓)을 반복하게 되면서 내면적으로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수행적인 행위 (performative act),” 혹은 “수행성 (performativity)”이라고 정의하였다.<sup>[4]</sup> 이는 정체성의 개념을 철저하게 자아와 외부 환경과의 상호소통을 통한 과정 중심적인 반복적인 수행의 결과로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수행적인 제스처들인 얼마만큼 조영주가 원하는 관계성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수행성이 기존의 신체와 정체성에 대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핵심적인 쟁점은 이러한 제스처가 젠더와 섹스에 관한 통념이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사이의 경계에 있어 실질적인 인식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하여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버틀러 또한 수행성이 기존의 젠더나 성에 대한 사회적인 관념을 혼동시킬 수는 있지만, 전복으로 직접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sup>[5]</sup> 그렇다면 조영주의 수행적인 대리 신체는 어떤 관계를 꿈꾸고 있는가? 작가, 퍼포머, 관객의 삼각 구도에서 어떠한 대안적 유대가 만들어지게 될 것인가?

[4] 버틀러에 따르면 수행성은 호명하는 것과 유사하게 주어진 명칭을 실행함으로써 그 이름 (정체성)이 주체를 정의하도록 하는 언어적 행위 (speech act)에 비교하고 있다. 즉 이름을 반복적이고 공적으로 호명하듯이 정체성은 반복적으로 호명되고 외부로 표현되는 수행적인 행위를 통하여 형성되고 드러나게 된다. Judith Butler,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 (New York: Routledge, 1993), p. 13; 수행적인 행위의 예로는 언어, 제스처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상징체계가 포함된다. Judith Butler, “Performative Acts and Gender Constitution: An Essay in Phenomenology and Feminist Theory,” in *Performing Feminism: Feminist Critical Theory and Theater*. Ed. Sue-Ellen Cas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0), p. 270.

[5] 버틀러는 수행성을 통해서 젠더 구분을 낫설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기존의 통념이나 효과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고도 설명한다. 대표적인 예로 남장 여자와 같이 생물학적인 구분을 넘어서 젠더 효과를 얻기하는 경우 기존의 젠더 효과를 과장하고 답습하게 되기 때문이다. Judith Butler,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 (New York: Routledge, 1993), p. 231.

그 일기의 내용 뿐 아니라 일기를 쓴 언어 자체에서 그녀가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한 이방인으로서의 관계가 드러난다. 바로 이를 통해 조영주의 작품은 그 작품이 생성되고 수행되는 장소에 대한 관계를 얻는다.

그 스크린에서 씩씩하게 걸어가는 작은 피규어처럼 조영주는 끊임없이 낯선 나라와 모국 사이를 왕래한다. 이 경험을 그녀는 접속할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Accessible, acceptable and valuable)과 모국 방문 (Visiting my motherland) 프로젝트에서 구체화한다. 알루미늄 박스는 비행사들이 기내 반입 가능한 수화물로 규격화해놓은 크기다.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이 비장소적인 가방에는 각각의 비행기 승객들의 중요한 개인적이고, 장소와 결부된 사물들이 채워지며 그 개인들에 의해 운반된다. 모국 방문에서는, 한 사람의 원초적 장소라 할 수 있는 모국 방문이 남긴 흔적으로서의 쓰레기가 여행가방 바깥으로 쏟아져나올 것 같다. 이런 작품들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세계의 이동성이 증가할수록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장소성에 대한 무장소의 관계다.

현재 이 작가 존재의 무장소성으로부터 나오는 이 작가 작품의 독특한 장소성이 시적으로 드러난 작품이 원 나이트 위드 썸원스 티셔츠 인 마이 베드 (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다. 여기서 작가는 거리나 카페에서 낯선 남자에게 말을 걸고는 그들이 입고 있는 티셔츠를 빌린다. 작가는 집으로 돌아와 그렇게 빌린 티셔츠를 입은 채 잠을 자는데, 우리가 보는 건, 다음날 아침 잠에서 막 깬 작가가 침대에 앉아있는 사진들이다. 이 사진들에서는, 이 도시에서 이방인인 작가의 신체가 타인의 티셔츠, 본래의 주인을 떠난 그 티셔츠가 하룻밤을 지내는 장소로 등장한다. 그 티셔츠는 한 신체에서 다른 신체로 이동하면서 두 신체를 연결시키고는 반납된다. 교환가능한 티셔츠가 완전히 낯선 장소들—낯선 신체들—을 하나의 관계로 이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건 티셔츠 자체가 자유롭게 이동가능하면서 한 장소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조영주 작가 자신, 곧 이방인이자 무장소적인 작가의 존재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이 삶의 조건이, 그녀 작품의 중요한 원천으로 작동하듯 말이다. 이후의 그룹 프로젝트인 티셔츠 교환하기 (Exchanging t-shirts)에서 조영주 작가는 이 원리를, 참여자의 것과 교환되는 티셔츠

위에 새겨진 이런 문장으로 요약했다. ‘We live where you live’라고. (2009)

유화정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_차별적 성별화된 사회 경계에서의 예술작업**

이분법적 (여성/남성) 성별 구분 사회 (gendered society)— 여성에겐 여성스러움을, 남성에겐 남성스러움을 요구하는—에서 그것의 해체적 행위 (undoing)에 대한 권리를 주장/옹호하는 사람들을 한국에선 소위 ‘폴페미’ (폴통 페미니스트)라 부른다. 단어의 어감에서 알 수 있듯, 적지 않은 사람들은 페미니즘에 극렬하게 반대한다.

이러한 컨텍스트에서 조영주 작가의 이번 프로젝트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는 ‘젠더 재고찰적 작품’이라는 데 상당한 의의가 있다. 그리고 하나 고백하자면, 필자는 약 3년 전 조영주 작가를 베를린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언젠가 할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다. 여성학 공부를 하고 있다는 내 짤막한 소개에 격한 반응을 보이며 논문 주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로 시작된 대화는 금세 다양한 범위로 번졌고, 인사치레라고 보기엔 너무도 집중하는 그의 열정적 태도와 빛나는 눈빛에, ‘여성학 (젠더)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라는 막연한 느낌과 함께, 젠더 문제를 예술작업으로 풀어낸 오늘의 프로젝트를 예감했던 것이다.

이 프로젝트 관련하여 우리가 대화를 처음 시작하게 된 건 약 3개월 전, 프로젝트가 초반부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과 함께 젠더 이야기를 예술활동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한다는 말을 듣고, 솔직히 처음엔 걱정이 많이 됐다. 아이들의 경우, 발달 단계의 특성상 ‘여자는 이래야 해’, ‘남자는 이래야 해’ 등의 비/가시적 사회규범을 가장 날 것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좇아 주류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어릴수록 젠더 수행성<sup>[1]</sup>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아이들과 젠더 테마로 작업을 하는 것이 성인 대상보다 오히려 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1] 젠더 수행성 (gender performativity)는 페미니스트 철학자 주디스 버틀러 [*Gender Trouble* (1990)]가 발전시킨 개념으로, 젠더라는 것은 사실상 반복적 수행을 통한 사회적으로 구성된 산물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드랙 (drag) 퍼포먼스를 한 예로 들며 설명한다.

그런데 작업의 계획서와 중간 결과물들을 공유하면서, 조영주 작가가 토로했던 어려움은 내가 예상했던 그것과는 다른 지점에 있었다. 진짜 문제는, 아이들이 이미 선생님 (조영주 작가)의 의도(?)를 알고 있다는 듯 반응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꿩꿨은 의도는 조영주 작가의 의도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아이들은 기존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들과 같은 궤도로 이번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있었으나, 사실, 조영주 작가가 의도한 바는 근본적으로 젠더에 ‘물음표’를 찍어보자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목적은—기존 교육제도에서 시간 제약의 이유로 1년에 고작 한 두시간 이루어지는 성차별/평등 ‘교육’이 아닌 (어느 정도의 교육 의도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몇 주 동안의 연속 작업 (글로, 몸짓으로, 연극으로 표현/재현)을 통해 성별화된 사회에서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고, 그 결과물을 참여 학생을 비롯한, 그들의 가족, 학교 친구들, 선생님들, 예술가 및 일반 성인 관객들이 봄으로써 함께 젠더 문제에 대해 다시 고민해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 프로젝트가 갖는 여러 의의들 중에서도 필자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동의하는 지점이다.

조영주 작가가 오산 어린이들과 함께한 예쁜, 까칠까칠한 (Pretty, prickled)(2014), 국사봉 중학교 아이들과 함께 작업한 청순한 그녀, 멋진 그 (Innocent women, handsome men) (2014) 그리고 상도동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함께 한 리틀 드라마 (Little drama) (2014) 프로젝트 영상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적 이슈들이 다뤄지는데, 큰 갈래로 쪼개어보면 세 가지 개념에서 접근할 수 있을 듯하다.

첫째, 강제적 이성애<sup>[2]</sup>. 프로젝트 영상을 보면, ‘미래의 나의 파트너 (배우자)’에 관한 상황이 나오는데, 학생들은 흥미롭게도 모두 여자는 남자 파트너를, 남자는 여자 파트너를 배우자로 상정한다. 커밍아웃한

[2] 강제적 이성애 (compulsory heterosexuality)는 아드리안 리치 [*Compulsory Heterosexuality and Lesbian Existence* (1980)]가 발전시킨 개념으로, 섹슈얼리티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사회에 의해 강제받는 것을 문제시하며, 그로 인해 이성애를 규범화하고, 동시에 비이성애 (non-heterosexuality)를 비정상화하는 사회를 비판한다.

3	작가 소개
7	작가 연보
14	<b>작품해제</b>
15	<u>글로벌 에일리언 (Global Alien)</u>
16	<u>프로젝트 (2006-2015)</u>
17	<u>원 나이트 위드 썸원스 티셔츠 인 마이 베드 (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 (2006-2007)</u>
18	<u>진실된 이야기 2 (True stories 2) (2012)</u>
19	<u>진실된 이야기 1_Ver. 1-4 (True stories 1_Ver. 1-4) (2013-2014)</u>
20	<u>유니버설 콜라보레이티브, 서울 (Universal collaborators, Seoul) (2014)</u>
21	<u>꽃가래 로맨스 (Floral patterned roman) (2014)</u>
22	<u>미스리와 김여사 (Miss Lee and Mrs. Kim) (2017)</u>
23	<u>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2019)</u>
24	<u>입술 위의 것들 (Feathers on lips) (2020)</u>
25	<u>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u>
26	<u>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u>
27	<u>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te) (2022)</u>
28	<u>살림 운동 (Caring exercise) (2023)</u>
29	<b>아카이브</b>
30	아카이브를 위한 항해지도
31	솔르,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32	프로젝트 매뉴얼
33	이미지 아카이브
34	<b>비평문</b>
35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젠더적 공간과 그 경계
36	무장소의 장소성, 조영주의 설치 작업
37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_차별적 성별화된 사회 경계에서의 예술작업
38	(비)무장화, (비)물결화: 조영주 작품 속 여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39	치유의 안무: 아줌마 댄스 비디오 시리즈
40	살에서 일어나는 반복적 기억
41	신체가 맞이하는 국면들: 조영주의 매개적 퍼포먼스
42	세계 내 몸에서 온 세계로
43	마주 본 몸: 협업과 조영주 퍼포먼스의 신체성
44	분열된 욕망: 조영주 작가의 풀 타임-더블 (Full time-double)
45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46	세 개의 숨 (Three breaths)에 대한 노트
47	정원사의 눈을 피해 솟아오르는 연대를 위한 경합과 교섭의 기예
48	인터뷰: 작가와의 대화
49	작가 약력
50	필자 소개
51	크레디트
52	<b>부록</b>
53	<u>세 개의 숨 (Three breaths) 악보</u>

타자와의 접촉이 극도로 금기시되는 시대, 최근 조영주의 작품에는 살과 살이 맞부딪히는 행위가 영상과 음악에 담긴다. 같은 체험을 원천으로 하고 있지만, 영상은 보다 직접적이고 음악은 다소간 추상적이다. 장르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양자는 상보적으로 작동한다. 전시 기간 중의 한시적 공연은 영상에 담겨 상영되기도 하고, 설치는 공연이 이루어지는 무대가 되기도 한다. 연주라는 오래된 행위예술은 악기를 곁하고 있는 설치물과 함께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 모두가 랜선 투어로도 가능 할 만큼 각 영역 간의 상호 번역은 융통성이 있다. 몸을 매개로 하는 행위는 여러 매체를 통과하면서 의미를 변환시킨다. 전시 코튼 시대 (Cotton Era)로 묶인 작업의 최초 발상은 육아라는 밀접 접촉으로부터 발생했으며, 작가는 그 원초적 경험이 휘발되지 않도록 정교한 형식화에 골몰한다. 두 육체가 맞붙어 엮치락뒤치락 하는 작품이나 관악기 연주가 등장하는 작품은 숨을 부각시킨다. 여기에서 숨은 생명이고 예술이다. 그리고 관계이다.

의사 출신의 저자 앙드레 지오르당 (Andre Giordan)의 『내 몸의 신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Mon corps, la première merveille du monde)』은 우리가 하루에 약 1만 리터의 공기를 호흡하고,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평균 잡아 50만 번 호흡한다는 통계치를 인용한다. 숨쉬기처럼 자명하게 실행되는 생리현상도 이렇게 숫자로 변환되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숨 이외에도 몸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치를 설명하는 저자의 주장은 우리의 몸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몸을 낳고, 최소한 삶의 결정적 시기 동안 생존하도록 보살피는 행위 또한 기적 아닐까. 아이가 어머니의 몸 안팎에서 상당기간 양육되는 과정은 그자체가 격세유전적인 기적이다. 조영주 또한 자신이 말아서 해야 했던 돌봄 노동의 버거움과 행복함에 대해 과학자들처럼 거리를 두고 관찰하며 기록하고 의미화 한다. 우리는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무슨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숨에 대해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 돌봄 노동에 대해서도 페미니즘이 문제제기를 하기 전까지는 숨 쉬는 것처럼 자명하고 당연한 그녀들만의 의무로 간주되었다.

동물과 달리 오랜 보호기간이 필요한 아이의 생사를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은 어머니다. 생명을 주는 자인 어머니는 그것을 거두어 갈수도 있다. 그로부터 모성, 또는 여성에 대한 이중적 이미지가 생겨난다. 어머니/여성은 자상하다/무섭다.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는 비대칭적이다. 아이에게 어머니는 신과도 같은 절대적 타자인 것이다. 어머니에게 아이 또한 임신과 보살핌의 기간 내내 자기 안의 타자나 분신과 같은 존재이다. 정신분석학과 페미니즘을 접목시킨 저자 낸시 초도로우 (Nancy Chodorow)가 『모성의 재생산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에서 강조하듯, 유아는 결코 독자적일 수 없다. 모성적 보호 없이 유아는 살아있을 수 없으며, 실제로 유아는 자신을 분리된 인간으로 경험하지 못한다. 낸시 초도로우에 의하면, 어머니와의 원래 관계는 자기 보존을 위한 것이고 리비도적 애착은 이 가운데서 발달한다. 이렇듯 모든 것을 주는 존재에 의해 유아는 전능성을 느끼며, 이러한 관계는 평생 동안 이기적인 사랑의 방식을 지속하게 한다.

여성의 돌봄 노동에 대한 것은 페미니즘 분야에서 ‘그림자 노동’ 등의 개념으로 사회학적 분석이 이루어져 왔지만, 영혼 및 육체와 관련되는 숨을 통한 접근은 특이하다. 그것은 모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조명이다. 이 세상의 모든 주의주장이 그러하듯이, 페미니즘 또한 당위만으로 설득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조영주의 색다른 시도는 의미 있다. ‘코튼 시대’라는 제목은 아이의 돌봄에 필요한 자연 섬유들을 염두에 둔 것이다. 몸 안팎에서 흐르는 것들을 닦아내며, 외계로부터 몸을 포근하고 따스하게 보호해주는 면 소재의 물건들에 상품물신주의에 특유한 성을 부여한다면 여성 아닐까. 닦아내는 행위에는 더러움과 깨끗함의 경계를 오고가는 양가성이 있다. 아이와 바깥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피부에 닿는 코튼 제품들은 영상작품 제목인 입술 위의 깃털 (Feathers on lips) 같이 민감하다. 작가는 이러한 섬세함을 운동경기나 무용을 연상시키는 보다 큰 액션으로 번역했다.

입술 위의 깃털은 몸의 일거수일투족이 계산되어 있다는 점에서, 운동경기나 무용의 방식과 다를 바 없지만, 다양한 체구와 분위기의 조합으로 대결하는 몸의 이미지는 미묘하다. 거기에는 모녀 관계부터 동성에 관계, 애무부터 폭력에 걸치는 모호한 행위들이 보는 이를 난감하게

3	작가 소개
7	작가 연보
14	<b>작품해제</b>
14	글로벌 에일리언 (Global Alien)
15	프로젝트 (2006-2015)
15	원 나이트 위드 펄러스 (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 (2006-2007)
16	진실된 이야기 2 (True stories 2) (2012)
17	진실된 이야기 1, Ver. 1-4 (True stories 1, Ver. 1-4) (2013-2014)
18	유니버설 콜라보레이티브, 서울 (Universal collaborators, Seoul) (2014)
19	꽃가래 로맨스 (Floral patterned roman) (2014)
20	미스리와 김여사 (Miss Lee and Mrs. Kim) (2017)
21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2019)
22	입술 위의 깃털 (Feathers on lips) (2020)
23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
24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
25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te) (2022)
26	살림 운동 (Caring exercise) (2023)
28	<b>아카이브</b>
28	아카이브를 위한 항해지도
31	솔르, 콜렉티브, 클라보레이션
45	프로젝트 매뉴얼
59	이미지 아카이브
130	<b>비평문</b>
130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젠더적 공간과 그 경계
141	무장소의 장소성, 조영주의 설치 작업
143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 차별적 성별화된 사회
146	경계에서의 예술작업 (비)무장화, (비)물결화: 조영주 작품 속 여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150	치유의 안무: 아줌마 댄스 비디오 시리즈
154	삶에서 일어나는 반복적 기적
158	신체가 맞이하는 국면들: 조영주의 매개적 퍼포먼스 세계 내 몸에서 온 세계로
170	마주 본 몸: 협업과 조영주 퍼포먼스의 신체성
175	분열된 욕망, 조영주 작가의 풀 타임-더블 (Full time-double)
164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178	세 개의 숨 (Three breaths)에 대한 노트
181	정원사의 눈을 피해 솟아오르는 연대를 위한 경합과 교섭의 기예
187	인터뷰: 작가와와의 대화
201	작가 역력
208	필자 소개
210	크레디트
213	<b>부록</b>
213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악보

한다. 앞서 인용한 『모성의 재생산』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전통에 따라 아이들의 성애를 말한다. 그에 따르면 아이는 처음에는 양성애적이었다가 나중에 이성애적 지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정신분석학의 가부장적 한계를 지적하는 저자는 양성애 이전의 또 다른 단계를 언급한다. 그것은 아이의 여자성애적 (gynosexual)이거나 어머니성애적 (matrisexual) 지향이다. 크리스테바를 비롯한 여성 저자들은 아이와 어머니의 시원적인 관계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여성은 타자와의 관계를 뱃속에 든 존재와도 함께 수행한다. 그래서 여성은 유아독존적 주체가 아니라 ‘과정중의 주체’ (크리스테바)로 간주된다. 이러한 모호한 주체는 양육 뿐 아니라 예술에서도 큰 몫을 차지한다.

섹슈얼리티는 특정한 성감대에 자리 잡는다. 그런데 성감대의 통로는 공격충동의 통로이기도 하다. 정신분석학은 사랑과 증오라는 모순적 감정의 동일한 기원을 말한다. 로렌초 키에자 (Lorenzo Chiesa)는 『주체성과 타자성: 철학적으로 읽은 자크 라캉 (Subjectivity and otherness: A philosophical reading of Lacan)』에서, 내가 타자 안에서 보는 것은 나 자신의 이상적 이미지인데, 이것을 나는 사랑도 하고 증오도 한다고 하면서, 나르시시즘과 공격성은 하나이자 동일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매저키즘과 사디즘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주체성과 타자성』에 인용된, 라캉의 ‘애증’에 대한 관념은 ‘박애주의자, 이상주의자, 교육자, 그리고 심지어 개혁가의 활동의 근저에 놓여있는 것’ (라캉)이 바로 공격성임을 밝힌다. 예술가도 이 대열에서 빠지면 안 되는데, 아방가르드는 가장 잘 알려진 예일 것이다. 작가도 참조하는 톨랑 바르트는 레슬링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에서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지만, 조영주의 작품은 같은 성 간의 행위이기에, 사회가 인정하기 꺼려하는 모호한 성, 즉 소수자의 섹슈얼리티를 연상시킨다.

성적 역할에 있어서의 불분명성, 그리고 성기에 집중되지 않은 몸 전체에 퍼져 있는 성욕의 교환에 대해 지배적 사회는 퇴행이나 도착이라고 분류한다. 하지만 지배적 사회가 떠받들고 있는 모성이 당사자에게는 주체와 객체의 경계를 넘나드는 모호한 상황이라는 점은 마찬가지다. 조영주는 육아의 고통만 말하지 않는다. 고통의 이면은 희열이다. 주체 안에 타자를 배태하는 임신

뿐 아니라 출산 후, 여성의 돌봄 노동 자체가 어떤 경계도 있을 수 없는 전면전이다. 작가는 육아와 예술의 유사함을 말한다. 예술이든 육아든 자신이 좋아서 시작한 것이며 물질, 정신, 마음, 몸 모든 것이 동원돼야 하는 총체적인 일이다. 그런데 총체성이 불가능한 시대에 총체성에 대한 요구는 희생과 헌신에 기댈 수밖에 없다. 물론 이 고난을 이겨낸다면 고통은 향락이 될 수 있다. 애증처럼 고통과 향락도 한 몸에서 비롯된다. 아이나 작품이나 자신의 분신이지만, 동시에 그것들은 자신만의 길을 가게 된다.

작품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또한 양가감정을 자아내는 경계 파괴가 있다. 존 케이지나 백남준의 궤적과 겹쳐지는 음악작품은 선율과 화음 같은 음악적 요소 외에, 사물과 침묵이라는 이질성을 개입시킨다. 이러한 이질성의 난입으로 생겨나는 현대 음악의 난해한 분위기를 이 작품도 공유한다. 이질적인 것은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관습을 단절시킨다. 단절을 위한 단절이 아니라, 이 간극에서 무엇인가를 생성하기 위해 경계는 허물어진다. 숨은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삶의 노고에서 면제되는 유기체는 별로 없다. 이러한 노고는 한숨을 쉬게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놀랍게도 어머니의 한숨을 따라한다. 아이의 모방행위는 자연적 존재가 아닌 사회적 인간이 되기 위한 학습이다. 언어학이나 정신분석, 특히 양자를 결합한 영역에서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비로소 인간이 된다고 본다.

사상 초유의 세계적 감염병 시대에 된서리를 맞은 공연예술의 형식을 끌어들인 것은 조영주의 작품이 밀접 접촉 없이는 인류의 재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어머니와 아기의 원초적 관계를 다루기 때문이다. 출산과 육아를 가능하게 했을 인간들 간의 내밀한 관계는 언젠가는 인류의 추억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생태계의 전망은 불확실해졌다. 요즘 우리는 그것을 무슨 추상적인 당위가 아니라, 매순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매주 단위로 발표되는 정책에 따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앉아있을 자리조차도 달라지곤 하는 촘촘한 관리의 시대에, 자연은 자연 자체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 조영주의 작품이 출발하는 육아의 체험 및 그 근간에 깔린 모성에 대한 관념과 관습 또한 거의 자연의 영역으로 간주될 만큼, 다른 문화적 분야에 비해 정체되어 있었다. 공적/사적

1.

조영주의 초기 작업들을 좋아한다. 더러 살갑고, 종종 엉뚱하고, 대개 무용(無用)한 행동들과 그 행동을 증거하는 이상하고 아름다운 사물들. 누군가가 들고 있는 비닐봉지를 찢은 사진, 그 반투명한 봉지 안에는 색색의 작은 공들이 가득 들어있다 [파리 루르멜가 77번지의 크리스마스 (1) [Christmast at the 77, rue de Lourmel, Paris (1)]] (2006-2007)). 당시 파리에서 유학 중이던 작가가 다세대 주택 입구에 설치된 트리에서 매일 조금씩 훔친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들이다. 휴리데이 시즌을 맞아 사람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도시에는 이방인들만이 남겨졌을 것이다. 돌아갈 곳이 너무 멀리 있거나, 없는 사람들. 이곳에 속하지만 속하지 않고, 떠나왔으므로 남겨진 사람들. 검은 머리의 이방인은 꽃무늬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 돌아누워서 어설픈 불어로 말한다. “Je suis pas acceptable” — 나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나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I’m not acceptable) (2006)]. 나의 존재가 받아들여지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단언. ‘받아들이고 싶다’는 불가능한 욕망에 솔직하면서도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에 분노하거나 비판하는 기색이 없는 담백한 부정.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불에서 빠져나와 크고 작은 일들을 벌인다. 밤마다 나가서 작고 알록달록한 공들을 훔치는가 하면, 크리스마스 휴가로 집을 비우는 이들의 화분을 대신 돌보아 주고 [즐거운 명절 (Happy holiday) (2007)], 몰도바 공화국의 사람들에게 ‘러브레터’를 보내 달라고 편지를 쓰는가 하면 [나는 많은 러브 레터를 받고 싶다 (I want to get a lot of love letters) (2006-2007)], 낯선 남자들에게서 하룻밤 빌려 입고 잘 티셔츠를 받아낸다 [원 나이트 워드 썸원스 티셔츠 인 마이 베드 (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 (2006-2007)].

작가는 낯선 도시에서 자신이 이방인으로서 그리고 동양인 여자로서 어떻게 규정되고 받아들여지는지를 (혹은 그렇지 않은지) 기민하게 포착하면서, 그렇게 기대되고 용인되는 바와 실체가 어긋나는 틈을 만들어 낸다. 모르는 남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옷을 벗어 달라고 요구함으로써

동양인 여자는 성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통념을 빗겨가고, 얌전히 티셔츠만 받았다가 돌려줌으로써 그 남자들이 품을 법한 하룻밤에 대한 기대를 배신한다. 그리고 이 일련의 행동으로 성적 교환의 “각본”을 비틀고,<sup>[1]</sup> 여성을 대상화하는 남성의 욕망을 전유한다. 침대에 걸터앉아 잠이 덜 깬 얼굴로 찍힌 비슷비슷한 구도의 사진들 속 조영주가 입고 있는 각양각색의 티셔츠들은 옷을 벗어 준 남자들의 성적 욕망의 환유이기 전에 그녀 자신의 다채로운 욕망을 가시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기대를 배신하고 금기를 어기는 행위에는 모종의 쾌가 있다. ‘파리 루르멜가 77번지’의 깊은 밤, 이방인 여자는 이웃의 것을 몰래 탐한다. 여자는 한 번도 그녀의 것이었던 적이 없는 것, 그 작고 반짝이는 보잘것없는 공들을 욕망한다. 밤은 하면 안 되는 행동과 할 수 있는 행동 사이의 간극으로 열린다. ‘훔치면 안 된다’와 ‘훔친다’ 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훔쳤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돌려준다’가 있다. 그녀는 행동한다. 자신의 욕망이 법의 한계 너머에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 나무에 걸린 동그랗고 빨간 것을 손안에 쥐고 싶은 욕망은 ‘말씀’ (Word)이 금지하는 것이다 — 그것을 욕망 자체로 긍정한다. 사진은 훔치는 행위가 아니라 돌려주는 행위를 기록함으로써 범법 행위를 입증하는 동시에 그 행위를 법적, 도덕적 판단이 유보된 미적 판단의 영역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킨다. 그러면서 짐짓 장난이었다고, 정말로 훔친 것은 아니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 예술일 뿐이라고 — 금지된 선을 밟았던 자리에서 한 발짝 물러난다. 이 유쾌한 절도 행각은 열외 된 이방인 소수자를 위반의 주체로 전복시킨다. 위반은 구조의 압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지만 또한 결코 그 구조에 완전히 종속되지도 않는 주체의 행위자성 (agency)을 가시화한다. 일탈과 위반의 즐거움, 그 재미와 해방감은 조영주의 작업이 모색하는 소수자 주체성의 핵심을 이룬다.

[1] “우리가 하는 행위, 우리가 수행하는 행위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무대에 도착하기도 전부터 계속되어 온 것이다. 즉 젠더는 계속 리허설이 되어 온 행위다. 각본은 그것을 활용하는 특정한 행위자/배우보다 오래 살아남지만, 또한 실제로 다시 한번 실현되고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행위자들/배우들을 필요로 한다.” Judith Butler, “Performative Acts and Gender Constitution: An Essay in Phenomenology and Feminist Theory”, *Theatre Journal*, Vol. 40, No. 4 pp. 519-531, 인용면 p. 526.

작품들은 좀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다. 거기에는 어떤 명량함이 있고 그 명량함에는 모종의 권태가 있다. 구겨진 침구와 잠에서 막 깬 멍한 얼굴. 일탈과 위반의 밤이 지나고 느지막이 일어나서 맞는 어제와 같은 오늘. 혼자서 아무 할 일도 없는 연휴. 그녀는 이웃들의 화분을 침대 밑에 줄지어 세워 두고 혼자만의 ‘해피 휴리데이’를 기념한다. 화분의 주인들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홀로 남겨진다는 것은 쓸쓸한 일이다. 그러나 이곳의 사람들이 외로움이나 행복이라는 것을 무어라 생각하고 어떻게 규정하든지 간에, 낯선 곳에서 애정으로 가꾼 나만의 작은 보금자리, 그 다정한 외로움과 쓸쓸한 행복은 그들의 말 (word)로는 포착할 수 없는 것이다. ‘혼자’란 함께가 아님을 뜻하고, 마찬가지로 ‘함께’란 혼자가 아님을 가리키지만, 그녀는 (타인들과 떨어져) 혼자이면서 (타인들의 식물들과 더불어) 함께다. 이방인이란 그런 존재들이다. 안으로 들어와 있지만 바깥에 머물고, 언제나 이곳을 구성하지만 한번도 그곳의 성원인 적 없는 자들. 작업은 언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의미(signification)에 저항하는 것, 끝끝내 포획되지 않고 빠져나오는 것을 향한다. 어떤 모순 — 혹은 이도 저도 아니면서 이것인 동시에 저것인 ‘그것 (ça)’ — 그것은 ‘Je ne suis pas acceptable’가 아니라 “Je suis pas acceptable”라고 비둘배물 써 붙이며 빠뜨린 부정사 ‘ne’처럼 부재로서 확인되거나, 구겨진 이불 틈새로 살짝 드러난 종아리와 베개 위로 빠져나온 머리칼처럼 우연히 파편으로 발견될 따름이다. 그것의 존재는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편지에 찍힌 수많은 도장들처럼 흔적으로서만 확인이 가능하며, 도착하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도착한다. 우연한 실수와 필연적 실패를 통해서만 가 닿을 수 있는 곳,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사이로 빠져나가는 틈, 주체성의 자리, 그곳은 바로 몸이다.

2.

작가는 파리에서 베를린을 거쳐 서울로 돌아온다. 그러나 다시 돌아온 이곳에서도 여전히 이방인인 자신을 발견한다. “2012년 한국에 급작스럽게 들어와 가족들과 가까이 살게 되었고, 지난 10년 동안 보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되었다. 나의 어머니, 외할머니, 여동생, 그 밖의 가족들의 삶을 보며 두려움이 생겼다. 유럽에서는

일정 부분 한국의 규범이나 사고에서 벗어나 작가로 자유롭게 활동하며 앞으로도 훌륭히 내 일을 해낼 거라는 꿈을 가졌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자 많은 부분이 좌절되었고 나의 미래도 내 어머니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sup>[2]</sup> 이 땅에서 30대 후반의 여성 예술가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내가 나로 살아가는 일이 요원해지고 나의 욕망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방인 아닌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 파리의 이방인이 ‘사진적인 (photographic)’ 방식으로 — 사진 매체를 주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직접 행한 다음에 그러한 행동이 “거기 있었음 (avoir-été-là)”을 증거한다는 의미에서<sup>[3]</sup> — 자신의 소수자 정체성과 주체성을 문제 삼았다면, 이제 그녀는 같은 문제를 ‘수행적인 (performative)’ 방식으로 풀어간다. 그녀는 더 이상 각본에 반 (反)하는 ‘행동 (action)’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각본대로 ‘연기하고 (act)’ 수행한다 (perform). 아름다운 인연 (A beautiful match made in heaven) (2013)에서 유니버셜 콜라보레이터, 서울 (Universal collaborators, Seoul) (2014)로 이어지는 작업에서 유희(play)는 그 자체 ‘작품’의 형식이 된다. 조영주는 ‘조은경’으로 분하여 결혼정보회사에 전화를 건다. 은경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다고 하고, 결혼의 전문가는 사랑을 하려면 “급이 맞는” 남자를 만나야 한다고 말한다 (아름다운 인연). 통화는 ‘실제 (real)’ 상담을 녹음한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장난 전화’인 한에서 진짜(real)가 아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가 이름과 신상을 속이는 줄 모르는 채 진지하게 상담이 진행되고, 대화는 한 편의 드라마를, 시쳇말로 ‘웃긴데 안 웃긴’ 블랙코미디를 빚어낸다. 드라마의 내용은 시시하고 뻔한 것이다. 그러나 연극은 내용이 다가 아닌 법. 이 연극 아닌 연극의 재미는 각본의 내용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탁월하게 소화하는 두 ‘배우’의 ‘연기’로부터 나온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각자의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서

[2] 조영주, 「이문정과 조영주 작가와 대화」, 『리포에틱』, 2021. http://www.leepoetique.com/default/OnTheScene/OTS21.php 202106.14. 접속일 2022.03.22.  
[3] Roland Barthes, *La chambre claire: note sur la photographie*, Gallimard, 1980; 롤랑 바르트, 『밝은 방: 사진에 관한 노트』, 김웅권 옮김, 문문선, 2006.

3 작가 소개  
7 작가 연보

14 작품해제  
글로벌 에이리언 (Global Alien)  
프로젝트 (2006-2015)  
원 나이트 워드 썸원스 티셔츠 인 마이 베드 (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 (2006-2007)  
진실된 이야기 2 (True stories 2) (2012)  
진실된 이야기 1, Ver. 1-4 (True stories 1, Ver. 1-4) (2013-2014)  
유니버셜 콜라보레이터, 서울 (Universal collaborators, Seoul) (2014)  
꽃가루 로맨스 (Floral patterned roman) (2014)  
미스리와 김여사 (Miss Lee and Mrs. Kim) (2017)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2019)  
입술 위의 것들 (Feathers on lips) (2020)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on) (2022)  
살필 운동 (Caring exercise) (2023)

18 아카이브  
아카이브를 위한 항해지도  
솔로,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매뉴얼 이미지 아카이브

130 비평문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젠더적 공간과 그 경계  
무장소의 장소성, 조영주의 설치 작업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 차별적 성별화된 사회  
경계에서의 예술작업 (비)무장화, (비)물결화: 조영주 작품 속 여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치유의 안무: 아줌마 댄스 비디오 시리즈 살에서 일어나는 반복적 기억  
신체가 맞이하는 국면들, 조영주의 매개적 퍼포먼스 세계 내 몸에서 온 세계로  
마주 본 몸: 협업과 조영주 퍼포먼스의 신체성

175 분열된 욕망, 조영주 작가의 풀 타임-더블 (Full time-double)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세 개의 숨 (Three breaths)에 대한 노트  
정원사의 눈송 피해 솟아오르는 연대를 위한 경함과 교섭의 기애  
인터뷰: 작가와의 대화

201 작가 약력  
208 필자 소개  
210 크레디트

부록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악보

돌봄의 상대성뿐만 아니라 노동이라는 문제에 다양한 방식으로 가닿으면서 세계를 매개하고 있는 일반적인 구조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자본주의라는 매개.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뀐다. 자본주의에서 돌봄이란 무엇인가? 왜 자본은 사람들을 돌보는가? 인간성에 대한 낙관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으나, 아쉽게도 자본주의에서 돌봄을 제도화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인구를 유지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서이다. 돌봄 노동은 그 자체로 착취가 발생하는 노동이면서 동시에 착취의 굴레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메타 노동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휴먼가르텐에서 펼쳐지는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를 영상으로 매개한 영상의 제목이 곰 빠니 (Com pani)라는 점은 유의미하다. ‘곰 빠니’는 영어 ‘company’, 그리고 프랑스어에서 비슷한 위상을 지니는 ‘compagnie’를 연상시키는데, 그 말은 라틴어로 “함께 빵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companio’를 어원으로 가진다. 잘 알려져 있듯 ‘com-’ 은 ‘함께’를 뜻하고, 뒷 부분은 라틴어에서 ‘빵’을 뜻하는 ‘panis’에서 파생되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빵을 의미하는 그 낱말을 파생시킨 조어(祖語)의 차원에서 ‘pā-’는 ‘먹이다’, 혹은 ‘지키다’라는 뜻을 가진다. 함께 먹이고 지키는 사람들의 무리.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그 낱말은 자본과 동일시되는 회사를 뜻하는 말이 되어있다.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함께 서로에 의지하여 서로를 먹이고, 지킨다.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구조는 착취를 수반한다. 다른 방식의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전체주의의 위험성이 도사린다. 이렇게 공동은 애초에 양가적이고, 역설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교착을 돌파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여기에서 조영주가 붙인 또 다른 제목인 휴먼가르텐을 돌아본다. 그것은 독일어로 유치원을 뜻하는 킨더가르텐 (kindergarten)을 연상시키는 제목이다. 말 그대로 어린이의 정원. 독일의 유아교육학자 프뢰벨 (Friedrich Fröbel)이 19세기에 제안한 것인데 아직도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아이들의 본성 (자연)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정원사가 식물의 본성에 따라 물과 비료를 주고 햇빛과 온도를 고려하며 가지치기를 해주듯이, 교육자도 아이들이 본성에 따라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정원이라는 것은 애초에 자연 (본성)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로 통제된 자연이다. 극도로 인간화된 자연으로서의 정원이 있다. 그곳에서 인공과 자연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휴먼가르텐의 퍼포먼스가 시작되면 퍼포머들은 마치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인다. 서로 말 한마디 없이 역할을 나누어 움직이고, 주어진 신체의 제약 또한 몸을 실제로 묶지 않고 약속을 따라 수행한다.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은 픽션으로 통제된 상황이고, 심지어 그 인간 정원 속 인간들이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다시 돌아와 겨우 몸을 누이는 곳은 퍼포먼스를 가장 처음 시작한 지점이다. 그것은 위에 언급한 영속화된 노동과 재생산의 굴레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다시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의 시공간으로 돌아가 보자. 그것은 철저히 연출된 퍼포먼스이면서 동시에 물질들과 몸짓들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있는 구성이다. 구부정하게 땅바닥과 천장을 연결하고 있는 기둥이 약속되지 않은 시간에 와지끈 무너지거나, 정해진 순서와 다르게 퍼포머가 넘어져 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물론 관객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내가 본 공연에서 진짜 사고가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정원의 역능은 바로 그런 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닐까. 아무리 통제하려고 해도 정원사의 눈을 피해 정원 한구석에 피어오르고 있는 버섯. 매일 같이 잡초를 뽑아도 어딘가에서 날아와 꽃을 피우는 데이지 한 송이 같이. 작지만 통제되지 않고 솟아오르는 힘. 굴레에서 순간적으로 벗어나는 그 미미한 튀어오름.

이 글은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2021년 결과보고서에 수록되었습니다.

(2022)

3	작가 소개
7	작가 연보
14	작품해제 글로벌 에이리언 (Global Alien)
15	프로젝트 (2006-2015) 원 나이트 워드 필월스 티셔츠 언 마이 베드 (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 (2006-2007)
16	진실된 이야기 2 (True stories 2) (2012)
17	진실된 이야기 1, Ver. 1-4 (True stories 1, Ver. 1-4) (2013-2014)
18	유니버설 콜라보레이터, 서울 (Universal collaborators, Seoul) (2014)
19	꽃가래 로맨스 (Floral patterned roman) (2014)
20	미스리와 김여사 (Miss Lee and Mrs. Kim) (2017)
21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2019)
22	입술 위의 것들 (Feathers on lips) (2020)
23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
24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
25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on) (2022)
26	살필 운동 (Caring exercise) (2023)
28	아카이브 아카이브를 위한 항해지도
31	솔로,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45	프로젝트 매뉴얼
59	이미지 아카이브
130	비평문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젠더적 공간과 그 경계 무장소의 장소성, 조영주의 설치 작업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 차별적 성별화된 사회 경계에서의 예술작업 (비)무장화, (비)물결화: 조영주 작품 속 여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141	단어지
143	조영주 작품 속 여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150	주요인 치유의 안무: 아줌마 댄스 비디오 시리즈
154	연대문 살에서 일어나는 반복적 기억
158	단어지 신체가 맞이하는 국면들, 조영주의 매개적 퍼포먼스
164	단어지 세계 내 몸에서 온 세계로
170	단어지 마주 본 몸: 협업과 조영주 퍼포먼스의 신체성
175	단어지 분열된 욕망, 조영주 작가의 풀 타임-더블 (Full time-double)
178	단어지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세 개의 숨 (Three breaths)에 대한 노트
181	남문 정원사의 눈을 피해
187	단어지 연대를 위한 경험과 교섭의 기예
201	단어지 인터뷰: 작가와의 대화
208	작가 약력
210	필자 소개
210	크레디트
213	부록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악보

## 남문 연대를 위한 경험과 교섭의 기예

표백된 빛으로 가득한 전시장에는 울사로 직조한 카페트 오브제가 벽과 바닥에 배치되어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전시장 바닥 카펫 위에 주황빛 얼룩이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조금씩 누렇게 얼어지는 자국은 바깥으로 드러나선 안 될 수치스럽고 더러운 배설물이자 비체로 취급되어온 생리혈을 떠올리게 한다. 2023년 초 원앤제이갤러리에서 조영주 작가는 이안리 작가와 함께 2인전 오렌지 잠 (2023)에 참여했다. 전시 이름으로부터 영감을 조금 발휘한다면, 오렌지빛 얼룩은 위생의 규범으로 점철된 현실에서 지우거나 감춰야 하는 것을 전면에 방치함으로써 드러낸 내피(內皮)의 세계, 의식의 배면으로서 ‘잠의 세계’일 것이다. 진실된 이야기 1: 냉(冷) (True stories 1: Cold)을 제목으로 달고 있는 작품은 같은 제목의 ‘온(溫)’으로 연결된다. 곧장 벽에 붙은 작은 사진에서 작가는 여성으로 보이는 작은 인물을 안고 그보다 조금 큰 인물에게 어깨를 내어주며 나란히 앉아있다. 얼룩진 카펫에 맨몸을 걸치고 앉아서 찍은 사진은 생리혈의 알리바이를 보충한다. 카펫을 오염시킨 핏빛 자국도 그렇거니와, 아이와 성인 여성이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은 출산과 모성, 양육의 궤적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맞은편 벽에 배치한 또 다른 카펫 작업 풀 타임-더블: 10월 9일 (Full time-double: 9 Oct)은 예의 시나리오를 악보로 시각화한다. 한 시간 단위로 마디를 끊어 하루 동안의 용적을 갖는 악보가 카펫 가운데를 가로지른다. 악보에는 아이를 재우고, 젖먹이고, 배설시키는 시간을 기호로 변환시켜 표시된다. 쉴 틈 없는 양육과 육아를 행위로 구분하고 질서로 조율해낸 악보는 비체로서 몸으로부터 상호연루와 돌봄을 함축한 일종의 DNA 지도에 가깝다.

세 개의 작업을 다시 연결해보자. 생리혈 자국은 여성 몸에서 발생하는 변화의 흔적으로 수렴하지 않으며, 재생산을 위한 제도적 도구로도 온전히 동원되기를 거부하며 출현한다. 수치와 혈벗음의 흔적은 의식과 몸의 변화 사이에서, 규범화된 위생과 배설물 사이에서, 나와 당신 사이에서 벌어지는 긴장과 불화로부터 리듬을 맞추고 둘 사이 협상과 협력의 악보를 다시 그리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는 악보를 띄워내는 발화점이자, 동시에 악보를 통해 다시 설명되는 몸의 얼룩, 좀 더 정확하게는 정기적인 시간성을 갖고 발생하는 리듬이다. 그것은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몸의 시간을 시야로 추상화하는 동시에, 카펫을 활용함으로써 추상화된 시각적 체험을 촉각적으로 감각하게 한다.

생리혈 얼룩과 누드사진, 악보의 상호보완적 관계는 그간 조영주 작가가 일궈온 작업을 함축하고 있지는 않을까. 여기에는 제 몸에 구획된 의미뿐 아니라 불가역적 몸의 변화를 살피는 시도가, 동시에 타인과 사회 규범, 몸 사이에 벌어지는 관계의 리듬을 맞추고 문법과 조율하는 시도가 전제된다. 이러한 조율은 작업 과정에서 이뤄지는데, 협업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과정도 그렇거니와 작가의 공적 활동과 일상 사이에 놓인 긴장과 불화를 다루는 작업의 배경이자 조건이지만, 그 자체로 작업의 주제가 되기도 한다.

이 글은 작가가 어떤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주도권을 확보하는지, 무엇을 주도하려는 것인지, 어떤 이유로 주도권을 계속 쥐고자 하는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없다면 무엇이 개입해서인지, 그럼에도 어떤 방법론을 고안하면서 주도권을 수복하는지, 그것이 이전의 주도권과 어떻게 다른 위상도 갖는지 살핀다. 이는 근대의 독립적 주체보다는 관계 지향적이며, 한계를 인지하면서도 한계의 형식을 갱신해나가는 것에 가깝다. 그것은 씨름과 같이 힘과 힘이 서로 겨루는 상황을 연상시키는데, 주지할 점은 작가는 살바에 힘을 놓는 법이 없어 보임에도 그것이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미끄러짐을 기록하고 연출하며 주도권 확보하기

작가의 초기 작업은 메시지의 수신과 발신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연성과 불완전성이 어떻게 개입하는가에 주목한 듯 보인다. 이는 관계의 궤적을 그리되, 미끄러지고 어긋난 형식을 윤곽으로 삼는 것에 가깝다.

2000년대 중반 작가는 몇 가지 실험을 진행했다. 그는 몰도바 사람들에게 러브레터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고, 그중 잘못된 주소 (의도한 것일까)로 인해 반송되는 일이 있었다. 봉투에 날인된 우편 도장은 실패의 구체적인 경로를 가늠케 한다. 나는 많은 러브 레터를

당신과 하나가 될 수 없지만 홀로 설 수 없다. 그것은 돌봄이 필연적으로 함의하고 있는 난잡함을 드러내고, 의존적이고 주변적으로 표현되었던 언저리의 존재를, 여성적 존재를, 아니 그보다는 비남성의 질서를, 텅 빈 기표들의 강렬한 연결을 해석적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한다. 공허한 맥락 위에 진폭을 넓히는 행위들은, 비어 있는 기표 자체로서 몸을 드러내며 서로 다른 차원의 시간과 공간 사이에 놓인 긴장의 임계점을 높인다.

연출자로서 작가는 개인을 통제하고 우연성을 관리하는 동시에, 이를 영상으로 편집하며 다시 한번 주도권을 확보해왔다. 초기에 작가 개인이 놓인 사회적 위계와 위상으로부터 비평적인 방법론을 고안한다면, 그는 대상의 방향을 타인에게 옮겨 그의 영역에 들어가 협업을 수행한다. 모델과 작가, 주체와 대상이 비교적 확실했던 작업은 이내 작가의 임신과 양육으로 주변 상황이 달라지는 가운데 예의 관계성을 내적으로, 추상적 층위로 옮긴다. 상황 자체에 개입하기보다 상황이 놓인 현실로부터 배제되거나 후 순위로 밀려난 욕망과 꿈에 착안하여 동작을 구상하고 무대를 구성한다. 구체적인 지역과 인종, 집단의 맥락은 몸의 표현으로 다시 쓰인다. 그 안에서 작가는 협상력을 선점하기 위한 쟁투를 작업적 형식으로 재창안한다. 주변적 정체성의 위상을 갖고 우연성에 노출되는 중에도 주도권을 조정하는 과정은 영상기록과 편집 장치를 바탕으로 잡음과 일탈을 가지 치고 소거하여 매끈하게 만들거나 현장의 위상과 다른 무게를 부여하는 사후작업을 전제한다. 현실과 무대의 불완전한 주체라는 관점 저편에, 전지적으로 기록과 편집의 권한을 확보하는 온전한 작가의 이중적 관점이 있는 셈인데, 어찌면 작가는 타인과 협업뿐 아니라 작업공정에 상이하게 분기하는 관점들끼리도 경합하는 것이 아닐까.

이 글은 협업을 하며 일상을 공유할지라도 재현적 거리를 다변화하는 작업의 공정을 살바싸움으로 부르기를 제안하며 기술한다. 그것은 살바를 서로 쥐고 힘겨루기를 하는 형상을 떠올리게 하지만, 동시에 살바를 쥐고 있는 닫힌 공간—모래밭으로서, 링으로서 경기장이자 무대—을 한정한다. 그의 작업은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토록 갈급하고 긴장하며 감정적 진폭을 높이는 배경이 무엇인가를 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앞서 오렌지

잠에서 양육과 경력단절, 자식과 어머니의 연결과 분리, 피 흘리는 몸을 둘러싼 혐오와 통제의 태도들에 대한 것임을 가늠하며 다시 연결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가 전개해온 작업이 주도권의 완급조절을 하는 것이라 한다면, 작업 바깥의 맥락은 어떻게 온전히 설계한 작업의 무대에 개입시킬 수 있을까. 이는 비판적 주도권을 위한 또 하나의 갱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덧

원앤제이갤러리에서 조영주작가의 작업은 다른 곳에서 다시 등장한다. 함께 전시에 참여한 이안리 작가는 조영주작가의 휴먼가르텐 (2021)을 질료이자 소재로 삼아 작업한다. 근래 진행한 퍼포먼스에 배경이자 장치로 활용했던 오브제들을 개별의 실존성을 확보한 조각으로 재창안한 것이다. 움직임 속에 언급되지 않았던 인간의 역동을 담은 정원의 소품들은 제 스스로 서기 위해서는 작가가 제 의도성과 조형적 주도력을 양보할 수밖에 없다. 하여 시계태엽 오렌지1, 2, 3, 블랙 비너스와 아르카익 프룻에서 조영주의 이름은 캡션의 참조란으로, 배경으로, 어찌면 잠의 세계로 물러난다. 아니, 소재 또한 온전히 서지는 못한다. 이안리 작가에 의해 재배치되고, 구멍이 뚫려 다른 소품들과 섞이고, 마르고 썩어가는 오렌지들을 올려놓는다. 배후에서 소재가 되는 것 또한 그에게 필요한 역할이라 한다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일까. 그보다는 그가 주도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소극적이고 타인의 리듬을 맞춰내며 소재로서 이름을 올리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마다하지 않는 것이 역설적으로 주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살바싸움의 언어로 다시 이야기하면, 기술을 걸기 위해 자신의 빈틈을, 취약한 지점을, 제 작업들과 몸을 내어주는 것으로 바꿔말할 수 있겠다.

(2023)

3 작가 소개  
7 작가 연보

14 작품매체  
글로벌 에일리언 (Global Alien)  
프로젝트 (2006-2015)  
원 나이트 워드 썸원스 티셔츠 인 마이 베드 (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 (2006-2007)  
진실된 이야기 2 (True stories 2) (2012)  
진실된 이야기 1, Ver. 1-4 (True stories 1, Ver. 1-4) (2013-2014)  
유니버설 콜라보레이티브, 서울 (Universal collaborators, Seoul) (2014)  
꽃가루 로맨스 (Floral patterned roman) (2014)  
미스리와 김여사 (Miss Lee and Mrs. Kim) (2017)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2019)  
입술 위의 것들 (Feathers on lips) (2020)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on) (2022)  
살필 운동 (Caring exercise) (2023)

28 아카이브  
아카이브를 위한 항해지도  
31 솔트,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45 프로젝트 매뉴얼  
59 이미지 아카이브

130 비평문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젠더적 공간과 그 경계  
무장소의 장소성, 조영주의 설치 작업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_차별적 성별화된 사회  
경계에서의 예술작업 (비)무장화, (비)물질화: 조영주 작품 속 여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150 자유의 안무: 아줌마 댄스 비디오 시리즈  
154 살에서 일어나는 반복적 기억  
158 신체가 맞이하는 국면들, 조영주의 매개적 퍼포먼스  
164 세계로  
170 아주 본: 협업과 조영주 퍼포먼스의 신체성  
175 분열된 욕망, 조영주 작가의 풀 타임-더블 (Full time-double),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세 개의 숨 (Three breaths)에 대한 노트  
178 정원사의 눈을 피해 솟아오르는 연대를 위한 경합과 교섭의 기억  
181 인터뷰: 작가와의 대화  
187 작가 약력  
208 필자 소개  
210 크레디트

213 부록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약보

이문정 작가와의 대화<sup>1</sup>

이하 이문정(이), 조영주(조)

이 육체가 지속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만으로도 조영주의 작업이 흥미로웠다. 페미니즘적으로만 읽히지는 않지만, 페미니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작업이다.

조 그동안 나의 활동을 되돌아보면 몸에 대한 관심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고등학교 때는 마당극이나 탈춤을 하는 민예반, 대학생 때는 극회 (연극반) 활동을 했다. 대학 입학 후 입시 미술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아카데미한 미술을 배웠기 때문에 미술보다 극회 활동이 더 재미있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프랑스 유학 시절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무용을 배우는 워크숍에 3년 정도 참여했다. 그때 현대무용에 눈을 뜨고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나의 작업이 나오게 되었다. 또한 나의 작업에 여성주의적인 해석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여성주의 혹은 여성을 생각하며 진행하지 않았다. 작업에 여성인 나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직접적으로 많이 넣는 편이다 보니 것처럼 끌고 오게 된 것 같다.

이 원 나이트 워드 썸원스 티셔츠 인 마이 베드 (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 (2006-2007)부터 시작하겠다. 우연히 만난 남성의 옷을 빌려 그것을 입은 채 하룻밤 자고, 다음 날 아침의 모습을 기록하는 행위는 내밀하며 야릇하다. 마치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나는 것과 유사한 경험이다. 조 결혼해서 유학을 갔는데 프랑스에선 유부녀에게 마담(madame)이란 호칭이 붙는다. 난 그게 너무 싫었다. 한국보다 자유로운 곳에 도착했는데 결혼한 동양 여성이라는 사실이 나를 한정된 영역 안에만 놓이게 하는 것 같았다. 사교적이고 외향적인

1 본 인터뷰는 다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ON-THE-SCENE artist 조영주”, 연구소 리포에틱 (Leepoétique) 웹사이트, http://www.leepoetique.com, 2023년 2월 7일 최종 접속. ; 작가 인터뷰, 2022년 11월 17일.

데다가 젊었던 당시의 나는 새롭게 경험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았다. 그런데 마담이라 불리며 나 스스로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도 제약받는 상황이었던 거다. 아직 언어가 유창하지 못한 동양 여성인데 마담이라고 규정되니 정말 소외되는 느낌이었다. 그 소외감 같은 것들을 견디기 힘들었다. 그러다 남편이 나보다 먼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나는 파리에 혼자 머물게 되었다. 여전히 나는 유부녀이지만 일정 부분에서 자유가 주어졌고, 그때 했던 첫 작업이 원 나이트 워드 썸원스 티셔츠 인 마이 베드이었다. 동양 여성이 서양 남성들에게 받았던 관심과 시선 혹은 희롱 등을 뒤집는 동시에 한국인으로서 갖는 정서나 규범 등을 고민하며 즐타기하는 작업이었다. 결혼한 사람의 윤리적인 경계선을 생각하게 만드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후 진행한 작업에서도 이와 같은 고민이 이어졌다.

이 티셔츠 벗어주기를 거절한 남성은 없었는가?  
조 내가 시도한 모든 남성이 다 벗어줬고, 내가 준비했던 새 티셔츠로 갈아입었다. 작업을 진행했던 몇 달 동안 나는 가방에 항상 새 티셔츠를 넣고 다녔다. 작품으로 보여준 것은 내가 그들이 벗어준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진뿐이지만 그 과정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사실 티셔츠를 벗어주기까지 아슬아슬한 즐타기가 이어진다. 젊은 동양 여성인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걸고, 호감을 표시하면서 이것이 나의 예술 프로젝트라는 것을 이해시켜야 했다. 그러면서 당신의 티셔츠를 하룻밤 빌려줄 수 있냐고 말했다. 나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줄 만큼 해당 남성과 대화 (소통)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다. 누군가는 거절했을 법도 한데 거절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은 우연일 수도 있다.

이 티셔츠를 벗어달라고 요청할 남성을 선택할 때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조 어떤 기준에 맞췄던 것은 아니었고 일반적인 플러팅 (flirting)과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호감이 가거나 가능할 것 같은 사람을 선택했다. 왜냐면 상대도 나에게 관심 있다는

- 조영주
- 1978년 생
- 학력
- 2007 파리-세르지 국립고등미술학교 DNSEP(석사) 졸업, 세르지, 프랑스
- 2005 파리-세르지 국립고등미술학교 DNAP(학사) 졸업, 세르지, 프랑스
- 2004 튀에이 말메종 시립 고등 미술학교, 튀에이 말메종, 프랑스
- 2003-5 파리8대학 조형예술학과 석사과정 수학, 파리, 프랑스
- 2001 성균관대학교 미술교육과 학사 졸업, 서울, 한국
- 개인전
- 2024 카덴짜, 송은, 한국
- 2021 그리고 다른 증인, 온라인 채널
- 2020 코튼 시대, 대안공간 루프, 서울, 한국
- 오계(五季),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서울, 한국
- 2019 젤리비 부인의 돋보기, 플레이스막 레이저, 서울, 한국
- 순순 만만, 기억의 집, 순천, 한국
- 2018 미스리와 김여사, 스페이스 노, 서울, 한국
- 2016 워터리 마담, 주인도한국문화원, 뉴델리, 인도
- 2014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 스페이스 매스, 서울, 한국
- 2013 가볍게 우울한 에피소드, 코너아트스페이스, 서울, 한국
- My public affairs, 스페이스 매스, 서울, 한국
- 이인전
- 2023 오렌지 잠, 원앤제이 갤러리, 서울, 한국
- 2022 끈적이는 바닥, 공간 힘, 부산, 한국
- 2013 Good job Good place Good time, 오산시립미술관 문화공장 오산, 오산, 한국
- 단체전
- 2023 비디오시티 x 드레스덴 2023: Utopia Today, Motorenhalle, 드레스덴, 독일

- 비디오시티 x 장크트펠텐 2023: Utopia Today, Festspielhaus St. Pölten, 장크트펠텐, 오스트리아
- 비디오시티 x 튀빙겐 2023: Flower Power, 튀빙겐 구시가지 일대, 튀빙겐, 독일
- 비디오시티 x 서울 2023: Flower Power, 송은, 서울, 한국
- 비디오시티 x 아트부산 2023: Flower Power, 벡스코, 부산, 한국
- ACC 상호작용예술 연구개발 쇼케이스, 기억하기/감각하기-경험의 공동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한국
-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 퍼블릭 프로그램 비무장여신,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 2023 동시대미술 특별전, 마당: 마중합니다 당신을, 수원시립미술관, 수원, 한국
- 젠더의 틈, AP23, 서울, 한국
- H아트랩 2기 전시 2부 하얀 벽의 고백, 아트스페이스 호화, 서울, 한국
- 2022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Unfold X) Shaping the future, 에스팩토리, 서울, 한국
- 다다익선: 즐거운 협연,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과천, 한국
- 미술관의 입구: 생태통로, 경기도미술관, 안산, 한국
- 나는 미술관에 ㅇㅇ하러 간다,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한국
- 끈적이는 바닥, 공간 힘, 부산, 한국
- DMZ 아트프로젝트: 평화공존시대, 임진각, 파주, 한국
- 도래할 풍경, 팔복예술공장 & 돌문화공원 오백장군 갤러리, 전주, 제주, 한국
- 2021 창동레지던시 입주 보고서: 풀 물 물,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서울, 한국
- 돌봄사회,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한국
- 2021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 사전프로그램: 경계에서의 신호,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서울, 한국
- 고압의 춤: 평화 공존 화합, 이응노의 집, 홍성, 한국
- 하-하-하 하우스, 수원시립미술관 아트스페이스

3 작가 소개  
7 작가 연보

14 **작품해제**  
글로벌 에일리언 (Global Alien)  
프로젝트 (2006-2015)  
원 나이트 워드 필월스 티셔츠 언 마이 베드 (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 (2006-2007)  
진실된 이야기 2 (True stories 2) (2012)  
진실된 이야기 1, Ver. 1-4 (True stories 1, Ver. 1-4) (2013-2014)  
윤니버설 콜라보레이티브, 서울 (Universal collaborators, Seoul) (2014)  
꽃가래 로맨스 (Floral patterned roman) (2014)  
미스리와 김여사 (Miss Lee and Mrs. Kim) (2017)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2019)  
입술 위의 것들 (Feathers on lips) (2020)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on) (2022)  
살릴 운동 (Caring exercise) (2023)

28 **아카이브**  
아카이브를 위한 항해지도  
31 솔르,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45 프로젝트 매뉴얼 이미지 아카이브  
59

130 **비평문**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젠더적 공간과 그 경계 무장소의 장소성, 조영주의 설치 작업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 차별적 성별화된 사회 경계에서의 예술작업 (비)무장화, (비)물결화: 조영주 작품 속 여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150 치유의 안무: 아줌마 댄스 비디오 시리즈 살에서 일어나는  
154 반복적 기억 신체가 맞이하는 국면들, 조영주의 매개적 퍼포먼스 세계 내 몸에서 온  
164 세계로  
170 마주 본 몸: 협업과 조영주 퍼포먼스의 신체성  
175 분열된 욕망, 조영주 작가의 풀 타임-더블 (Full time-double),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세 개의 숨 (Three breaths)에 대한 노트  
178 정원사의 눈을 피해 솟아오르는 연대를 위한 경험과 교섭의 기예  
181 인터뷰: 작가와의 대화  
187

201 작가 약력  
208 필자 소개  
210 크레디트

213 **부록**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약보

- 광고, 수원, 한국
- 움직이지 않고 여행하기,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서울, 한국
- 창동레지던시 배너 프로젝트,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서울, 한국
- 하나의 당김, 네 개의 눈, 공간 Type, 서울, 한국
- Knocking the door, 아트스페이스 이색, 서울, 한국
- 2020 제20회 송은미술대상전,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한국
- 16개의 기둥-지붕 없는 갤러리 PS333, 금천예술공장, 서울, 한국
- 돈을 벌지 않는 사람들, SeMA 창고, 서울, 한국
- 부산비엔날레 연계 아카이브전 모카x 부산 x 비엔날레, 부산현대미술관, 부산, 한국
- 같이 잇는 가치: 스테레오 비전,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서울, 한국
- Safe House, Maryland Art Place, 볼티모어, 미국
- 심안으로 보라,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한국
- 행복이 나를 찾는다, 세종문화회관 세종미술관, 서울, 한국
- 2019 막간극, 인사미술공간, 서울, 한국
- 프롬나드 런, 복합문화공간 에무, 서울, 한국
- Focus on X OVNI: Objectif Video Nice, 니스, 프랑스
- Marginalized Histories of Korean Women, University of Mary Washington Phyllis Ridderhof Martin Gallery, 버지니아, 미국
- Un-wall, Kunstquartier Bethanien, 베를린, 독일
- 서울무용센터 웹진 춤:in, 더 스트림 스크리닝 프로그램: 비디오/스펙트럼/댄스, 엘리펀트스페이스, 서울, 한국
- 나나랜드, 사비나미술관, 서울, 한국
- 왕복 달리기, 스페이스 공존, 서울, 한국
- 2018 코드-스티치, 롯데갤러리, 서울, 한국
- 경기 아카이브\_ 지금, 경기상상캠퍼스, 수원, 한국
- OVNI: Objectif Video Nice, 니스, 프랑스
- 재:생\_폐산업시설 문화공간 국제교류전, F1963, 부산, 한국

- 한 조각을 잃어버린 동그라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파주, 한국
- 누가 그녀를 모함했나, 서교예술센터, 서울, 한국
- 신여성 도착하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 부드러운 권력,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한국
- 이화 미디어아트 국제전,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한국
- 미디어 미디어,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서울, 한국
- 블랭크 레지던시, 성북예술창작터, 서울, 한국
- 기억의 밤 그리고 낮, 성북 도원, 서울, 한국
- 2017 Video Portrait, 토탈미술관, 서울, 한국
- 홀리스의 도시, 윤슬미술관, 김해, 한국
- SeMA 예술가 길드 표본창고, SeMA 창고, 서울, 한국
- 미스리와 김여사: 이영숙과 김숙자 이야기,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한국
- 어느 X파리지언드의 미술관 관람기\_까르띠에 컬렉션 전시 연계 프로그램,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 14th [The Stream] Screening / Talk: 조영주, 더스트림, 서울, 한국
- 2016 홀리스의 도시, 아르코미술관, 서울, 한국
- DMG, 마이 트웰브 기획, 아트 스페이스 NO, 서울, 한국
- 실신(實神)프로젝트 남.양.광.하 아카이브전,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플랫폼, 수원, 한국
- 2015 리얼 디엠지 프로젝트, 아트선재센터, 서울, 한국
- 실신(實神)프로젝트 남.양.광.하 아카이브전,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플랫폼, 수원, 한국
- Save the planet with Global Alien, Galerie im Turm, 베를린, 독일
- 불균형한 균형,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한국
- 예술가의 런치박스\_워터리 마담의 축축한 점심식사,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광주미디어아트레지던스 교류전: 아름다운 인연,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한국
- 예술가의 런치박스\_미술관 속 피크닉,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 프리뷰,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한국

— 부산, 아산, 오산, 울산, 익산; 5산사람들, 오산시립미술관 문화공장 오산, 오산, 한국

2014 예술가의 런치박스\_쉐 마담 쇼,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 응답하라 작가들(고동연 기획), 스페이스 오뉴월, 서울, 한국

— 지속가능한 도시-꽃 II, 에이픽 갤러리, 대전, 한국

— 정채 없는 존재, 라운드어바웃, 서울, 한국

— When Cattitudes Become Form, 갤러리 de l'Angle, 파리, 프랑스

— When Cattitudes Become Form, 3Some, 세르지, 프랑스

— 홍티연회, 홍티아트센터, 부산, 한국

— 광주비엔날레 20주년기념 특별프로젝트: 달콤한 이슬:1980 이후, 광주폴리, 광주, 한국

— Protest Song Test\_ Global Alien,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안산, 한국

— 메이크업, 스페이스 오뉴월, 서울, 한국

— 공생공유, 홍티아트센터, 부산, 한국

— 놀이의 공간-찰라, 창원아시아미술제 현대미술제, 성산아트홀, 창원, 한국

2013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 보고 展: 라운드-업,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 항구도시 교류전\_부산,함부르크,상해 교류전, 부산진역, 부산, 한국

2012 CYAYAF 2012 (Contemporary Art & Young Artists Festival), 일산 킨텍스, 고양, 한국

— Rebus New York City, Emily Harvey Foundation, 뉴욕, 미국

— REBUS NEW YORK CITY Re-occupy Language in Urban Space, 복합문화공간 꿀&꿀풀, 서울, 한국

2011 The end of the dream, Mica Moca Project e.V., 베를린, 독일

— Sommer auf dem Balkon, 갤러리 Antje Wachs, 베를린, 독일

— 희망과 실패\_아메리칸 드림의 재발견, 갤러리 Homeland, 포틀랜드, 미국

2010 Schnell & Schmutzig, Lab-Montage기획, Markthalle IX, 베를린, 독일

— Step toward Home, 갤러리 Dam Stuhltrager, 베를린, 독일

— Dé-synchronisation, 대안공간 Espace des Arts Sans Frontières, 파리, 프랑스

2009 Splendid Isolation-Goldrausch 2009, Kunstraum Kreuzberg/Bethanien, 베를린, 독일

— Power of Spoken Words: Import Export, 갤러리 rum 46, 아루스, 덴마크

— 미디어로서의 작가, 갤러리 정미소, 서울, 한국

— Camera Cartell-scenario 3, Hedah 갤러리, 마스트리트, 네덜란드

2008 Gender\*d\*rama, Statthaus Böcklerpark in Kreuzberg, 베를린, 독일

— Congress of Culture-Global Alien, Kunstraum Kreuzberg/Bethanien, 베를린, 독일

2007 Freedom of Speech-“Global Alien TV”, 쌈지 스페이스, 서울, 한국

2006 제5회 파리 국제 현대미술축제: 누 블렁슈, Le Divan du Monde, 파리, 프랑스

— Global Alien, Meinblau 갤러리, 베를린, 독일

— 제4회 파리 국제 단편영화제: Paris Tout Court, Cinema L'Arlequin, 파리, 프랑스

2005 Parkour Artistique, Château de Petit Malmaison, 휴에이 말메종, 프랑스

— Nouveau Cinema, Cine Qua Non협회 ESSEC 디지털 영화제, 파리, 프랑스

— Le Visiosonic, Kameleon협회 현대미술축제, 세르지, 프랑스

— Le Cinema Liberté, 국제 디지털영상축제, Chaplin 아트 센터, 보양벨랭, 프랑스

2002 Boundary and Change, 한일교류 워크샵 및 전시, 나카츠에, 일본

전시 & 프로젝트 기획

2014 Ile Royale (루와얄 섬) 레지던시 프로그램 기획, 주한프랑스문화원, 오산시립미술관 문화공장 오산, 금천예술공장, 서울, 오산, 한국

3 작가 소개

7 작가 연보

14 작품해제

14 글로벌 에일리언 (Global Alien)

15 프로젝트 (2006-2015)

15 원 나이트 워드 필월스

15 티셔츠 언 마이 베드 (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 (2006-2007)

16 진실된 이야기 2 (True stories 2) (2012)

17 진실된 이야기 1, Ver. 1-4 (True stories 1, Ver. 1-4) (2013-2014)

18 유니버설 콜라보레이션, 서울 (Universal collaborators, Seoul) (2014)

19 꽃가다 로맨스 (Floral patterned roman) (2014)

20 미스리와 김여사 (Miss Lee and Mrs. Kim) (2017)

21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2019)

22 입을 위의 것들 (Feathers on lips) (2020)

23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

24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

25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on) (2022)

26 살릴 운동 (Caring exercise) (2023)

28 아카이브

28 아카이브를 위한 항해지도

31 솔르,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45 프로젝트 매뉴얼

59 이미지 아카이브

130 비평문

130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젠더적 공간과 그 경계

141 무장소의 장소성, 조영주의 설치 작업

143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_차별적 성별화된 사회

146 경계에서의 예술작업 (비)무장화, (비)물질화: 조영주 작품 속 여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150 자유의 안무: 아줌마 댄스 비디오 시리즈

154 살에서 일어나는 반복적 기억

158 신체가 맞이하는 국면들, 조영주의 매체적 퍼포먼스

164 세계 내 몸에서 온 세계로

170 아주 본 몸: 협업과 조영주 퍼포먼스의 신체성

175 분열된 욕망, 조영주 작가의 풀 타임-더블 (Full time-double)

178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세 개의 숨 (Three breaths)에 대한 노트

178 정원사의 눈을 피해 솟아오르는 연대를 위한 경합과 교섭의 기예

187 인터뷰: 작가와의 대화

201 작가 약력

208 필자 소개

210 크레디트

213 부록

213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약보

— MakeApp 무용 프로젝트 기획, 문래예술공장, 스페이스 오뉴월, 서울, 한국

2013-14 할Hal프로젝트 전시기획 협업, 스페이스 매스, 서울, 한국

2011 희망과 실패\_아메리칸 드림의 재발견 전시기획, 갤러리 Homeland, 포틀랜드, 미국

2010-11 글로벌 플레이그라운드, 경기창작센터 국제 교류 프로그램, 안산 & 베를린, 한국, 독일

2009 Power of Spoken Words: Import Export 전시기획, 갤러리 rum 46, 아루스, 덴마크

2008 Congress of Culture-Global Alien 전시기획, Kunstraum Kreuzberg/Bethanien, 베를린, 독일

기타 경력

2010-11 베를린 신사회 미술협회(NGBK) 회원 활동

2009-11 국제 예술인 그룹 글로벌 에일리언(Global Alien) 대표

2005-현재 국제 예술인 그룹 글로벌 에일리언(Global Alien) 회원

수상 및 선정

20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예술교류 지원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 한국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창작 지원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 한국

20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가 조사-연구-비평(고윤정 기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 한국

— 융합예술창제작지원사업 언폴드엑스 지원금, 서울문화재단, 서울, 한국

2021 서울문화재단 다원예술 창작지원금, 서울문화재단, 서울, 한국

2020 제20회 송은미술대상 대상, 송은문화재단, 서울, 한국

— 서울문화재단 시각예술 창작지원금, 서울문화재단, 서울, 한국

서울, 한국

2017 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 지원금,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한국

2015 대전문화재단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지역예술연계 프로젝트 지원금, 대전문화재단, 대전, 한국

— 대전문화재단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전시연계 프로그램 지원금, 대전문화재단, 대전, 한국

2014 주한프랑스문화원 예술프로젝트 지원금, 주한프랑스문화원, 프랑스

— Global Exchange Grant - Berlin Senate Cultural Affairs Department, 베를린, 독일

— 서울문화재단 시각예술 창작지원금, 서울문화재단, 서울, 한국

— 성평등 기금, 서울시 동작구 여성복지부, 서울, 한국

2013 서울시립미술관 Emerging Artists: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 오뉴월 국제 교류 아카데미 MEET ASIAN ART, 스페이스 오뉴월, 서울, 한국

2012 덴마크 문예진흥기금, 데니쉬 아트 파운데이션, 덴마크

— 독일IFA, Institut für Auslandsbeziehungen, 독일

20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예술교류 전시기획 지원금 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 한국

2010 독일IFA, Institut für Auslandsbeziehungen, 독일

2009 골드리쉬 예술가프로젝트 Goldrausch Künstlerinnenprojekt art IT, 베를린, 독일

— 덴마크 Arts Council 국제예술교류기금, 덴마크 아루스 지역문예기금, 덴마크

200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예술교류 지원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 한국

2006 ENSAPC (프랑스 문화성의 예술프로젝트 지원금) Aide aux voyages, 파리, 프랑스

2005 ENSAPC (프랑스 문화성의 예술프로젝트 지원금) Aide aux projets, 파리, 프랑스

레지던시

2023 텔피나 재단 레지던시, 런던, 영국

2022 호반문화재단 H아트랩, 서울, 한국

2021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서울, 한국

- 2020 금천예술공장, 서울, 한국
- 2017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한국
- 2015 대전테미창작센터, 대전, 한국
- 2014 홍티아트센터, 부산, 한국
- 2013-14 스페이스 매스 레지던시, 서울, 한국
- 2010 경기창작센터, 경기, 한국
- 2009 골드러쉬 예술가프로젝트 Goldrausch  
Kunstlerinnenprojekt art IT, 베를린, 독일

출판

- 2023 『비명꾼』, 서울, 한국
- 2017 『춤추는 여인들』, 서울, 한국
- 2014 『루와얌 섬 레지던시 프로젝트』, 서울, 한국  
— 『예쁜, 까칠까칠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오산, 한국
- 2013 『가볍게 우울한 에피소드(Mile depressive episode)』, 서울, 한국
- 2010 『Global Alien The power of the spoken word』, 베를린, 독일
- 2009 『Youngjoo Cho Splendid Isolation-Goldrausch 2009』, 베를린, 독일
- 2008 『Global Alien-GA1,GA2, GA3』, Traktor Verlag, 베를린, 독일

소장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 서울시립미술관 서서울
- 송은문화재단
- 수원시립미술관
- 청주시립미술관
- 부산현대미술관

3	작가 소개
7	작가 연보
14	<b>작품해제</b> 글로벌 에일리언 (Global Alien)
15	프로젝트 (2006-2015) 원 나이트 위드 뫼원스 티셔츠 언 마이 베드 (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 (2006-2007)
16	진실된 이야기 2 (True stories 2) (2012)
17	진실된 이야기 1_Ver. 1-4 (True stories 1, Ver. 1-4) (2013-2014)
18	유니버설 콜라보레이티브, 서울 (Universal collaborators, Seoul) (2014)
19	꽃가다 로맨스 (Floral patterned roman (2014)
20	미스리와 김여사 (Miss Lee and Mrs. Kim) (2017)
21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2019)
22	입술 위의 깃털 (Feathers on lips) (2020)
23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
24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
25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te) (2022)
26	살필 운동 (Caring exercise) (2023)
28	<b>아카이브</b> 아카이브를 위한 항해지도
31	솔르,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45	프로젝트 매뉴얼
59	이미지 아카이브
130	<b>비평문</b>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젠더적 공간과 그 경계
141	무장소의 장소성, 조영주의 설치 작업
143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_차별적 성별화된 사회
146	경계에서의 예술작업 (비)무장화, (비)물질화: 조영주 작품 속 여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150	치유의 안무: 아줌마 댄스 비디오 시리즈
154	살에서 일어나는 반복적 기억
158	신체가 맞이하는 국면들. 조영주의 매개적 퍼포먼스
164	세계 내 몸에서 온 세계로
170	마주 본 몸: 협업과 조영주 퍼포먼스의 신체성
175	분열된 욕망. 조영주 작가의 풀 타임-더블 (Full time-double).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178	세 개의 숨 (Three breaths)에 대한 노트 정원사의 눈을 피해 솟아오르는
181	연대를 위한 경합과 교섭의 기예
187	인터뷰: 작가와의 대화
201	작가 약력
208	필자 소개
210	크레디트
213	<b>부록</b>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약보

필자 소개

## 고동연

고동연은 국내외 아트 레지던시의 멘토, 운영위원, 비평가로 활동해오고 있으며 최근 저서로는 『소프트파워에서 굿즈까지: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 현대미술과 예술대중화 전략들』(2018)과 『The Korean War and Post-memory Generation: The Arts and Films in South Korea (한국 전쟁과 후-기억 세대: 한국 동시대 미술과 영화)』(런던, 러틀리지, 2021)가 있다. 현재 이정실 교수와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Art in Context』(1950-Now) (런던, 블룸즈베리 아카데미, 2024)를 공동 집필 중이며, 이화여대 겸임교수로 출강 중이다.

### 고윤정

고윤정은 현재 큐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다. 퍼포먼스/다원예술에 대한 자료연구, 실제 전시에서 활용가능한 사례들을 수집하면서 다원예술의 장르적인 특성과 전시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공간과 사물, 움직임에 대해서 집중했다. 그 외에도 예술 서적을 만드는 일, 리서치, 특강, 컨설팅 등 전시 기획과 관련한 일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향후 해양 생태계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현재 연구중에 있다.

### 권태현

권태현은 전시를 기획하고 글을 쓴다. 예술계에서 활동하지만 쉽게 예술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들에 항상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정치적인 것을 감각의 문제로 파악하는 관점에 무게를 두고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뒤, 따라 (평화박물관, 2021), flop: 규칙과 반칙의 변증법 (소마미술관, 2023), 마테리-델리아 (울산시립미술관, 2023) 등 전시를 기획했다. 또한 컬렉트, 컬렉티브, 컬렉션 (서울시립미술관, 2020), 영구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2021), 인터-페이스-아나토미 (코리안아미술관, 2023)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하여 리서치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 김남시

이화여대 조형예술대학 예술학 전공 부교수. 매체와 지각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통해 동시대 미술작가들의 작업을 비평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저서로는 『광기, 예술, 글쓰기』(2016), 『현대독일미학. 감각, 기억, 사유의 변증법』(2017), 『보여진다는 것』(2020)이 있으며, 발터 벤야민 『모스크바 일기』, 프리드리히 키틀러 『축음기, 영화, 타자기』, 보리스 그로이스 『새로움에 대하여』, 마르쿠스 가브리엘 『예술의 힘』 등을 번역했다.

### 남웅

“동성애자 에이즈 재현에 관련된 논의- 에이즈 위기부터 오늘의 한국사회까지”로 2011년 제4회 플랫폼 문화비평상 미술비평 부문에 당선되었으며, 2017년에는 “오늘의 예술 콜렉티브- 과거의 눈으로 현재를 보지만, 얼마동안 빛이 있는 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로 제2회 SeMA-하나 평론상을 수상하였다. 서울을 기반으로 동시대 미술과 시각문화 평론을 하고 있으며, 더불어 성소수자와 HIV/AIDS, 난민 관련 인권운동을 하고 있다.

### 라시내

라시내는 안무가이자, 연출가, 공연예술 연구자로서 움직임 기반의 공연을 창작하고, 무용, 연극, 퍼포먼스 아트에 대한 글을 쓴다. 안무가 최기섭과 함께 프로젝트 이인으로 콜렉티브 작업을 해 왔으며, 대표작으로 연인들은 바닥없는 호수에서 헤엄친다, 퀵드, 무용수-되기 등이 있다.

### 유화정

유화정은 영국 요크대학교 (University of York)에서 여성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섹슈얼리티, 친밀성, 가족과 관계, 퀴어이론 등에 학문적 관심을 갖고, 현재는 한국의 성소수자 동거커플의 섹슈얼리티와 가족실천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다.

## 이문정

이문정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조형예술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고 2011년 미술평론가로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한국 동시대 미술을 다루는 연구소 리포에틱 (Leepoétique)의 대표이다. 리포에틱에서 한국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다룬 연구집 『평론과 대화 (Critique & Colloquy)』를 출간하고 있으며, 연구소 웹사이트에 평론 및 인터뷰 아카이빙을 진행 중이다. 저서로는 『혐오와 매혹 사이-왜 현대미술은 불편함에 끌리는가』(2018, 동녘), 『세상 모든 곳이 미술관이다』(2022, 현암사)가 있다.

### 이민주

이민주는 서양화와 미술이론을 전공했다. 글 쓰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꾸린다. 퍼포먼스와 퍼포먼스 도큐멘테이션의 관계를 짚은 동물성 루프 (공-원, 2019, 공동 기획), 다큐멘터리 이미지의 미학적성과 정치성을 조명한 논캡션 인터뷰 (의외의조합, 2021)를 기획했다. 2023년에는 #2 (두산갤러리, 공동 기획)를 통해 연극의 형식을 빌어 전시의 사건성을 모색한 바 있다. 이미지가 만드는 사건과 수행적 성질에 주목하며 비평적 글쓰기를 고민하고,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의 번역 관계를 연구한다.

### 이선영

이선영은 1994년 조선일보 미술비평 부문에서 평론 경력을 시작했다. 『미술과 담론』(1996-2006) 편집위원, 『미술평론가』(2003-2005) 편집장을 역임했다. ), 제1회 김복진 미술이론상(2005), 제1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 이론상(2009), AICA 젊은비평가상(2014) 등을 수상한 바 있다.

<span></span>	3	작가 소개
<span></span>	7	작가 연보
<span></span>	<span></span>	
<span></span>	<span></span>	
<span></span>	<span></span>	<b>작품해제</b>
<span></span>	14	<u>글로벌 에일리언 (Global Alien) 프로젝트</u> (2006-2015)
<span></span>	15	<u>원 나이트 워드 퀘런스</u> <u>티셔츠 언 마이 베드</u> ( <u>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u> ) (2006-2007)
<span></span>	16	<u>진실된 이야기 2 (True stories 2)</u> (2012)
<span></span>	17	<u>진실된 이야기 1, Ver. 1-4</u> ( <u>True stories 1, Ver. 1-4</u> ) (2013-2014)
<span></span>	18	<u>유니버설 콜라보레이티</u> , 서울 ( <u>Universal collaborators, Seoul</u> ) (2014)
<span></span>	19	<u>꽃가루 로맨스 (Floral patterned roman</u> (2014)
<span></span>	20	<u>미스리와 김여사 (Miss Lee and Mrs. Kim)</u> (2017)
<span></span>	21	<u>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u> (2019)
<span></span>	22	<u>입술 위의 것들 (Feathers on lips)</u> (2020)
<span></span>	23	<u>세 개의 숨 (Three breaths)</u> (2020)
<span></span>	24	<u>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u> (2021)
<span></span>	25	<u>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te)</u> (2022)
<span></span>	26	<u>살필 운동 (Caring exercise)</u> (2023)
<span></span>	<span></span>	
<span></span>	<span></span>	<b>아카이브</b>
<span></span>	28	아카이브를 위한 향해지도
<span></span>	31	솔르,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span></span>	45	프로젝트 매뉴얼
<span></span>	59	이미지 아카이브
<span></span>	<span></span>	
<span></span>	<span></span>	
<span></span>	130	<b>비평문</b>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젠더적 공간과 그 경계
<span></span>	141	무장소의 장소성, 조영주의 설치 작업
<span></span>	143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 차별적 성별화된 사회
<span></span>	146	경제에서의 예술작업 (비)무장화, (비)물질화: 조영주 작품 속 여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span></span>	150	치유의 안무: 아줌마 댄스 비디오 시리즈
<span></span>	154	살에서 일어나는 반복적 기억
<span></span>	158	신체가 맞이하는 국면들, 조영주의 매개적 퍼포먼스
<span></span>	164	세계 내 몸에서 온 세계로
<span></span>	170	마주 본 몸: 협업과 조영주 퍼포먼스의 신체성
<span></span>	175	분열된 욕망, 조영주 작가의 <u>풀 타임-더블 (Full time-double)</u> , 나의 몸을 쓰는 것 ( <u>Writing my body</u> ), <u>세 개의 숨 (Three breaths)</u> 에 대한 노트
<span></span>	178	정원사의 눈을 피해 솟아오르는
<span></span>	181	연대를 위한 경합과 교섭의 기예
<span></span>	187	인터뷰: 작가와의 대화
<span></span>	201	작가 약력
<span></span>	208	필자 소개
<span></span>	210	크레디트
<span></span>	<span></span>	
<span></span>	213	<b>부록</b> <u>세 개의 숨 (Three breaths)</u> 약보

## 아디나 메이 (Adeena Mey)

아디나 메이는 『애프터올 저널 (Afterall Journal)』의 편집장이자 영국 런던 예술대학교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의 애프터올 (Afterall) 연구 센터의 연구원이다. 그는 예술가의 영상, 전시 연구,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현대 미술, 사이버네틱스, 탈식민주의 및 우주 기술 사상을 탐구한다. 디지털 연구 프로젝트 ‘블랙 아틀란틱 뮤지엄 (Black Atlantic Museum)’ (폴 멜론 센터, 2021-2022)의 수석 연구원이자 워크숍 시리즈 ‘동남아시아의 글쓰기 및 출판 예술’ (영국 아카데미 2021 및 2023-2024)의 공동 개시자로서 그는 비서구 인식론과 사고에 기반한 현대 미술에 대한 새로운 글쓰기, 출판, 사고 방식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탐구해 왔다. 그는 또한 스위스 ECAL/로잔 예술 디자인 대학교에서 현대 미술사와 이론을 강의하고 있다.

### 클라우디아 마토스 (Claudia Mattos)

클라우디아 마토스는 예술, 글로벌 정치, 신기술의 교차점에 관심을 갖고 있는 큐레이터, 작가, 연구자이다. 그녀의 관심사는 비판적 교육학의 도구로서의 예술, 뉴미디어 아트와 퍼포먼스의 글로벌 역사,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서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이들의 디아스포라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글로벌 현대 미술 등이며, 한국과 멕시코 등에서 연구자로서 레지던지 입주경험이 있다. 볼티모어 미술관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휘트니 미술관에서 큐레이토리얼 리서치 등의 경력이 있다.

## 옹조린 (Jo-Lene Ong)

옹조린은 암스테르담에서 말레이시아호키엔 유산을 관리하는 큐레이터이다. 그녀가 실험하는 것은 반식민지적인 감각, 기억 그리고 조직화와 관계한다. 그녀는 쿠알라룸푸르에서 예술과 시민사회 운동의 교차점에서 미술 관련 분야를 시작했다. 지워진 역사와 지식 체계를 회복하고, 역사적 유산을 다시 연결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를 진행중이다. 제 12회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의 프로그램 고문을 역임하기도 했다. 게리트 리트벨트 아카데미 (Gerrit Rietveld Academie)에서 이론을 가르치고 있으며 '긴급 생태학: 보다 지속 가능한 커리큘럼을 향하여' 실무 그룹의 일원이다.

조 0 주, Cho 0 Joo  
2022-2023 조영주 작가 조사-연구-비평 사업

총괄기획  
고윤정

작가  
조영주

아카이브  
이민주

연구/글  
고동연, 김남시, 남웅, 라시내, 아디나 메이, 웅조린,  
이민주, 클라우디아 마토스

원고 재게재  
김남시, 권태현, 유화정, 이선영

인터뷰  
이문정

번역  
김남시 (독한-김남시 비평문)  
민소정 (한영-고동연 비평문)  
오진이 (영한-해외필진)  
울랭 (한영- 재게재 원고)  
콜린 모엣 (한영-작품해제, 아카이브, 비평문)

티저 영상 제작  
김창구

자료정리  
최은총

디자인  
홍은주 김형재

사진  
p.66 글로벌 에일리언  
p.72 글로벌 에일리언  
p.78 글로벌 에일리언  
p.80 글로벌 에일리언  
p.83 글로벌 에일리언  
p.85 글로벌 에일리언  
p.86 글로벌 에일리언  
p.88 김민곤  
p.89 김민곤  
p.90 김민곤  
p.91 글로벌 에일리언  
p.95 글로벌 에일리언  
p.108 노세환  
p.109 공간 힘  
p.110 노세환  
p.112 노경  
p.113 팝콘  
p.117 정정호  
p.120 장준호  
p.122 이의록  
p.123 이의록  
p.124 박희자

발행일  
2024. 2. 7

출판  
경복궁 클라보

ISBN  
979-11-981028-1-2 (PDF) 95600



3	작가 소개
7	작가 연보
14	작품해제 글로벌 에일리언 (Global Alien)
15	프로젝트 (2006-2015) 원 나이트 워드 쉘원스 티셔츠 언 마이 베드 (One night with someone's t-shirt in my bed) (2006-2007)
16	진실된 이야기 2 (True stories 2) (2012)
17	진실된 이야기 1, Ver. 1-4 (True stories 1, Ver. 1-4) (2013-2014)
18	유니버설 콜라보레이티브, 서울 (Universal collaborators, Seoul) (2014)
19	꽃가다 로맨스 (Floral patterned roman (2014)
20	미스리와 김여사 (Miss Lee and Mrs. Kim) (2017)
21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2019)
22	입술 위의 깃털 (Feathers on lips) (2020)
23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2020)
24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2021)
25	이산 신체 재회 (Discrete bodies reunite) (2022)
26	살림 운동 (Caring exercise) (2023)
28	아카이브 아카이브를 위한 항해지도
31	솔르,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45	프로젝트 매뉴얼
59	이미지 아카이브
130	비평문 그녀가 타자와 부딪힐 때: 조영주의 젠더적 공간과 그 경계
141	무장소의 장소성, 조영주의 설치 작업
143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_차별적 성별화된 사회
146	경계에서의 예술작업 (비)무장화, (비)물질화: 조영주 작품 속 여성, 행위주체성, 그리고 몸에 대하여
150	치유의 안무: 아줌마 댄스 비디오 시리즈
154	살에서 일어나는 반복적 기억
158	신체가 맞이하는 국면들. 조영주의 매개적 퍼포먼스
164	세계 내 몸에서 온 세계로
170	마주 본 몸: 협업과 조영주 퍼포먼스의 신체성
175	분열된 욕망. 조영주 작가의 풀 타임-더블 (Full time-double). 나의 몸을 쓰는 것 (Writing my body). 세 개의 숨 (Three breaths)에 대한 노트
178	정원사의 눈을 피해 솟아오르는
181	연대를 위한 경합과 교섭의 기예
187	인터뷰: 작가와의 대화
201	작가 약력
208	필자 소개
210	크레디트
213	부록 세 개의 숨 (Three breaths) 약보

부록